책을 내면서

녀성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녀성된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녀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물음앞에 자기를 세워보군 한다.

이것은 해외동포사회의 한 녀성으로서 내스스로 가슴에 대고 종종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철부지 소녀시절부터 지천명이라 부르는 나이에 이른 오늘까지 나는 그 대답의 현주소, 진리의 현장을 찾아 고심참담해왔고 참된 주인공이 되고싶은 꿈을 안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여왔다.

물론 이것은 내가 북부조국에 발을 딛고 이 글을 쓰게 되는 동기이자 요체이기도 하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녀성의 눈으로 북녘의 녀성을 보라.

그러되 있는 그대로, 공정한 눈으로.

북녘땅을 찾을 때마다 나는 의례히 같은 동포녀성으로서 그곳 녀성들의 미지의 정신세계에 눈을 돌리였고 그녀들의 삶과 활동을 주시해보았다.

그리고 그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개별적인 녀성들의 삶에 대해 특별히 관심의 눈을 가지고 대하였다.

그곳 녀성들의 삶과 활동반경은 한가정의 울타리가 아닌 사회의 여러 분야에로 펼쳐지고있었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북부조국의 녀성들은 강성국가건설의 한쪽수레바퀴,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 사회발전의 힘있는 담당자, 사회와 집단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이곳에서는 녀성들의 생활 그자체가 시이고 노래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영웅서사시적화폭으로 엮어지고있다.

세부적으로 깊이 투시해볼수록 그곳 녀성들의 생활은 내가 사는 곳의 녀성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사경에 처한 남을 위해 서슴없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는 녀성,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 내세우는 녀성, 한생을 바쳐 조국을 위한 과학을 탐구하는 녀성, 정든 고향과 일터를 떠나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광산으로, 탄광으로, 외진 섬마을의 분교로 주저없이 자원해가는 녀성…

한마디로 그녀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있다. 그들은 나보다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사는 녀성들이였다.

그들은 이것을 지극히 응당한것으로 여기며 모두가 이런 미담의 주인공들이 되려고 노력하는것이다.

이렇듯 놀랍고 감동적인 사실에 접할 때마다 나는 자기를 뒤전에 놓은 삶을 살고있는 그들을 쉽게, 선뜻 리해할수 없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신비했고 지어 이상하기까지 했다.

과연 그들은 지상에서 천국의 꽃을 피우는 천사들인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세계, 비록 겉보기엔 소박하고 수수해보이지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게 유난한 그녀들의 정신세계앞에 머리가 숙어졌다.

요약하면 그것은 헌신이였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를 바쳐 사회와 집단에 밝은 빛을 주며 거기에서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찾는 불같은 헌신이였다.

바로 이것이 북쪽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장식해내는 녀성들의 참된 삶의 저변에 흐르는 공통분모인가싶다.

의혹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 무엇이 그녀들을 그렇듯 아름다운 헌신의 인간들로 키워내는 것일가.

꽃은 원예사의 노력에 의해 만발한 화원으로 가꾸어지듯 이곳 녀성들의 삶을 이렇듯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삶의 터전은 어떤것일가.

인간의 삶은 사회제도에 의하여 제약된다. 마찬가지로 녀성들의 삶과 보람도 사회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오늘의 북녘녀성들의 삶과 보람, 그것은 북녘의 독특한 사회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있음을 나는 눈으로 볼수 있었다.

그것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 현장을 찾아 긴 려행의 붓대를 달린다.

오늘도 마를줄 모르고 끝없이 샘솟는 삶의 자양분을 마시며 북녘녀성들의 값있는 삶, 참된 삶, 행복한 삶의 메아리가 줄기차게 울려가고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의롭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기세차다.

북녘녀성들의 삶과 활동을 관통시켜 밟아보려는 나의 작은 노력이 어느덧 한권의 책으로 묶어졌다.

아쉬웁고 단편적이다.

하지만 하나를 통해 열, 백, 천을 헤아린다고 했다.

2014년 9월
중국 심양에서
김 영 희

차 례

송도원바다가에서 만난 녀인

2007년 8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북부조국의 하늘을 날고있음에도 나는 현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어쩐지 억울한감, 쓰린감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조국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글을 익히는 나의 손을 잡고 부모가 처음으로 가르쳐주었던 조국, 림종의 시각에도 애타게 부르며 그렇게 가고싶어하던 나의 아버지의 고향땅이 있는 조국.

그 조국에 내가 왔단 말인가. 정말 감개무량한 순간이였다.

하지만 한점 보탠것 없이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야 조국에 첫인사를 드리게 되는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슴을 압박했다.

그렇게 밟은 조국땅, 처음 봐도 전혀 낯설지 않고 따뜻한 요람마냥 느껴지는 이곳, 손잡으면 순간에 정이 와닿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이 바로

조국인가.

그때부터 나는 친정집을 드나들듯 해마다 그리고 한해에도 여러번씩 북녘땅을 밟을수 있었다.

언제인가 북녘땅 송도원 백사장에서 목격한 일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마식령산줄기의 높고낮은 봉우리들과 여기에서 뻗어내린 산발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조선동해의 맑고 푸른 물결과 바다기슭을 따라 펼쳐진 백사장, 푸른 소나무숲과 붉게 핀 해당화 등이 잘 조화되여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운 바다가풍치.

앞바다는 만으로 되여있고 갈마반도와 호도반도, 그사이에 있는 웅도, 려도, 신도, 대도, 소도와 같은 섬들이 바깥바다의 세찬 물결을 막아주는것으로 하여 마치 커다란 호수와 같이 보이며 바다물은 매우 잔잔하고 바닥의 모래알을 셀수 있을 정도로 맑았다.

바다기슭을 따라 40～100m너비의 백사장이 띠모양으로 펼쳐져있을뿐아니라 바다밀물매가 매우 느리므로 기슭에서 바다로 100m까지 들어가도 물깊이가 1.5～2m정도밖에 안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피서지로도 좋고 물온도 또한 알맞춤하여 해수욕장으로는 최상급.

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송도원이다.

송도원이란 이름그대로 푸르싱싱 우거져있는 이곳 소나무숲과

잇닿아있다고 그곳 안내원은 우리일행에게 이야기했다.

바로 700여년전 우리의 선조들이 바다바람과 모래의 이동을 막기 위해 이곳에 소나무를 옮겨심었다는것이였다.

이곳은 19세기말~20세기초부터 해수욕장으로 리용되기 시작하였다고는 하지만 해방전에는 부유한 족속들의 독점물이 되여 그들의 유흥지로, 돈벌이터로 되여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명승지를 두고도 마음대로 구경조차 할수 없었다고 한다.

일제는 저들의 패망을 앞두고 소나무들을 도벌하는 한편 그 뿌리까지 파내여 송탄유를 뽑아서 전쟁물자로 략탈해갔다고 한다.

그러니 송도원의 자연풍치가 어떻게 파괴되였겠는가는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해방후에야 이곳이 공화국정부의 전망계획에 따라 인민의 유원지로, 근로자들의 문화휴양지로 꾸려질수 있었다.

우리일행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정오가 가까와올무렵. 8월은 해수욕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들도 해수욕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껏 달아오른 온몸을 출렁이는 바다물에 식히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야릇해졌다.

갈매기의 울음소리마저 유정하게 들려온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 내 조국의 푸른 바다.

비록 사탄의 무리에 의해 조국은 둘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가를 수 없는것은 진정 삼천리금수강산 내 조국의 아름다움임을 페부로 절감하는 순간이였다.

백사장에 몸을 잠그고 일광욕을 하고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앞을 지나가던 어린 소년이 랑랑한 목소리로 나에게 인사를 보냈다.

《헬로우, 해브 어 해피 타임.》

뜻밖이였고 또 우스웠다. 완벽하지 못한 영어발음때문이 아니라 조선사람인 나에게 영어로 인사를 보내는것이 재미있었던것이다.

《안녕하세요.》

나는 우리 말로 목소리를 높여 답례했다.

깜짝 놀라는 소년.

《엄마, 조선말을 해.》

대번에 밝아지는 그들부부의 얼굴.

《반갑습니다. 우리 동포입니까?》

《예, 조선사람입니다. 중국 심양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량해를 구한다.

《리해해주세요. 머리는 갈색, 비키니를 입었으니 우리 애의 눈에 외국인으로밖에 보일수 없지요. 우리 나라엔 그런 녀성

없잖아요.》

그랬다. 리해 못할것도 없었다.

조국땅 어디를 가보아도 청바지를 입었거나 머리에 이색저색 물을 들인 사람들을 도저히 볼수도 찾을수도 없다는것을 외부세계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첫눈에 알아볼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어린 소년의 눈에 조선녀성으로 비낄수 있었겠는가.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였다.

이 순간은 조국녀성들의 고상함과 순결함을 알게 해준 하나의 계기가 되였다.

물놀이에 한창 흥이 나는데 백사장의 여기저기서 고유한 우리 선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가 류창하게 울려나왔다.

그들중에는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 흥겨운 선률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 사람들도 보인다.

한판 그들속에 끼워보고싶은 생각도 들었다.

카메라를 들고 그들에게로 뛰여가는 외국인관광객도 있었다.

그들의 장단에 발걸음을 맞추며 잠시 바다가를 거닐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한 녀인을 주시해서 살피게 되였다.

그 녀인의 일행이 몹시 특색있어 보였던것이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로 보이는 총각, 처녀애들로부터 시작하여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다닐 여라문살의 꼬마들 지어 품에 안고있는 애기까지 모두가 그녀의 일행인듯 했다.

놀라운것은 이 아이들모두가 그를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고있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다가갔다.

먼저 내가 넌지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내 나이또래쯤으로 보이는 그 녀인은 능금알처럼 익은 얼굴에 미소를 담고 상냥하게 내 인사를 받았다.

녀인의 품에 안긴 어린애는 쌔근쌔근 잠자고있었다. 유치원과 탁아소생으로 보이는 네명의 애들은 정갱이까지 걷어올린 그의 다리에 열성스럽게 모래를 쌓아올리고있었다.

《저, 한가지 묻고싶어서요. …》

그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애들이 모두 친자식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 모두가요?》

《예.》

녀인은 놀라워하는 나의 모습이 좀 우스웠던지 살짝 손을 들어 입을 가리웠다.

그리고나서 그 사실여부를 증명하려는듯 왁작거리며 뛰여놀던 애들을 집합시켰다.

어머니의 분부가 있자마자 맏이인듯 한 큰 총각애가 드문드문 널려져 모래불에 딩굴며 놀던 동생들을 향해 손을 획획 저으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모두 오래—》

순간에 아이들이 그녀의 앞에 빙 둘러앉았다.

아주 규률있는 형제였다.

갓난애까지 모두 여덟명이였다.

바다바람에 감실감실하게 탄 얼굴에서 까만 눈동자들이 낯선 나를 감시하고있었다.

녀인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애들 우로 군대나간 두 아이가 더 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그럼 열명?》

그들의 이름 또한 특이했다.

혁경, 명향, 의범, 수금, 뇌련, 부룡, 결림, 사봉, 웅성, 위덕(정확한 이름은 후날 안내원에게 부탁하여 알게 되였다.)에 이르기까지 그애들의 이름은 돌림자를 쓰지 않은게 외우기조차 힘들었다.

그 숱한 이름을 헛갈리지 않는 그가 신기했다.

그는 한참이나 좋아라 뛰여다니는 아이들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군요. 한두명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을 생각을 했나요?》

그렇게 감동하고있는 나에게 그는 별일이 아니라는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뿐이 아니구 우리 나라엔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녀성들이 많답니다.》

이야기줄거리는 이렇게 시작됐다.

원산시 방하산동에 산다는 녀인의 이름은 리병희.

그녀는 원래 1997년까지 모두 4명의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를 낳는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고 깊은 생각이 없었다는게 그의 심중의 이야기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국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받는 동안 녀성들이 일자리를 떼운다는 념려를 할수 없고 오히려 임산부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시간을 배려하여주며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보배처럼 떠받들어주고 색다른것이 생겨도 아이많은 집부터 생각해주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였다. 아이를 낳으면 탁아소에서 말아 키워주고 조금 있으면 유치원에서 또 조금 있으면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무료로 데려다 보살펴주고 공부시켜준다는것이다. 담당의사제도가 있어 어머니와 아이들이 감기에라도 걸릴세라 틈틈이 담당의사들이 찾아오고 예방주사도 놓아주니 아이 4명쯤 낳아 키우는것은

크게 어려울것이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있다면 장난심한 아이들때문에 방을 거두어놓은 뒤끝이 없고 옷을 다려 갈아입힌 뒤가 없었고 밥상을 차리는 시간이 긴것이였다는게 그의 솔직한 대답이였다.

그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싶던, 꿈꾸던것을 실현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어릴적에 꿈꾸어오던 그의 소원들—유명한 수학자나 성악가, 예술체조선수나 소문난 재단사에 지어 비행사까지 꼽자면 열손가락이 모자랐었다.

그때껏 줄줄이 이야기를 내리엮던 그가 말끝을 흐렸다.

후— 하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나는 녀인의 눈빛에 괴로움이 비끼는것을 보았다.

잠시후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였을 땐 솔직히 생각이 많았어요. 오늘밤 자고 일어나면 어느 공장이 멎어섰대,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면 어느 벌에 큰물이 났대, 또 한밤 자고 일어나면 배급소에 쌀이 떨어졌대, 엎친데 덮친 격이였어요.

곤난을 겪지 않은 집이 어디 있는줄 압니까?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고 살았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자기 집처럼 아이가 많은 집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그토록 눈물나도록 고맙기도 하고 막 죄스럽기도 하여 아이를 많이 낳은것이 후회도 되였다는것이다. 하지만 나라의 사랑과 배려가 커만 갈수록 더욱더 굳어지는것은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확고한 믿음, 고마운 제도,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였다고 한다.

그의 이런 결심을 더욱 굳게 해준 충격적인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구분대를 돌아보시다가 20여년전 중대에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린 녀병사의 딸이 어머니가 섰던 초소에 대를 이어 총을 잡고 서있다는것을 아시고는 그 녀병사의 부모들을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미풍선구자로 온 나라 인민앞에 내세워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그들부부의 소행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그후 2000년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온 가족이 군복을 입은 엄복순가족을 또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높이 치하하시였다고 한다.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이 소식에 접한 그날밤 리병희녀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복순녀성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자꾸만 되새겨졌기때문이다.

공화국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맞받아 나라를 지키는 길에 자식들모두를 내세운 엄복순녀성이야말로 모든 조선의 어머니들의

모범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밤새 떠날줄 몰랐다는 그녀다.

그는 결심했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총대병사로 키우자. 그렇게 하는것이 사회주의와 인민의 운명을 해치려 달려드는 침략자들을 이기는데 이 나라 녀성으로서 자기의 힘도 없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의 계획은 차질없이 실천되게 되였다.

한번은 간호원감, 또 한번은 땅크병감 그런 식으로 리병희녀성은 2011년 10월까지 6명의 자식을 더 낳아 열자식 어머니가 된것이다.

한명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의 심장에 덧새겨지는 글발이 있었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아이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모두 합치면 바로 이 글이 된다는 것을 나는 그때야 알았다.

정말 뜻이 깊은 이름들이였다. 혁명의 수뇌부는 곧 **김정일**장군님과 **김정은**원수님을 의미하였으니 그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부대를 탄생시킨것이였다.

정녕 감동적이였다.

우리 민족사에 자식을 명사, 재사로 키워 나라에 내세운 녀성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설로 전해져오고있지만 이렇듯

애국의 높은 정신세계를 지닌 녀성이 그 언제 있었던가.

나에게는 자식들속에 묻혀있는 녀인의 모습이 순간에 아득한 높이로 보였다.

북녘의 어디에 가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녀인, 어찌 보면 여리여보이는 작은 체격의 녀인이 그 순간 거인의 모습으로 내앞에 안겨왔다. 마치도 제국주의강적이 달려들어도 끄떡없이 맞받아 화염을 뿜어낼것만 같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우렷이 비쳐졌다. 녀인은 나의 속생각에는 아랑곳없이 현재 두 자식이 군복을 입고 초소에 서있다고, 이제 크는대로 남자애든 녀자애든 군복을 입고 엄마품을 떠날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는 이같이 말을 이었다.

《학부형총회날이 겹칠 때면 좀 애로를 겪군 하지만 그래도 애아버지와 난 어떻게 해서든 모든 총회에 다 참가합니다. 성적이 낮아졌다거나 도덕생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날 밤은 쉽게 넘어가지 않지요. 말로 교양해서 안되면 이따금 빨래방치라도 듭니다. 그리곤 단단히 다짐을 두지요. 너희들은 나라를 지켜야 할 총대감들이다, 공부 못하고 도덕없는 학생은 륙해공군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

모성애, 그것은 천부적이랄가 여하튼 어느 사랑도 따를수 없는 순결함과 확고부동함, 헌신성과 무조건성을 지니고있다고

나는 생각하군 했다.

마치 절대불변의 섭리처럼 느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모성애이며 서로 다른 세상,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도 꼭 같은 모양의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성영웅 리병희

하지만 리병희녀성을 통하여 본 북부조국녀성들의 가슴을 꽉 채우고있는 모성애는 정말로 류다른것이였다.

그것은 조국을 알고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해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사상감정으로 승화되고있다.

다른 나라의 녀성들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인가. 생각은 내가 몸담고있는 해외로 가닿는다.

그곳에서 녀성들의 모성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쏠리고있다.

그들은 많은 경우 나라의 운명보다 자식들, 개인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며 생존방식을 가르쳐주고있는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것》, 《남을 이기지 못하면 네가 짓밟힌다.》, 《모든것은 돈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하여 수학문제를 풀 때도 음악공부를 할 때도, 운동장에 나가 뽈을 찰 때도 밥을 먹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아이들은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다.

그속에서 아이들은 자란다. 오직 자기 하나만을 아는 기계인간으로 성장한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한채.

심각하게 되새겨보는 말이 있다. 누구의 말이더라.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암닭도 할수 있다. 그들을 교양할줄 아는것, 이것은 재능과 생활에 대한 넓은 지역을 요구하는 국가적인 중대사이다.》

평양을 가꾸는 부지런한 녀성들

사람우에 사람이 없고 사람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시기 우리 주변으로 말하면 첫자리에 놓이는것이 재벌가, 다음으로는 권력가, 그 다음으로는 예술계나 체육계의 유명지인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은 아득히 높은 곳에서 없는자를 굽어볼수 있으며 만인의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게 되는것이다. 그것이 어떤 부도덕한 방법으로 쟁취한 재력이라 하더라도 재벌이면 쉽게도 특권층에 속하는것이 그곳의 혼돈한 사회풍조가 아니던가.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인격을 론할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

북녘땅이다.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람의 인격을 측량하고있었다.

이른새벽 평양의 청신한 거리에 나서면 누구든지 보게 되는 녀성들이 있다. 머리우에 얹은 파아란 채양모,

등색갈의 작업복이 유난하다.

그들은 다름아닌 도로관리원들이다.

도로관리원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평양을 가꾸는 부지런한 녀성들》이라고도 부른다.

솔직히 서방세계에서 도로관리원은 사회의 하층류로 취급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평양에서 본 그들은 이와 정반대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구김살없으며 당당하고 정열적이다.

때론 코노래를 부르며 때론 왁작 함께 떠들기도 하면서 규칙적이고 익숙된 동작으로 길을 쓸어가는 유쾌하고 성실한 그들속에는 언제인가 내가 만났던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 작업반 반장 조길녀도 있다.

갱핏한 얼굴, 소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어지간히 두터운 음성에 무게가 느껴지는 서글서글한 말씨, 이따금 모자창을 손끝으로 올리거나 다음말을 뗄 때마다 눈살을 살짝 쪼프리군 하던 모습 등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도 머리속에서 뱅뱅 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그 무슨 보수나 평가를 바래서 하는 일은 더더구나 아니예요. 우리 마음이 가리킨 일입니다.》

어떻게 도로관리원이 되였는가고 묻는 나에게 그녀가 한 말이다.

그는 자기 작업반에는 근 30명에 달하는 녀성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기들모두는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에게 있어서 직업에 대한 애착은 자기 일의 보람을 알고 하는 생활의 축적된 감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고있다는 보람과 긍지, 이것이 거듭되는 과정에 어느덧 움터나고 자라나는 사랑의 감정이라는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그것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걸린다.

그래 한번도 후회된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예상했던 대답이 쉽게 나왔다.

《왜 없었겠습니까. 후회라는게…》

그런 후회가 두번 있었다고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렴 도로를 관리한다는것이 그렇게 흥겨운 일은 아닐테니까…

솔직히 두번이라는 수자도 나에겐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첫번째로는…》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는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씹었다.

그와 작업반성원들은 모두가 한마을 가정부인들이였다고 한다.

2000년 10월 어느날.

그때로 말하면 북부조국에서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내달려 온 나라가 강성국가건설로 확확 달아오르고있던 시기였다.

조국땅 가는 곳마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기적과 혁신의 소식에 접할 때마다 그들은 한가정의 울타리에 묻혀있는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겼고 지어 죄송함까지 느끼군 했다고 한다.

어느날 너도나도 모여앉아 토론을 하던 끝에 이들은 도로관리원이 될것을 결심했다.

—량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우리도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그들의 심정이였다. 그 결심은 곧 사회와 집단의 지지를 받았다.

이른아침 조길녀와 그의 작업반원들은 아빠트에서 제일먼저 현관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보람찬 일과가 시작된것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 결심과 실천에는 거리가 있었다. 장한 마음을 안고 도로관리를 맡아나섰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들이 맡은 구간은 10여리정도.

도로관리원으로 일을 시작해서 얼마동안은 물론 힘이 들었지만

후회될 정도까지는 아니였다.

그러던 함박눈이 펑펑 내린 어느날 이른새벽, 바로 이날이 그들로 하여금 후회가 들도록 한 날이였다.

그런 날이면 그 누구보다, 그 어느때보다 빨리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도로관리원들이다.

예전에 즐겁게 맞던 흰눈이, 황홀해보이던 숫눈길이 그렇게 미워질줄 몰랐다며 그녀는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밥주걱만 다루던 연약한 손에 큰 눈삽을 들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을가.

아직도 쓸어야 할 눈길은 긴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한사람 두사람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도로관리원이 된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도로관리원으로 자원했을 때 심중하게 생각해보라던 구역일군의 말도 생각났다.

이윽하여 들려오는 그녀의 말.

《구석구석 눈을 쳐나가는 10리길이 그날은 마치 100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도로관리원이 된것이 어찌 후회되던지. …》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는 저도 모르게 움씰, 저절로 입귀가 실룩거린다. 불쑥 내 갈아도 후회하고 돌아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맥을 놓고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길지 않은 눈길을 쓸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춘하추동 전선시찰과 현지지도로 계절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은 얼마나 힘드실가?》

순간 조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던 한숨소리도 땅속으로 잦아버린듯…

뒤이어 구령이라도 받은듯이 모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높은 산, 험한 령 굽이굽이 그 모든 숫눈길들이 그들의 눈앞에 밟혀왔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서로서로 다짐했다.

—우리 장군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자, 우리들이 쓰는 이 길로 장군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심정으로, 그이께서 가시는 모든 길들을 관리한다는 심정으로 일하자—

이날이후로 그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일했다. 그들이 맡은 구간은 날이 갈수록 멋있게 다듬어졌고 꾸려졌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에 대한 방문을 떠나셨을 때였다.

그들은 장군님을 그리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아름답게 활짝 핀 꽃들을

그이께 드리는 심정으로 길가에 정성껏 펼쳐놓았다. 마치 꽃바다를 련상시켰다.

또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작업반안에 새로운 직제도 내왔다.

작업반안의 모든 녀성들이 모여앉아 거수가결로 내온 직제는 도로감시원이였다.

도로감시원은 작업반성원모두가 아침에 도로를 청소하고 돌아가면 다음 제정된 교대시간까지 도로를 순찰 및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두명씩 조를 무어서는 도로의 위생성과 함께 안전상태까지 돌본다고 한다.

그렇게 여느날은 물론이고 일요일, 명절날 어느 한순간도 비여두지 않고 관리하니 그들이 맡은 도로는 언제나 깨끗했다.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그들 작업반은 마침내 온 구역이 다 알고 온 시가 다 아는 본보기작업반이 되였다.

하지만 조길녀는 이를 응당한것으로 생각했다. 자기의 일에 만족할수 없었다.

어느날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들을 찾아왔다.

기자는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곳 도로관리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그녀에게 취재를 요청했다.

《뭘 하는 일이 있다고… 아직 신문에 나자면 멀었는걸요.》

그는 굳이 만류했다.

작업반에 갓 배치받아온 영숙이라고 부르는 젊은 녀성은 해놓은 일이 좀 적은가고 하며 아쉬워했다.

조길녀는 그의 잔등을 다독여주며 타이르듯 이렇게 이야기했다.

《영숙동무, 제 집뜨락을 거두고 칭찬받는 사람 봤나?》

어제도 오늘도 때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존경어린 눈인사와 사랑이 담긴 따뜻한 인사말을 보낸다. 정말 그것이면 족하다. 그들은 날개라도 돋친듯 일에서 더욱 성수를 냈다.



조길녀와 그의 작업반원들(왼쪽에서 여섯번째)

이것이 후회에 대한 그의 첫번째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야기도 참 구수하게 잘했다.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다.

나는 옛말을 듣는 소녀처럼 의자를 그가 있는쪽으로 바싹 당겨앉으며 이야기를 재촉했다.

《두번째로 후회된적은요?》

그는 말없이 손에 든 작업장갑을 만지작거리더니 잠시 작업반원들이 쓸어가는 도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나서 보슬비같이 작은 목소리로 《이제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것이였다.

그의 의미심장한 이 말에는 비애같은것이 섞여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단 한번만이라도 장군님을 우리들이 쓰는 길에서 뵈웠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하군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장군님의 령구를 모시게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마루가 찡해졌고 가슴은 뭉클했다.

생각은 온 세계가 비애에 잠겼던 2011년 12월의 그날로 거슬러간다. 눈앞에 피눈물의 갈피갈피가 펼쳐진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했을 때 밤새 터지는 가슴을 달랠길 없어 단숨에 펜을 달려 썼다는 안내원의 자작시 몇구절.

…

오!
이 나라 상제들의 눈가에 덩이진
피눈물이여! 피눈물이여!
하늘끝에 닿아 떨어지는
울부짖음이여! 울부짖음이여!
온 가슴을 헤가르는
피타는 추도곡이여! 추도곡이여!

아!
장하게 나아가던 내 조국에
이런 날이 닥쳐올줄 알았더냐
장군님 안 계시는 평양을, 조선을
다가오는 2012년의 내 조국을
그이 한생의 전부였던 이 나라 인민들이여!
우리 감히 상상이나 해보았더냐

…

불편하신 몸을 의지에 지탱하시여

공장을 찾으시고 농촌을 찾으실 때
분명 힘들어하시는 장군님인줄 알면서도
제발 돌아가 쉬여달라고
앞길을 막지 못한 뼈아픈 후회로! 후회로!
야전렬차에 오르시는 장군님의 걸음을
끝끝내 막지 못한 하늘에 사무치는
절통함으로! 절통함으로!

이 나라 인민들은 태질을 한다
하늘이여, 땅이여 대답해달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모두 합쳐
장군님 심장과 바꿔드릴순 없는가
우리 장군님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할순 없느냐

…

단 하루라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이 땅의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인민을 위한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그이이시여서 조국인민은 그리도 가슴 뜯으며 오열을 터치였으리라.

조국땅에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도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 기념비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떠나가신 장군님.

그래서 조국인민뿐 아닌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

영결의 그날에는 하늘을 메우며 쏟아져내리는 눈발속에 바래워드리는것이 너무도 가슴쓰려 저저마다 솜옷과 목수건을 벗어 도로에 펴드리고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앞에서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령구차를 막아나선 조국인민들이였다.

그것은 천만재부로도 대신할수 없고 요란한 치장과 위엄스러운 례식으로도 얻을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이였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조선의 일심단결이라고 한다. 이 불패의 일심단결을 깨뜨릴 힘은 세상에 없다는것을 피부색과 국경, 제도, 리념의 차이를 뛰여넘어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넋으로 느꼈고 심장으로 깨달았다.

그 화폭들을 전하는 외신기자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나가실 길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이 막히고 심장이 저려 진정할수 없었습니다. 그이를 잘 모시지 못한 뼈아픈 후회로 작업반원모두가 몸부림쳤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더욱 분발했다고 한다.

—우리 장군님께 못다 드린 충정을 **김정은**원수님께 바치자. 일편단심 장군님만 믿고 따른것처럼 그이만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자—

조길녀와 그의 작업반원들은 언제든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도로를 지나가실 때 순간의 불편도 느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성껏 도로를 관리한다고 한다.

그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애국충정의 마음과 땀을 묵묵히 바치며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세차도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의 표현을 빌면 이것은 **김정일**애국주의의 발현이라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자기 맡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있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감사까지 보내주시였다고 그는 말했다.

그 영광을 지닌 도로관리원들은 애국충정의 열의로 더욱 가슴 불태우고있다며 그는 긍지에 넘쳐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선 직업의 귀천이 없이 모두가 평등해요. 우리들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있답니다. 나라의 정사에 우리들도 참가하게 되거든요. …》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다.

자본주의사회라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을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되지만 이 사회에서는 가장

영예롭고 흥겨운 일로 되는 일.

도로관리공, 그들이야말로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직업의 존귀함과 영예를 한껏 누리는듯싶었다.

그렇다, 공화국에서는 사람우의 사람이 없고 사람밑의 사람이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

사람을 재는 척도는 돈이나 직종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치는 량심이고 도덕이고 헌신이였다.

여기에 공화국의 독특한 사회상, 인간상이 있는것이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나의 손목을 잡으며 그는 말한다.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시원한 랭면을 대접할테니.》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다.

《아리랑》인연

《아리랑》은 옛날부터 널리 불리워온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요, 조선민요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명곡이다.

《아리랑》의 발생과 어원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대표적인것이 《성부와 리랑》이다.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리랑이라는 총각과 성부라는 처녀는 흉년이 든 어느해 이 지방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폭동에 참가했다가 관군의 추격을 받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 리랑과 성부는 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산다.

그후 리랑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싸움터로 나갈것을 결심하고 사랑하는 안해인 성부와 리별하고 높고 낮은 고개들을 넘고넘어 떠나간다.

그때 성부는 떠나간 남편 리랑이 넘은 고개들을 바라보며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아리랑》으로 되였다고 한다.

어렸을적에 할머니는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자주 《아리랑》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옛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군 하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나이탓으로 음정은 떨렸지만 할머니특유의 《아리랑》곡조는 어린 마음에도 구수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단지 나를 잠재우자고 그 많고많은 노래중에 《아리랑》을 부르신것은 아니였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풋잠에 들었다 얼결에 깨면 그때까지도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아리랑》을 조용히 부르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우렷이 떠오르군 한다.

사랑을 속삭여보고 가정을 이룬 후에야 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해방전 할머니의 눈물나는 사랑이야기.

야학방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할머니의 모습에 홀딱 반한 한

마을의 씨름군총각이 그날밤 솟아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누를수 없어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는데 그 씩씩하고 름름한분이 바로 나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어떤분이셨는가고 목에 매달려 물을 때면 할머니는 철없는 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며 그냥 《우리 손녀처럼 맑고 깨끗한분이셨지…》 하시군 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신 두분이였지만 그들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가 두살 잡히던 해 할아버지가 일본군의 징병에 끌려가게 되였던것이다.

어린 나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나서는 할머니를 억세고 넓은 품에 와락 안아주신것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이였고 정이였다는것을 나는 할머니가 세상을 뜨신 후에야 알게 되였다.

그래서인가. 할머니는 《아리랑》을 누구보다 사랑하신듯싶었다. 《아리랑》이 인연이 되여 가정을 이루신 할머니여서, 《아리랑》 전설의 주인공 성부와 리랑처럼 결국엔 리별의 운명을 당하신 분이여서 할아버지가 그리우실적마다 할머니는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신것이리라.

할머니는 노래를 다 부르시고나서는 입버릇처럼 말씀하군 하셨다.

《다 제 나라가 없은탓이였지…》

이것이 《아리랑》 하면 떠오르는 가슴아픈 추억이였다.

《아리랑》을 생각하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다.

그만큼 《아리랑》은 나라없던 설음과 그렇게 남편들을 빼앗긴 이 나라 모든 녀성들의 슬픔의 대명사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던 내가 《아리랑》에 대해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될줄이야.

—조선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 땅 어느 구석에 가나 《아리랑》을 들을수 있다. 그렇게 《아리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겨레의 피줄에 흐르는 선률인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태양대메달, 평화훈장을 받고 2007년 8월에는 기니스세계기록증서가 수여된 조국의 위대한 창조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무용주역으로 대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은 안무가들중의 한 성원으로서 활약하고있는 피바다가극단의 인민배우 신영미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어릴적부터 사람들속에서 천사로 불리우고싶었다는 그녀, 자기 세계에서 천사는 눈처럼 하얀 위생복을 입은 의사였다고 하며 웃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신영미는 이미 중국의 많은 사람들속에서도 우아하고 황홀

한 춤가락으로 인기를 모은 명배우이다.

그는 2010년과 2011년 중국에서 순회공연한 가극 《홍루몽》과 《량산백과 축영대》에서 무용주역을 맡았는데 여기서 그는 자기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인민배우 신영미

시작되는 첫날에 공연을 관람하였던 중국인인 나의 친구는 《량산백과 축영대》에 출연한 무용주역의 모습은 대단히 황홀하였다고 극구 찬양하기도 했다.

친구는 어지간히 흥분된 어조로 나에게 이같이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튀는 불꽃과 같았고 그의 춤동작은 중국배우들을 릉가하였다.》

나 역시 공연을 보는 기회를 가지였을 때 그것이 우연한 말이 아님을 잘 알수 있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었다.

꼭 그녀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겠다.

그렇게 소원했던 만남을 나는 조국에 와서 어렵지 않게 이룰수 있었다.

그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안무성원으로 동원되여있다는 정보를 안내선생으로부터 받았던것이다.

나는 공연이 진행되고있다는 5월1일경기장으로 향했다.

공연복장을 입은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대렬을 지어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쁜 몸이라 했다. 하지만 조국을 찾은 해외동포라는 나의 신분이 얼마간 그녀에게 시간을 낼수 있게 한듯 하였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끝에 드디여 만나게 된 신영미.

마흔살을 가까이 한다는 그녀의 말을 도무지 믿을수 없을만큼 그의 자태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매력있는 녀성은 입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이야기하는 법이다.

아름다운 자태와 어울리는 고운 눈에서 그윽한 빛을 뿜는 두 눈동자는 나에게 반갑다고 이야기했고 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추동했다.

이렇게 나는 조국의 유명한 무용수의 성장담을 직접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나는 줄줄이 물었다.

어떻게 무용수가 되게 되였는가, 중국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추는가, 남편은 예쁜 당신을 밖에 내놓기 불안해하지 않는가, 자식은 어떤가, 뭐 이러루하게…

그의 눈동자가 다시한번 반짝했다.

신영미는 어릴적부터 아빠트는 물론 학교선생님들과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다싶이 했다. 누구든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었다는것이다.

《에그— 너희 부모들은 어쩌면 그렇게 널 곱게 만들었다니.》

딸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신영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거기다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전 과목 최우등에 전교 1등만 했고 분단위원장까지 했다는 그녀다.

어린 신영미의 희망은 의사가 되는것이였다.

흰눈처럼 깨끗한 위생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의사를 볼때면 마치 동화그림책에 나오는 천사처럼 생각되였던것이다.

하여 의학대학에 갈것을 꿈꾸었던 소녀. 하지만 그가 열살나던 어느날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 학생을 모집하러 나온 선생들의 눈에 들게 될줄이야.

소녀를 앞뒤로 보고 팔다리도 들어본 그들은 이름을 적어가지고 갔다.

퇴근해온 부모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웃으며 하는 어머니의 말.

《우리 가문에 무용을 한 사람이 어디 있니? 공부나 잘해라.》

하지만 다음날 학교로 전날에 모집나왔던 음악무용대학의 교원이 또 찾아왔다.

《신영미학생은 천성적으로 무용수가 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꼭 영미가 훌륭한 무용수가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여 그는 예비시험을 치르게 되였는데 놀랍게도 최고점수를 받았다. 하여 1987년 7월 본시험에서 완벽한 인물육체적조건으로 평가되여 최고점수로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입학하게 되였다.

나는 물었다.

《그래 춤추는게 마음에 들던가요?》

《아닙니다. 처음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는 나에게 웃으며 설명했다.

《예비교육을 받는 3년이 그랬습니다. 전 항상 남에게 지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늦게 무용을 하다나니 계속 꼴등만 했습니다. 학급에서 공부할 때는 모두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칭찬만 받군 했는데 무용소조에서는 남을 따라가고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재미가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맥을 놓지 않은 신영미였다.

오히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남들보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게 했다.

그는 매일매일 일기에 이렇게 쓰군 했다고 한다.

《앞으로 꼭 공훈배우가 될테다.》, 《기어이 인민배우가 되겠다.》

그렇게 신영미는 이악쟁이였다.

대학반 1학년에 올라와서 전국청소년예술교육부문 개인경연에 출전하게 되였는데 그때 그는 작품 《조선은 하나다》와 《도라지》를 가지고 최고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은 신영미였다.

그는 교원이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창작가를 만나서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와 창작의도에 대한 강의를 받았다. 그저 배워주는대로 따라해서는 남을 이길수 없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렇게 되여 17살 나던 때는 2.16예술상개인경연에 나가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 전문배우들과 나란히 겨루어서 3등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때 그의 능력을 보고 창작가들은 피바다가극단에서 창조하는 전설무용극 《봉선화》의 주인공역을 맡겼다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역을 맡았을 때 교원들도 동무들도 그자신도 모두 어리둥절하였다는것이다. 그녀의 인상은 밝고 명랑한데 역인물은 처량하고 애달프고 불쌍한 처녀였기때문이다.

하지만 해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달라붙었더니 주인공의

세계에 인차 빠져들게 되였다고 한다.

빠스안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쌍한 주인공의 감정세계에 빠져드느라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면서 감정표현을 하다나니 빠스에 올랐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상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기도 했다고 그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안무가들과 작업하면서 고충도 있었지만 창조집단의 고무속에 정신육체적능력을 최고로 발동시켜 끝내는 주인공의 형상을 완성하고 첫 무대에 나섰다고 한다.

섬세한 률동과 진실한 얼굴표정의 감정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불쌍한 봉선이의 운명을 실감있게 형상한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공연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를 회상하며 신영미는 말했다.

《별다른 리유가 없습니다. 팔다리를 놀린다고, 아름다운 얼굴에 훌륭한 몸매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성공의 비결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말에 열중했다.

《꼭같이 한 무대를 타고 한 선률에 맞춰 춤을 추는데 눈에 안겨오는 무용수와 그렇지 못한 무용수가 있는것은 그들이 지닌 정신력의 차이때문입니다.

강한 정신력은 모든것을 이겨내지요. 한동작한동작에 자기의 모든 힘, 모든 정열을 집중시키는 사람만이 훌륭한 춤가락을

펼쳐보일수 있다는게 제 경험입니다.》

실로 성공인다운 견해였다.

그의 기쁨과 소원 역시 성공인다웠다.

언제인가 외국의 한 예술인이 그를 만나 가장 기쁜 순간이 어느때이고 소원은 무엇인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그는 이에 대하여 작은 범위에서 기쁜 순간은 자신이 주인공을 한 작품의 첫 심의가 성과적으로 끝났을 때이고 큰 범위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김정일**장군님의 치하를 받을 때이며 이는 누가 억만금을 준대도 비길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다고 한다.

소원에 대하여서는 시대와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속에 있는 인민배우가 되는것이며 현역배우생활이 끝나도 두뇌로 이바지할수 있는 존재가 되는것이라고 했다는것이다.

어떤 노력끝에 그가 인민배우가 될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듯 완전무결한 무용가가 될수 있었는지 나는 알수 있었다.

가극 《홍루몽》과 《량산백과 축영대》에서 형상한 무용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했다.

《조선무용을 전문으로 했지만 중국무용을 짧은 기간에 형상할수 있은것은 호흡이 부드럽고 굴신과 상체동작, 팔동작이 유연한 조선무용의 바탕이 있기때문입니다.

조선무용은 무용률동의 호흡이 풍만하고 깊이있으며 호흡

기교의 멋과 맛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유연하게 넘어가는 면에서는 우리가 우월합니다.

<홍루몽>과 <량산백과 축영대>의 무용을 본적이 있는 중국 전문가들은 우리 배우들이 너무 완벽하게 형상해서 자기들은 더 할 말이 없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어느 나라의 무용이나 다 형상해낼수 있는 우리 무용이 단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중에 나는 그가 2002년 부산에서 열렸던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때 응원단으로 참가했었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그때의 감회가 깊었다고 한다.

경기도 경기지만 평양의 선녀들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지금도 잊을수 없는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대포항언덕에서 남녘의 수많은 사람들이 먼발치에서라도 응원단을 보겠다고 노래부르고 손풍금을 치며 떠날줄 모르던 모습이라고 하면서 귀항할 때 배고동소리가 울리자 사람바리케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눈물을 머금고 웨치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고 했다.

남편에 대해서는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선보러 나갔을 때 난 결혼을 해도 절대로 무용과는 리별

못하는 녀자라고 먼저 오금을 박았는데 뜻밖에 그가 사람은 자기가 하고싶은걸 해야 한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뭉클했다고 해야 할가, 아무튼 항상 그렇게 리해해주고 힘을 주군 합니다.

공연때문에 늦게 집에 들어와도 쉬지 않고 기다린답니다. 따끈한 밥상까지 차려놓을 때도 있구요. 한번은 내가 막 미안해 하니까 나를 꼭 안아주며 <난 바빠하는 당신 모습이 더 곱구 더 좋아.>라고 하지 않겠나요.

난 이렇게 남편의 고무속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아들애는 좀 불평있어합니다.》

《그래요?》

유모아적인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아들이 한번은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럽구 대견해서 <엄마가 왜 좋니?> 하고 물었더니 순서를 꼽아가며 이야기하는게 아닙니까.

첫째, 아버지와 나에게 항상 웃어주는게 좋다.

둘째, 엄마가 직장에 잘 나가는게 좋다.

셋째, 직장 나가서 주인공하는게 좋고 정말 멋있게 해서 좋다.

넷째, 바쁜 속에서두 집을 깨끗하게 거두구 빨래를 잘해서 좋다.》

《모두 좋다는 소리구만요.》

《글쎄 들어보십시오. 다음 항목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손까지 꼽아내려가던 아들이 《다음 다섯째!》하고서는 슬쩍 엄마의 눈치를 보더란다.

잠시후 용단을 내린듯.

아들이 손가락을 꼽았다.

《다섯째, 집에 밤늦게 들어오는건 정말 싫다.》

아들의 말을 흉내내는 그녀가 더 재미나 난 한참이나 즐겁게 웃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다.

《아들도 크면 엄마를 리해해주겠죠.》

《전 소원대로 인민배우도 되였고 예술단 안무가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 유명한 <아리랑>의 한개 장에 대한 안무를 맡고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키워준 나라의 크나큰 믿음에 어떻게 하나 보답하여야겠는데…》

시간가는줄 모르고 나누던 우리 대화는 자연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화제로 돌았다.

공연이 처음 막을 올리던 2002년 4월부터 《아리랑》에 참가하고있다고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리랑>과 오랜 인연을 가지셨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

민족이야 아리랑민족 아니나, 《아리랑》과 인연을 맺은 우리 조선사람들이구, 내가 《아리랑》공연에 참가하고있을 때 선생을 만나게 된것도 그런 인연이 아니겠냐며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아리랑민족임을 긍지높이 여긴다, 옛날에는 아리랑이 그렇지 못했다, 눈물의 대명사, 원한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은 기쁨의 아리랑, 행복의 아리랑이 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여 인민들에게 참답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주셨고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내 나라를 빛내여주셨으니 이 땅에 울려가는 《아리랑》곡조가 어찌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겠는가, 그 《아리랑》이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아는 민족의 국보가 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면 더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공연을 보기 위해 관람석에 앉았다.

공연이 진행되게 될 5월1일경기장은 《1912》, 《2012》, 《100》이라는 글발과 전광장치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여있었다.

공연이 시작될무렵 신영미는 나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주석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발기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신 작품이라고.

막을 올린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인류문화예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대성공작으로, 새 세기를 대표하는 최고걸작으로

빛을 뿌리며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고, 조국인민들은 물론이고 18만여명의 해외동포들, 남조선인민들, 외국인들이 관람하였다고 한다.

드디여 《아리랑》의 선률이 장내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공연은 시작되였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처음부터 공연의 세계에 저절로 끌려들었다. 마치 치차가 맞물리듯이, 공식에 맞춰 수학문제가 풀리듯이 수만명에 달하는 출연자들은 거대한 립체적공간속에서 아리랑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펼쳤다.

나의 할머니의 가슴아픈 사연이 깃든 노래, 아니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설음과 아픔을 안고있는 《아리랑》의 노래선률이 절절하게 울려왔다.

국력이 약했던탓에 식민지약소민족의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떠난이, 현해탄에 몸을 던진이, 일제의 총칼에 무주고혼이 된 수많은 무명유명의 넋이 살아나 《아리랑》을 부르는것만 같았다.

수난많고 설음많던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조선을, 풍전등화의 운명을 한탄하던 아리랑조선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주석님,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고립압살에도 끄떡없이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키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눈물의 아리랑이 환희의 아리랑으로 되였음을 공연은

보여주고있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자주로 존엄높은 조국의 오늘이 있고 **김정은**원수님이 계시기에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긍지높이 웨치고있었다.

공연은 끝났지만 여운은 몹시 컸다.

세계유일의 공연이라고 탄사를 연방 터뜨리며 흥분해있는 나를 신영미는 곱게 환하게 웃으며 바라본다. 하늘에 날리는 그녀의 청신한 웃음속에 조국의 아름다운 녀성들의 세계가, 통일강성부흥할 아리랑민족의 희망찬 미래가 비껴있는듯 했다.

언제인가 평양방문나날에 나는 새로 꾸려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는 기회도 가질수 있었다.

녀성들에 대한 배려가 특별한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친정집》이라고 다정히 부르는 평양산원, 바로 거기에 유선종양연구소를 새로 일떠세웠다.

유선종양연구소가 자리잡고있는 문수거리를 향해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나에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유럽의 한 사진작가가 남긴 유방암절제수술을 받은 녀성의 상반신 사진이다.

한쪽가슴을 절단한 녀인이 상반신을 드러내고 하늘을 향해 두팔을 벌리고 웃는 모습이였다.

동시에 오래동안 유선암을 앓고있는 내 친구의 얼굴이 엇갈리며 눈앞에서 떠나질 않는다.

2년전 왼쪽가슴을 잘라낸 그는 참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수술뒤에는 목욕탕에 한번도 가지 않는 그녀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여낼 용기가 그에겐 부족했던것이다.

한쪽가슴이 없어 몸이 기우는 느낌도 받는다고 한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료양생활을 하고있는데 간혹 외출할 때면 인조유방을 착용하군 한다.

유방재건수술을 받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감히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미 숱한 돈을 치료비로 써버린데다 유방재건수술은 값이 엄청나기때문이다.

사실이 그러했다.

유선암으로 인한 유방절단수술값과 유방재건수술비는 수만US$를 헤아린다.

이렇게 비싼 수술비때문에 평범한 녀성환자들은 녀성으로서의 자존심과 행복을 되찾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줄곧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양의 거리를 내다보고있는데 어느덧 차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와닿았다.

시원하게 틔워놓은 중앙홀의 천정에서 눈부신 빛을 뿜는 아름다운 원형무리등과 정갈한 고급색타일을 깔아놓은 바닥이며 구내를 부분별로 구획지은 품위있는 장식유리벽들…

건축예술의 온갖 묘기가 다 비낀듯 은근하면서도 우아하고 산듯하면서도 무게있는 조형적미를 갖춘 연구소의 모습은 한마디로 훌륭했다.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도 녀성들을 위하는 우리 제도의 고마움에 머리를 숙이군 합니다.》

우리를 안내해주던 깔끔한 외형의 녀의사 홍혜옥의 말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는 그녀의 나이는 31살.

늘 받군 하는 사랑이여서 잘 몰랐는데 어느 기회에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았다는 그의 체험담이 여운을 남겼다.

연구소가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학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어느 나라의 의료대표단이 연구소를 참관하였다고 한다.

연구소의 외부와 내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그들은 하나같



홍혜옥의사

이 《놀랍다 놀랍다, 정말 놀랍다.》는 탄사를 연방 터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상급의 연구소에서 마음껏 연구도 하고 치료도 하는 의사들과 무료로 치료를 받는 녀성들이 부럽다고 몇번이나 이야기하였다는것이다.

그 진심의 고백을 들은 홍혜옥의사는 모르고 받는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밤새워 생각해보았다고 한다.

정말 그럴만했다.

연구소의 의료설비와 실험설비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상급이였던것이다.

유관에 대한 조영촬영과 함께 척추를 비롯한 뼈와 혈관에 대한 조영촬영도 할수 있는 진단 및 치료설비인 다목적렌트겐, 해당한 병조를 찾아내고 전이된 정도도 정확히 알수 있는 고성능CT, 미세한 유선암에 대한 화상진단에 리용되는 유선촬영기, 만져지지 않는 유관내의 병조를 찾아내는 유관내시경, 몸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도 진단에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는 유선조직절제기, 여러가지 진단에 리용되는 초음파진단설비와 심전도설비들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수 없게 하였다.

어떻게 걸음을 옮겨짚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훌륭할수가, 이렇게 값비싼 기재를 무료로 리용하다니…)

홍혜옥의사의 안내를 받으며 2층홀에 올라섰을 때였다.

환자복을 입은 열댓명정도의 녀성들과 위생복을 입은 간호원, 의사들이 섞여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홍혜옥의사는 그들이 퇴원하는 환자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앉았다.

나는 곁에 앉은 허계숙, 백호춘녀성들과 통성을 했다.

량강도 삼지연군 읍에서 산다는 허계숙녀성은 60살이였다.

2010년 백두산지구에 이동검진을 나왔던 평양산원치료대의 의사선생으로부터 유선증이 있으니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을 큰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 몇해후에는 유선암(Ⅱ기)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는것이다.

수술에 대한 공포심때문에 하루이틀 미루던차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첫 유선암수술을 성과적으로 받은 함흥녀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올라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들은데 의하면 함흥시 흥남구역 서호 1동에 산다는 그 녀성의 이름은 최서향.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나라의 은덕에 고마움을 금할수 없어 수술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렸다고 한다.

최서향녀성은 편지에서 유선종양연구소에서 첫 유선암수술을 받은데 대하여 상세히 아뢰이면서 병원으로 떠날 때 자기를 낳아

키워준 친어머니도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 무서운 병이 아니였으면 하고 바라기만 하였지만 나라에서는 불치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주고 두번다시 새 생명을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하늘같은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길이길이 전해가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최서향녀성의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라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는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얼마나 복받은 녀성들인가.)

허계숙녀성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생을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살아오지만 유선종양연구소에 입원해있는 나날에 나는 우리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였어요. 수술을 성과적으로 마친 날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은 원래 고칠수 없는 병이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셨던 이 병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여기 유선종양연구소에서는 다 고칠수 있다구요.》

그는 유방절제수술과 함께 유방재건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반대켠 의자에 앉아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있는 우리의 안내자인 홍혜옥의사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 선생이 수술을 집도했다고 알려주었다.

백호춘녀성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한마디 했다.

《나를 담당했던 선생은 그옆에 있는 남자선생인데 30대 젊은 선생이랍니다. 그도 보통수준이 아니예요.》

이어 나는 입원실들을 돌아보았다.

2～3명의 환자들이 입원생활을 할수 있게 된 널직한 입원실이 수십개나 있었다. 매 방마다 수술한 환자들의 식사와 활동에 편리한 침대들이 구비되여있고 벽에는 최신액정TV들이 설치되여있었다.

따뜻한 색갈의 벽지를 붙인 벽면들이며 시원한 느낌을 주는 창가림, 녀성적인 미를 가진 장식등, 더운물과 찬물이 언제나 흘러나오는 세면장과 샤와실을 갖춘 입원실들은 고급호텔의 침실들을 방불케 했다.

이 모든것이 시작부터 마감까지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관심속에 설계되고 꾸려졌다고 했다.

(얼마나 행복한 조국의 녀성들인가.)

나는 또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루밤 입원비가 몇백US$를 헤아리고 입원실의 TV조차도 돈을 내야만 볼수 있는 다른 나라 같으면 감히 상상할수 없는 조국의 이 현실.

수술비가 없어 병원에서 쫓겨나고 입원비가 없어 수술후에도 병원밖에서 누워지내야 하며 더는 치료비를 댈수 없어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는 다른 나라 환자들과는

너무나 대조되는것이 아닌가.

얼마전에도 어느 한 나라에서는 암에 걸린 25살 난 처녀가 치료비를 감당할수 없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어느 나라에서도 딸의 치료비때문에 어머니가 딸을 죽이고 뒤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뿐인가. 엄청난 치료비를 요구하는 투병생활에 지쳐 끝내는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안해가 함께 죽는 등 동반자살도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있는 우리 주변.

유전사귀신이라는 말이 생각된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수 있다는 말.

사람들이 생활상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돈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등 못하는짓 없다는 그것이다.

그럼 이들과는 전혀 딴세상에서 사는 조국에서 만난 그들을 《행복한 환자》들이라 해도 될가.

헤여지기에 앞서 홍혜옥의사는 내 손을 잡으며 기회가 있을 때 꼭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자기의 유방재건술이 그리 높지는 못하지만 힘자라는껏 수술을 해보겠다고 겸허하게 그리고 진정을 담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의 모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참인간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새 세대 녀성의학자의 생신한 모습이였다.

명배우란 추억되는 존재다.

사람들은 때로 사랑하는 배우와 자신을 나란히 놓아보기도 하고 배우를 좋아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기도 하는것이다.

뭇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나 역시 마음속에 잡아두고 항상 생각한 그런 녀배우가 있었다.

그는 남조선의 유명한 인기배우였다.

물론 그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응원의 감정이 처음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진실한 연기에서 비롯된것이였지만 동포녀성이라는 점이 더 마음을 끌었다.

더해진 다른 리유도 있었다.

어느 기회에 인터네트에 실렸던 그녀의 자서전중 일부를 읽게 된 후부터 나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되였다.

《…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이가 생기면 꼭 한번은 그곳에 데려가고싶다. 그 집이 없다면 그때의 사진이라도 찾아 아이에게 보여줄것이다.

그리고는 말하리라. <여기가 엄마가

어릴 때 고생하며 살았지만 꿈은 버리지 않았던 곳이란다.>》

그렇게 꿈많은 녀성이였다.

인기배우였지만 그는 언제나 가난한 시절의 배고픔을 잊지 않고 살았다.

명품옷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흥탕망탕 돈을 쓰지도 않았을뿐더러 고생하는 사람은 도와주었고 기자들앞에서는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다고 한다.

가난속에서 배운 그의 겸손이 나에게 더 친근한 모습으로 안겨왔다.

하지만 그는 명배우가 된 후에도 배고픔보다 더 큰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다.

인기있는 녀배우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한때 그 역시 거리를 오가는 뭇남자들의 끈질긴 눈길을 사열했었고 미를 갈망하고 류행에 민감한 수많은 처녀들의 화제거리로, 선망의 대상으로 되군 했었다. 또 만사람의 축복과 부러움속에 장중한 결혼행진곡을 울리며 국내체육계의 이름난 체육인과 결혼식도 올렸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녀의 훌륭한 래일을 약속하는것은 아니였다.

그의 장미빛나던 꿈과 리상은 비온 뒤 무지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결혼한지 몇해 안되여서 리혼하였고 연약한 두어깨에 가정일을 걸머지게 되였던것이다.

명배우라지만 녀자는 녀자였고 또 물러설 곳없는 어머니였다.

혼자서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자니 그 고생을 어디에 다 비길가.

남몰래 술집에 들어가 량껏 술을 마시며 엉엉 울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던 그였다.

나는 그가 출연하는 영화나 련속극을 볼 때면 어느새 그가 배우라는것을 감감 잊어버리고 그와 기나긴 려행을 함께 하며 열심히 그를 응원했다.

항상 그가 이기기를 바랬다.

그의 운명이 영화에서조차 망가지는것을 나는 참을수가 없었다. 마치도 내가 망쳐지는것 같아서…

그러나 당당하던 배우는 나와 응원자들의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 생을 접었다.

몇년전 그는 41살의 한창나이에 자살이라는 끔찍한 길을 택했던것이다.

그녀의 자살은 천만뜻밖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자살을 두고 안타까워했다. 언론매체들은 그녀의 자살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도배되였다.

그는 왜 자살했는가.

그 리유를 한마디 말에 담을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헐뜯는 헛소문에 견딜수 없었다.》

그가 자살한 후 경찰은 그녀가 남긴 글의 일부를 찾아 공개

했다. 책상우에 놓인 달력에서 발견된 글의 내용은 그리 길지 않았다.

《나는 왕따, 외토리, 도무지 숨을 쉴수 없다.》

그가 그렇게 마음아파 죽을 때까지 곁에서는 무엇들을 하고있었는지, 정말 《랭정한 이웃들》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아무리 명배우라도 혼자힘으로는 자기의 명예 지어 오직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도 지켜낼수 없는것이다.

그후 어느 나라 연구팀은 《명배우들이 일반인들보다 2~3배 빨리 죽는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하였다.

그러고보니 언뜻언뜻 눈앞에 떠오르는 배우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중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녀배우들의 얼굴도 보인다.

자살의 길을 택한 그들은 모두 누구나 쉽게 가질수 없는 아름다움과 재능을 소유하고있었지만 종당에는 생을 포기해버렸다.

이쯤되면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을 그 개개인들의 선택만으로 놓고볼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되는 연예인자살사건을 두고 많은 글들이 출판물과 인터네트에 련이어 떴다.

그중에는 이런 글도 있었다.

《… 유명녀배우가 자살을 했다. 도대체 자신의 삶을 끊어야

할만큼 그녀에게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였을가?

…

그녀는 말했다. 수많은 인터네트에 실린 악플을 볼 때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것 같다고.

…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나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불쾌감을 잘 표현한것이다. … 도대체 인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아옹다옹 다투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

후— 길고긴 한숨이 나왔다.

꽃같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데는 이런 리유도 있는것이다.

하긴, 그들뿐이 아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문에 지쳐가고있다. 남들보다 작아지지 않으려고 더 큰 《존경》을 받고싶고 남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고 매일매일을 최후의 날처럼 생각하며 싸우고있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시선은 언제나 랭정한 법이고 남이 잘 되는것을 바라는 사람은 드물다기보다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것이다.

남을 짓누르려는 차디찬 눈길, 날개달고 다니는 헛소문에 지쳐 누구나 쉽게 오를수 없는 인기절정에 올랐던 연예인들조차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다.

바로 내가 사랑했던 녀배우의 경우가 이것을 증명하고있다.

그런데 정답이라고 확신하고있던 나의 이런 생각이 그야말로 180° 달라지게 될줄이야…

그즈음 평양에는 류다른 열풍이 일고있었다.

국립연극단에서 재창조하여 무대에 올린 경희극 《산울림》 관람열풍이였다.

공연이 진행되는 국립연극극장 앞마당은 구경하러 온 손님들로 매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가는 곳마다에서 《산울림》소리가 나올 정도로 연극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그때 투숙하고있던 고려호텔의 카운터에 앉아도 상냥한 봉사원처녀가 《선생님, 경희극 <산울림>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는게 후회없습니다.》 하며 권할만큼 작품은 조국인민들속에서 인기를 모으고있었다.

안내선생에게 들은데 의하면 경희극 《산울림》은 그 사상성과 예술성, 해학성에 있어서 북에서 손꼽힐뿐더러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작품이였다.

작품은 공화국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일찌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강원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나날에

갓 공연을 시작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고 사회주의농촌의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해주시였다고 한다.

사상적내용에서뿐아니라 예술적면에서도 작품은 천리마시대가 낳은 첫 경희극작품으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갖춤으로써 공화국의 주체적인 연극예술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고 한다.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감화력과 생명력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마시대의 명작을 재창조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창조과정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여 또다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고 한다.

평양방문중에 우리일행도 이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가지였다. 1시간 40분 남짓한 공연이였지만 우리 역시 조국동포들이 자랑스럽게 추억하는 천리마시대와 그 시대 인간들에 대한 리해를 생동하게 가질수 있었다.

자연의 산울림은 메아리로 끝나지만 인간의 심장에서 터치는 산울림은 시대를 진감하고 아름다운 리상을 꽃피운다는것을 깊은 철학성과 생활의 론리를 타고 엮어나간 훌륭한 공연이였다.

누구라 없이 공연을 보면 1960년대에 강산을 진감한 천리마 《산울림》을 오늘날 강성국가의 《산울림》으로 메아리치게 하자는 조국의 호소를 들을수 있는것이였다.

많은 장면이 인상에 남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산골마을에 살지만 리상이 높은 청년 석철과 작은 울타리에 살면서 시야가 좁고 리상이 낮은 송재의 마음과 이야기가 무대의 이쪽저쪽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장면이 그러했다.

석철: 《도시부럽지 않게 사회주의문화주택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구.》

송재: 《낡은 집의 흙이영을 벗기고 돌기와를 씌워주기요.》

석철: 《자동차길을 크게 내자구.》

송재: 《달구지길에 석비레를 번듯하게 깝시다.》

석철: 《아이들에게 현대적인 탁아소, 유치원을 지어주자구.》

송재: 《대장간옆에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팡튀기집>을 하나 지어줍시다.》

이 광경은 관객들이 배를 그러안고 웃음을 터뜨리는 속에서도 혁신과 보수, 전진과 답보, 적극성과 소극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수 있게 하여준다.

박장대소하며 관람에 열중하던 나는 어느 순간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석철에게 마음을 두면서도 매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금단에게 정이 가면서 그처럼 순수하고도 진실감나게 역을 수행하는 현실속의 금단이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해짐을 느꼈다.

나는 만나고싶었다.

공연출연이 긴장한것으로 하여 나는 며칠후에야 그와의 만남을 이룰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안내되였다.

그가 사는 고층살림집은 내가 머물고있던 고려호텔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주변아빠트들에 비해볼 때 현대감이 물씬 안겨오는것으로 보아 갓 건설된 건물이라는것을 대뜸 알수 있었다.

승강기를 타고 3층에 올라서니 반쯤 열린 집문앞에서 낯익은 녀성이 미소를 머금고 나에게 인사를 보냈다.

희고 갸름한 얼굴, 잘 빚은 인형과도 같이 쏙 빠진 목,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앞가슴을 내리덮은 윤기나는 검은머리채, 녀성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남성이라면 얼마든지 반해버릴만한 날씬한 몸매…

그가 바로 내가 만나고싶던 경희극의 주인공 금단이였다. 아름다운 녀인은 뭇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끌어당기기마련이다.

그의 실명은 최금향, 청신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은 화면에서보다 더 아름다웠고 역시 인기배우가 될만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하지만 결혼전이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는 출가한 몸.

자기를 응시하는 녀자인 나의 눈길에조차 부끄러운듯 긴

속눈섭살을 살풋이 내리덮는 그를 보며 나는 수집음을 잘 타는 그가 어떻게 큰 연극무대에서는 수많은 관객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연기를 할수 있을가 하고 생각했다.

명배우대렬에 들어서면 순간에 얼굴표정과 몸가짐새, 수표하는 방법부터 달라지는 서방세계의 배우들과는 차이나게 소박한 그였다.

집구경을 좀 해도 되겠는가 하는 나의 요청에 그는 어서 그러라는듯 내 팔을 잡아끌었다.

나무랄데 없이 정갈하게 꾸며진 방들은 나의 마음에도 들었다.

그런데 놀라게 하는것은 공동살림방의 벽면에 모셔진 **김정일**장군님과 그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였다.

그는 한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는 나에게 새집들이하던 날 장군님께서 여기 아빠트를 찾아오시였는데 신혼부부인 자기들의 집에도 들리시여 축복해주셨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장군님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계시며 언제나 인민생활에 극진한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신다고, 현지지도길에 찾으시여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감동섞인 어조로 말했다.

금향자신에 대하여 들려준 이야기 역시 감동적이였다.

아버지도 로동자, 어머니도 로동자. 그는 자기의 가정은 조국땅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고 만날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고 소개한다.

남다른것이 있다면 그가 타고난것이였는데 그것은 톡 티는 예쁜 얼굴과 잘 뽑아진 몸매였다.

군계일학이라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무렵 그는 여러 소조 선생들의 욕심을 내게 했다.

수예소조, 음악소조, 무용소조, 예술체조소조 지어 축구소조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그녀의 천성적소질은 그로 하여금 화술소조를 선호하게



공훈배우 최금향

했다.

그는 TV화면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몹시도 부러워했고 때론 그들의 대사를 곧잘 흉내내기도 했다.

물론 국어시간은 그에게 몹시도 기다려지는 시간이였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것이 그의 천성적소질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고 오직 철없는 딸애의 장난기정도로밖에 달리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담임선생이 금향이를 교원실로 불렀다.

그가 들어섰을 때 담임선생은 처음 보는 낯선 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는데 인차 띄여보고는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것이였다.

담임선생은 깍듯이 인사를 하는 어린 금향이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 낯선 녀인앞에 세워주며 《바로 이애가 금향학생입니다. 금향이,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오신 선생님이예요.》라고 소개했다.

소년궁전에서 왔다는 선생은 그를 몸가까이 불러 이모저모로 여겨보더니 보석이라도 찾은듯 기쁨을 금치 못하며 품에 꼭 껴안기도 하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손으로 그의 오동통한 볼을 다독여주는것이였다.

《담임선생님에게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렇게 시읊기랑 잘한다지. 금향이 어디 차렷하고 서봐. 그래그래, 얼굴도 참

곱구나. 선생님이랑 소년궁전 화술소조에 가서 공부해볼가?》

그렇게 금향이는 그의 재능의 싹을 발견하고 눈여겨보던 소학교 담임선생님과 화술에 천성적인 싹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 다니던 화술소조교원의 손에 이끌려 평양학생소년궁전 화술소조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금향이의 재능의 싹은 하루가 다르게 커만 갔다.

먼저 소조에 들어온 오빠, 언니들은 물론 소조교원도 놀랄만큼 금향이는 말없이 이악하게 화술훈련에 열성을 부렸고 기량은 눈에 띄게 높아만 갔다.

얼마 안 있어 그는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축하문을 랑독하는 조선소년단축하단의 한 성원이 되여 전국적인 대회에 여러번 출연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금향이는 날마다 즐거웠고 그러는 그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기쁨 또한 비길데 없이 컸다.

뛰여난 재능을 겸비한 금향이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지망대로 평양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하여 자기의 꿈을 성취할수 있는 대로를 닦았다.

그는 평소에 말이 적고 대중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업에 열중하며 전공과목에서 뚜렷한 실력을 발휘하자니 누구랑 잡담할 시간조차 아까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은 그는 대학졸업작품인 TV예술영화 《나의 집》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것으로 관중과 첫인사를 나누었다.

상영후 신인배우에 대한 관중의 평가는 대단하였으며 전문가들도 그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였다.

참신하고 생기발랄하며 진정이 느껴지는 유치원 교양원역이였던것이다.

언제나 조용하고 내성적이였던 그였지만 화면앞에서는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구사할줄 아는 역시 타고난 배우였다.

이렇게 자질을 인정받은 그는 곧바로 국립연극단의 배우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짚게 되였다.

조국의 국립연극단은 해방직후인 1946년에 발족되여서부터 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사실주의적인 주제의 수많은 연극들을 무대에 올렸다고 한다.

그런 전통을 가진 연극단에 들어온 신인배우 금향에게 있어서 선배들은 한없는 공경의 대상이였고 본보기였다.

그는 선배들의 꾸준한 지도와 대학기간에 쌓은 지식과 창조경험에 기초하여 연극배우로서의 자질과 기량을 높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중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연극단에서는 경희극 《산울림》이 재창조되게 되였는데 뜻밖에도

작품의 녀주인공 금단역을 맡아할데 대한 과업이 그에게 맡겨지게 되였다.

그는 나에게 이때를 가리켜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었던 일》이였다고 고백한다.

집단의 기대와 믿음을 그대로 받아안기에는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너무나 부족한 자기였다는것이다.

사실 그보다 훌륭한 선배들도 많았기때문에 감히 그들을 제쳐놓고 자기에게 주역을 맡길줄은 꿈도 못 꿨다고 한다.

하지만 집단은 신인배우인 그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믿고 내세워주었으며 그의 기량을 더욱 높여 선배들 못잖은 배우로 키우기 위한 사심없는 방조와 엄격한 요구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나이도 경험도 어린 자기를 그렇듯 내세워주는 집단의 기대와 믿음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았다.

그는 낮과 밤을 잊고 창조전투를 벌렸다.

피타는 노력속에 마침내 경희극이 완성된 어느날 연극집단은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경희극 《산울림》을 공연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날 공연을 관람하신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걸작이라고 하시면서 작품에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하시였고 창조집단에 최상의 평가와 감사도 주시였다.

그날 금향은 그이로부터 연기를 아주 잘한다는 평가의 말씀도 받아안았다. 그는 이것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한동안 흐느껴울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시작. 그에게 더 큰 행복의 절정이 차례지게 될줄이야…

어느날 예술인들이 사는 새 집을 보아주시려 현지에 나오신 장군님께서 금향의 가정도 방문하시였던것이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장군님께서 우리 집까지 찾아주실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장군님께선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우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금향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감회의 빛이 력력했다.

장군님께서는 이들 신혼부부의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는 고운 눈가에 미소를 짓고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장군님으로부터 연기를 잘한다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받은 날 제일먼저 떠오른건 나의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주신 선생님들과 소년궁전의 소조실이였습니다.

또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날 눈앞에 먼저 떠오른건

나를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동지들의 모습이였습니다.

아무런 차별없이 아이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 제도,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내세워주는 동지들, 바로 그들이 있어서 전 우리 장군님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받아안은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나의 성과를 자기의 성과로 여기며 함께 기뻐하고 자꾸자꾸 내세워주는 우리 집단, 그런 동지들속에 살기에 평범하던 내가 오늘은 온 나라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될수 있은거예요.

들어보셨나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우린 이런 륜리속에 산답니다. 그속에 사니까 금향이라는 새싹도 꽃피고 열매맺게 된거예요.》

황금빛해살이 창을 메우며 방안에 들어앉았다.

온 방안이 눈부셨고 그 빛을 받는 금향은 천사같았다.

순간 환영이 일었는데 나는 그녀의 얼굴뒤로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하던 녀배우의 얼굴이였다.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 말하던가.

나에게는 두 녀배우의 서로 다른 운명에서 그들이 몸담은 사회의 면모가 그대로 비껴왔다.

녀교원과 소녀

여름도 끝나가고있던 2009년 8월말 어느날,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제산소학교의 한 교실창가에 못박힌듯 서서 학교마당을 내다보는 녀교원이 있었다.

그가 바로 학령아동조사를 위해 제산마을에 나갔던 함옥숙교원이였다.(공화국에서는 학령나이의 아이들을 다 찾아내여 교육대책을 세우는것이 제도화되여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있는 학생들이 그의 시야에 안겨왔다.

웃고 떠들며 마을로 향하는 아이들을 보는 그녀의 눈앞에서 한 소녀의 모습이 집요하게 떠날줄 모른다.

몇살인가고 묻자 일곱손가락을 펴보이던 소녀, 학교에 가고싶으냐고 물었을 때에는 오히려 《나는 학교에 못가나요?》 하고 되묻던 박우인소녀.

《저애도 학교에 갈 나이인데 걷지 못해서 못 갑니다.》

같은 동네의 한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전에 여운져 울린다.

뇌성마비로 애기때부터 걷지 못하고 말도 더듬는 불구가 되였다면서 혼자서 위생실출입도 못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아이들 축에 끼우지 못하는 아이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더우기 이런 몸으로 이애가 후날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는가며 부모들조차 학교에 보내는것을 단념하고있는 아이였다.

《우인이는 학교에 가고싶어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갈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교문을 활짝 열어놓고있잖나요.》

우인이의 부모들은 집을 찾아와 이처럼 열렬히 토로하는 녀선생을 침묵속에 바래운다.

집으로 돌아오는 녀교원의 발걸음은 돌덩이를 단듯 몹시도 무겁다.

불쑥 떠올랐던 생각.

(내가 저녁마다 우인이네 집을 찾아다니면서 배워주면 어떨가?)

하지만 이내 머리를 흔드는 그녀.

(아니, 우인이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는 영영 자기 집 뜨락너머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 되고만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장래를 놓고 단념한다고 하여 교원인

나까지 외면할수 없다.)

녀교원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우인이네 집을 찾는다. 너무 극성스러운 설복에 마침내 반승낙을 하고야마는 우인이네 부모들.

그랬건만 개학날에도 우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인이 부모들이 아이를 내놓을게 뭡니까. 부모들도 그애의 장래를 두고 물러섰는데 선생님이 무슨 용빼는 수가 있어서 맡으려고 합니까. 고생을 사서하지 마십시오. …》

《부모들은 물러설수 있지만 우리 교원들이야 물러설수 없지요.》

교육자의 량심은 그로 하여금 용기를 내여 우인이네 집을 다시 찾아가게 했다.

《우인이 아버지, 학교에 가지 못하면 우인이는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이다음 다 커서도 조국의 고마움, 귀중함을 모를것이고 육체적불구자일뿐아니라 정신적불구자로 될겁니다. 그렇게 할수는 없어요.》

《집에서도 글을 배워주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울리는 녀교원의 절절한 음성.

《물론 글이야 익힐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학창시절은 모를겁니다. 학창시절은 결코 지식만을 주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학창시절을 통해

집단의 사랑과 힘을 알게 되고 우정과 도덕을 배우게 된답니다. 학창시절을 거치지 않으면 인생에 공백이 생기게 될겁니다.》

마침내 우인이네 부모들의 마음은 움직이였다. 다음날 아버지는 우인이를 자전거에 태워 학교에 데리고 왔다.

온 학급 아이들이 열렬한 박수로 우인이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함옥숙은 손도 잘 쓰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소녀를 맡아안았다. 교육자의 량심이 그로 하여금 쉽지 않은 길인줄 알면서도 선뜻 택하게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우인이는 학교생활을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했다.

외부세계와 접촉하지 못했던 아이라 쩍하면 앓고 남보다 인차 피곤해하였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거나 궂은날에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 결석이 잦았다. 이럴 때면 함옥숙선생은 우인이를 업고 출근길에 올랐고 늘 가방에는 약을 넣고 다니면서 우인이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다.

위생실에도 업고 가서 옷을 거들어주어야 했다. 아이곁에서 잠시도 자리를 뜰수 없었다.

안타까운것은 손가락이 마비되여 제대로 받아쓰기를 잘하지 못하는것이였다. 글인지 그림인지 분간할수 없는 글씨로 몇자 따라쓰다가는 인차 맥을 놓고 연필을 깨물며 빤히 올려다

볼뿐.

우인이의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뿐아니라 그의 손가락마비를 풀어주기 위해서도 받아쓰기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고 생각한 함옥숙은 과외시간이면 우인이를 따로 앉혀놓고 받아쓰기훈련을 꾸준하게 시켰다.

그리고 짬만 생기면 아이의 손가락을 주물러주었다.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점차 동무들과도 어울리고 집에서는 웃음이 없던 아이가 학교길에 오를 때면 그녀의 잔등에 업혀 깔깔거리며 구구표도 암송하고 노래도 불렀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가 구역에서 진행되는 교수경연에 참가하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이였다.

정문에 들어서니 우인이 아버지가 기다리고있었다. 아버지의 얼굴표정이 어두운것을 보는 순간 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생각되며 가슴이 덜컥 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우인이가 몰라보게 발전했고 또 성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데리고 배워주겠으니 아이때문에 마음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교실에 들어선 그가 우인이의 빈자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리를 차며 일어난다.

《선생님, 어제 효성동무가 우인동무를 밀쳤습니다. 그래서 우인동무가 울었습니다.》

깜짝 놀라워하는 함옥숙. 그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아프다. 넘어져 눈물을 흘리는 우인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었다. 잠시 자신을 다잡고 흥분으로 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효성이에게 물었다.

《효성이, 왜 우인동무를 밀쳤나요?》

《그 동무가 별나게 걸어서 똑바로 걸으라고 다쳤을뿐입니다.》

《효성동무는 나쁩니다.》

아이들의 웨침소리가 교실을 메운다.

그는 효성이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꾸짖었다.

《왜, 왜 그랬어요. 그 착한 우인이를 밀치다니…》

눈물범벅이 된 녀교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이들도 흐느꼈다.

이윽하여 마음을 진정시킨 그는 효성이의 옷차림을 바로잡아주면서 말한다.

《효성학생, 우리 나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불구자가 아니라 동무의 아픔을 보고 놀려대는 사람이 불구자예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고 차근차근 타일렀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인동무를 놀려주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우인동무를 데려옵시다. 우리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소리였다.

이 일은 학급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인이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과정에 학급아이들의 가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하는 살뜰한 우정이 자라났다. 생각하는품이라든가 행동거지가 몰라보게 어른스러워들 졌다. 학급은 화목하고 단합되여갔다.

어느날 자연관찰시간이였다.

옥숙은 우인이를 잔등에 업고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앞에 있는 제산으로 올라갔다. 평양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마루에서 아이들은 환호를 올리며 좋아라 어쩔줄 몰라했다.

《학생동무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평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산과 들입니까.》

그는 이어 산밑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무들, 산에 나무가 많아야 조국이 더욱 아름다와지고 나라의 재부도 늘어난답니다. 산에 나무 한그루라도 더 많이 심고 가꾸는 사람이 되여야 해요. 나무를 구하려고 산불을 끄고

희생된 소년단영웅이 누구입니까?》

《리창도영웅입니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리창도영웅처럼 살것을 다짐하는듯 어느덧 천진란만한 얼굴들에 너도나도 숭엄한 표정이 어린다. 우인이도 생각깊은 눈길로 고향산천을 둘러본다.

화창한 4월의 봄날, 학교에서는 만경대방문을 조직하였다. 우인이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

우인이네 부모들은 선생님이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는가고 그를 막아나섰다. 30명이나 되는 학급학생들만 돌보자고 해



학생들속에 있는 함옥숙교원

도 힘이 들겠는데 어떻게 우인이를 업고 다니겠는가 하는 걱정 때문이였다.

하지만 그는 우인이를 잔등에 업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인이는 꼭 만경대에 가보아야 합니다.》

교과서와 TV로만 보아오던 만경대고향집을 자기 눈으로 보고 **김일성**주석님의 어린시절자욱이 새겨진 그 성스러운 땅을 밟아보며 우인이는 흥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꾸 물었다. 저기가 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군사놀이하신 군함바위인가, 썰매바위는 어디에 있는가. …

온몸이 땀에 젖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희열에 넘쳐 종달새마냥 끝없이 재잘재잘하는 우인이의 모습을 보는 그의 마음은 그지없이 기쁘기만 했다.

그가 우인이를 업고 만경봉에 오르려고 할 때 우인이를 꼭 만경봉까지 데리고 가야 하겠는가 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는 땀으로 화락하니 젖은 잔등에 우인이를 올려놓고 만경봉으로 올라갔다.

체소한 몸에 우인이를 업고 만경봉으로 오르는 그를 바라보며 교원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날 학급에서는 소년단조직에서 진행하는 문답식학습경연을 앞두고 줄별로 검열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우인이가 문득 《선생님,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말

했다.

겨우 들릴가말가하게 작은 소리로 한 말이였지만 그의 가슴을 쿵 울려주었다.

글도 변변히 읽지 못하던 우인이가 자기도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된 그것이 너무 반가와 눈물이 솟구쳤다.

《창문쪽에 앉은 동무들은 우인동무에게 검열마쳐야 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시울이 왜 젖어드는지, 목소리가 왜 떨리는지 알지 못한채 그저 좋아라 떠들면서 우인이주위에 모여들었다. 아이들속에 휩싸여 활짝 웃는 우인이의 모습, 그것은 먼 후날에도 잊을수 없는 즐거운 학창시절을 각인시켜줄 한폭의 그림이였다.

우인이의 아버지는 말했다.

《담임선생님의 잔등에 업혀 좋아라 웃는 아이를 볼 때면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리워 고맙다는 말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땀에 젖은 잔등이 우인이에게는 교실이였고 운동장이였습니다. 그 잔등에서 우인이가 새 모습으로 태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옥숙에게 업혀 집으로 가던 우인이가 갑자기 잔등에 머리를 박았다. 앞에서 학생대렬이 오고있었던것이다.

부끄러워하는 우인이를 보니 며칠전에 그가 하던 말이 생각

났다.

《선생님, 저는 중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우인이, 무슨 소릴 하는거니.》

《소학교는 선생님한테 업혀 다녔지만 중학교에 가서야 어떻게…》

그날밤 잠자리에 누웠으나 함옥숙의 눈앞에는 낯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던 우인이의 얼굴이 자꾸만 얼른거린다.

그녀는 생각했다. 우인이에게 밝은 웃음을 주자는것이 결국엔 어린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것이 아닌가, 내가 왜 지금껏 우인이의 다리를 고쳐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가, 우인이의 오늘만 아닌 래일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담임교원인 내가…

이때부터 함옥숙의 발길은 학교도서실과 구역도서실에 있는 여러해전의 신문자료들을 보는것으로, 보건부문에서 우인이와 같은 대상들을 치료하여 완치시킨 례가 없는가를 찾아보는데로 돌려지게 된다.

한편 고려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인이의 회복치료에 필요한 약재와 치료대책을 알아보고 그를 완쾌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자기 손으로 돼지를 길러 우인이의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재도 마련하기도 하면서…

어느덧 그의 몸상태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평양제산소학교에 문득 해당 부문에서 일군이 찾아왔다.

3년세월 앉은뱅이소녀를 업고 다니면서 공부시킨 함옥숙의 소행에 감동되여 쓴 학부형의 편지를 보고 찾아온 그 일군앞에서 한 그녀의 말이 감동적이였다.

《응당 할 일을 하였을뿐이예요. 우인이가 활개치며 이 고마운 사랑의 대지를 걷게 될 때, 제발로 씩씩하게 걸어서 중학교에도 가고 사회에도 진출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이지 저의 노력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이틀후, 구역의 한 일군이 찾아와 빨리 입원준비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자면서 우인이와 그의 부모들, 담임교원도 함께 차에 오르라고 하였다.

영문을 모르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도착한 이들을 학교에 찾아왔던 그 일군과 병원의 일군들, 의사들이 맞아주었다.

우인이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과 진찰을 하고나서 의사들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병을 고친 례는 지금까지 없다—

실망으로 어두워지는 녀교원의 얼굴.

이때 박우인의 아버지가 지금 이만큼 된것도 사실 담임선생님의 지극한 정성때문이라고, 더 마음쓰지 말라고 옥숙을 위로한다.

해당 일군은 의사들에게 말하였다.

《이 교원은 마비가 와서 말도 잘 못하고 서지도 못하던 학생을 3년세월 업고 다니면서 이만큼 걸을수 있게 만들었소. 비전문가가 말이요.

정성이면 돌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지 않소. 우인이가 자기 발로 걸어서 중학교에 가게 하는것이 이 선생의 소원인데 우리 함께 풀어줄수 없겠소?》

한 소녀의 오늘만이 아닌 먼 앞날까지도 책임지려는 교원의 마음은 그들을 깊이 감심시켰다.

《선생님, 해봅시다. 우인이를 우리가 맡겠습니다.》

이름없는 소학교 교원의 가슴에 간직된 사랑의 불길이 일군들, 의사들의 가슴에로 번져진것이다.

의사집단이 달라붙어 협의에 협의를 거듭하던 끝에 본격적인 치료대책이 취해졌다. 우인이는 얼마후 수술을 받았다. 결과가 매우 좋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기억난다.

어느날 면회온 담임선생앞에서 우인이는 신문에 실린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연설을 자자구구 읽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는 말씀도

있었다.

들어보지 못한 금언이다.

그 어디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렇듯 높이 떠올린적 있었던가. **김정은**원수님의 연설문을 읽어내리며 천진란만한 얼굴에 웃음을 담은 우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함옥숙은 눈물을 삼켰다.

그러는 녀교원과 소녀를 보며 사람들은 생각한다.

담임선생님이 어이하여 비오고 눈오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3년세월 자기를 등에 업고 다니고 일군들이, 온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이 어이하여 자기를 위해 온갖 정성을 바치는가를 어린 우인이는 아직 다 모르리라.

하지만 소녀는 머지않아 알게 되리라. 고마운 제도가 있기에 자기의 오늘만이 아닌 먼 래일도 있다는것을.

웃음을 함뿍 담고 자기를 바라보는 우인이를 옥숙은 한품에 꼭 안았다.

《선생님, 나도 크면 꼭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선생님의 품에 볼을 비비며 이렇게 우인이는 말했다.

몇달후 어느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우인이네 집으로 향하던 함옥숙은 아침공기를 가르며 울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목소리가 울리는쪽을 보니 산중턱에서 누군가 자기를 향해

손을 젓고있지 않는가.

깜짝 놀라는 함옥숙. 우인이였던것이다. 꽃속에 묻혀 웃고있는 우인이였다.

녀교원은 몇번이나 눈을 비비고 또 비비였다. 그러며 소리친다.

《우인아, 네 발로 산에 올랐니?》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 절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 꽃을 정말 네 손으로 꺾었니?》

《예, 선생님. 선생님께 드리려고 꽃다발을 엮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산으로 치달아올랐다. 그리고 억세게 대지를 짚고 선 우인이를 와락 그러안는다.

《우인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네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우인이는 하나, 둘 힘있게 계단을 밟으며 올랐다.

그는 자기 손으로 엮은 꽃다발을 삼가 동상앞에 드리였다.

그리고 씩씩하게 소년단경례를 올리였다.

그를 바라보는 함옥숙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있다.

그것은 참된 인간, 참된 교육자만이 지을수 있는 행복의 미소였다.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나는 영화속에나 존재할것만 같은 그런 천사가 있다는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였다.

하지만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격정에 넘쳐 토론하는 그의 모습을 TV로 보았을 때 그 신기함과 반가움이란…

너무나 소박한 그의 모습에 머리가 절로 숙어졌다.

다른 나라들에도 불구자나 고아들을 위해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부모들마저 포기했던 아이를 직접 맡아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면서 끝끝내 대지를 밟게 한 함옥숙의 소행과는 감히 대비할수도 없는것이였다.

인간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자의 량심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기적적인 소행을 낳게 한것이다.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으로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천짜는 영웅 문강순

내가 만난 북녘의 평범한 녀성들가운데는 직포공처녀도 있다. 이름은 문강순, 그는 평양방직공장(오늘의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처녀이다.

그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크게 인상변화가 없는것이였다. 화장기없고 훤한 얼굴에서 나는 순박하고 듬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장에 소문이 자자한 혁신자임에도 자기자신에 대한 한마디 자랑도 없는 그의 모습에서 로동계급특유의 선량함과 겸손, 소박한 성품이 그대로 엿보인다.

다만 평양방직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큰 밑천이라고, 누구든지 옷을 입을 때에는 방직공들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는 **김일성**주석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일했다는 말을 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 처녀의 정신세계를 어지간히 가늠해볼수 있었다.

한참의 담소끝에 드디여 나는 무겁게 다물었던 처녀의 입에서 그녀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낼수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방직공장에 내짚은 그가 처음으로 배운것은 실매듭짓는 법이라고 하였다.

교대당 많은 천을 짜자면 우선 실잇는 시간부터 줄여야 했다는 그녀의 말.

공장에서 신입공들은 흔히 1분사이에 실을 18~20회정도 매듭짓고있었지만 그녀는 한 직장의 이름난 직포공언니처럼 1분사이에 30회이상 매듭짓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고 한다.

길을 걸을 때에도, 밥먹을 때에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름난 직포공언니의 날랜 손놀림을 새겨보면서 손에서 실토리를 놓을줄 몰랐다는 그녀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수 있을가.

어느날 그가 맡은 한 기대에서 실이 끊어졌는데 그녀는 제때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기대를 순회하는 속도가 떴던탓. 그가 멈춰선 기대로 뛰여갔을 때는 이미 직포공언니가 실을 잇고난 뒤였다고 한다.

《직포공이 뛰는만큼 기대도 돈단다. 직기와 숨결을 같이할 때에만 진짜 직포공이라고 할수 있어.》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교본처럼 깊이 새겨졌다. 이때부터 그는 기대들을 순회하는 속도를 높이는데 달라붙게 되였다.

교대후에도 기대사이를 누비며 앞선 순회방법을 익히는 자신의 곁에는 언제나 오랜 방직공들이 있었다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침내 그는 일을 시작한지 두달만에 기준대수의 2배가 되는 직기를 다루게 되였다고 한다.

그는 직기수리도 제힘으로 해낼것을 결심하게 되였다. 수리공이 오는 동안 기대를 세워두는 시간이 아까왔던것이다.

1분간에 5㎝의 천을 짠다고 볼 때 두대의 직기가 5분씩만 멎어도 50㎝의 천을 잃어버리는것과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의 임무는 천을 짜는거야. 더 많은 천을 짜내자면 만능 직포공이 되여야 해.)

얼마후 그의 기대곁에는 공구함이 생겨났다. 그는 직기의 동작원리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그리고 수리공들을 찾아다니며 고장을 퇴치하는 방법을 직심스레 배웠다.

직기는 어느덧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였다. 그는 기대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인가를 척척 알아맞추게 되였다.

드디여 그는 《동무는 오늘계획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언제나 《초과완수》로 대답하는 혁신자, 다기대공으로 자라게 되였다.

이듬해에 그는 또다시 년간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 그 다음해에도 년간계획을 8개월이나 앞당겨 끝내였다.

21살 꽃나이처녀의 가슴에서 첫 공로메달이 빛을 뿌리였다.

전세대직포공들의 뒤를 이어가는 새 세대 직포공의 고결한 넋이 아름답게 비껴있는듯싶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그가 아니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천으로 더 멋진 옷을 해입을것을 바란다,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이러한 생활상요구를 다 충족시켜줄수 있게 더 좋고 더 많은 천을 짤것을 바라는데 어찌 뛰고 또 뛰지 않을수 있으랴, 한치의 천이라도 더 짜자.—

이것이 문강순의 직업관이였고 정신세계였다.



혁신자 문강순(가운데)

그는 옆을 보지 않았고 오로지 직선주로만 달렸다. 이런 그였기에 남달리 기능이 빨리 올랐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기대를 맡아 더 많은 천을 짰다.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기준대수의 3배나 되는 직기를 돌린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강순은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일하는 동무들이 입술이 부르튼 그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면서 힘들지 않는가고 물어볼 때마다 강순은 머리를 저었다.

《더 많은 기대를 돌리지 못하는게 난 안타까워.》

그러던 어느날 인민대학습당의 한 연구사가 현장을 찾아왔다.

그는 매일같이 학습당에 찾아오는 공장의 한 직포공처녀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가 연구사로 수십년간 일해오지만 공장일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직포공을 처음 본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자기가 공장으로 먼저 왔다며 방직기술의 세계적추세와 관련한 CD자료들과 많은 기술도서들을 내놓는것이였다.

연구사가 말한 그 직포공은 다름아닌 문강순이였다.

더 많은 기대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의 불같은 마음에 직장안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그녀와 지혜와 힘을 합쳐 직기의 생산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직기마다에는 고장을 훨씬 줄이고 수명을 몇배로 늘일수 있는 새로운 씨실공급장치가 도입되였으며 문강순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대를 말아볼수 있게 되였다.

남들이 순회길을 한바퀴 돌 때 그는 두바퀴, 세바퀴를 돌아야 했다. 그러느라니 식사시간을 잊을 때가 드문하였다.

하루는 점심시간도 잊고 기대를 돌리는 그를 찾아 직장일군들과 합숙식당 취사원들이 현장에 나타났다.

의아해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식당책임자가 말하였다.

《강순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너의 10년 생일이야.》

공장에서 10년이상 근무한 합숙생들에게는 입직한 날을 생일로 정하고 그날이 오면 좋은 옷도 해주고 생일상도 꼭 차려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주석님의 은정을 전하는 방직공들의 10년 생일상, 직포공으로서의 10년 생일상을 받아안으며 문강순은 더 많은 기대를 말아 더 많은 천을 짜리라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고 한다.

그후 그는 20대가 넘는 직기를 말았다.

어느날 직기앞에서 눈굽을 훔치는 문강순을 본 직장장이 급히 달려왔다.

《힘들어서 그래? 아니면 어디가 아파?》

문강순은 방금 짠 천을 가리켰다.

《천에 그만 실봉우리가 한개 졌습니다. 직포공은 천을 짜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깨끗한 마음을 짠다고 했는데 전…》

모든 제품을 1등품으로!

그는 이렇게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였고 자기가 짜는 천 한m, 한m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였으며 매일 기준정량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천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22배라…)

담담히 앉아 그녀의 말에 열중하던 나는 이 말에 깜짝 놀랐다.

기준정량의 22배나 되는 천을 짜려면 도대체 그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봐야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속구구를 하는데 문득 곁에 앉아있던 안내선생이 슬쩍 우리 대화에 끼우며 묻는것이였다.

《선생은 하루에 최고 몇리나 걸어봤습니까?》

나는 잠시 머리를 굴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가 언제더라 내가 최고로 많이 걸어본 때가…

내가 중학교에 다닐적에, 그때는 시골에 뻐스가 잘 다니지도 않고 곳곳에 뻐스가 서지도 않을 때였다. 어느날 삼촌네가 사는 시골에 놀러 갔는데 밝을 때 정류소에 내려서 마중나온 삼촌을 따라 오불고불 뽀얗게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 삼촌집에 당도하니 땅거미가 질무렵이 되였다. 삼촌이 딱총을 놓아준 발바닥을 들여다보며 집에 돌아갈 일을 걱정하던 그때가 생각났다. 일생에 가장 힘들게, 가장 오래 걸어본적은 아마 그때뿐

이라고 생각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거리가 20리는 실히 잘 될것이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내선생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20리라. 영희선생, 그런데 이 동무는 하루에 몇리를 걷는줄 압니까? 150리를 걷습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 달린다는게 더 정확합니다. 자기가 맡아봐야 할 기대의 5배이상을 돌리니까요.》

매일 150리?!

순간에 눈이 휘둥그래진 나는 실례되는줄도 잊고 그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흰 고무를 두른 편리화를 받쳐신은 그의 두다리가 그 순간 마치 전설에 나오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다리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놀라운 처녀인가!

나는 강순에게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러던 2009년 7월 어느날 뜻밖에도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들의 일터를 찾아주시였다고 한다.

꿈인가, 생시인가? … 강순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 자기의 팔을 꼬집어보며 소리내여 흐느껴울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있는지 몰랐다.

장군님께서 오랜 기간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방직공들과

함께 처녀직포공인 자기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기때문이다.

꿈속에서도 뵙고싶었던 그이께서 정말로 자기 손을 따뜻이 잡아주실 때 그의 가슴은 금시 터질것만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20여대의 직기를 맡아보면서 2년분 생산계획을 6개월사이에 수행한 그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고 한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그를 비롯한 방직공들을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시며 오늘은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인데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감격의 그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했다.

《나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였다. 그러나 나는 오늘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일을 잘했다고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셨다. 나는 난생처음으로 아버지의 정다운 목소리를 들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인자하고 위대하신 아버지가!》

무뚝뚝해보이던 처녀직포공 문강순의 얼굴이 대번에 활기를 띠였다.

그런 감정은 도저히 연출할수 없을것이다.

밝은 그의 모습에서 나는 친아버지앞에 응석부리는 참으로

천진한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대화 마지막에 인상깊은 말을 남겼다.

《선생님, 곱고 질좋은 천도 결국은 수만개의 날실과 씨실로 이루어진겁니다. 저는 우리 직포공들이 자기를 하나의 씨실이고 날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힘껏 일하면 곱고 질좋은 천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우리 인민들이 더 잘 입고 잘 사는 강성국가가 기어이 일떠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던 직포공처녀 문강순은 후날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이 되였다.

그렇게 소박한 처녀가 영웅이 되다니?

나는 그것을 안내원에게서 전해듣게 되였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그에게 나라에선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었답니다. 그가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참, 지난해에는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에 새집들이를 했답니다.》

평양의 중심구역에 위치한 창전거리로 말한다면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인민들에게 제일 문명하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생전에 착공의 첫 삽을 박던 때부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주택지구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은**원수님께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창전거리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고 한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불과 1년동안에 옛 모습을 털어버리고 초고층의 훌륭한 살림집들이 솟아난 그 거리를 두고 세계가 2012년 조선의 기적이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것은 그렇게 황홀한 거리에, 그렇듯 멋지게 설계된 덩지큰 집들에 고위급간부나 그 어떤 재력가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 산다는것이다.

《그런데 경사가 겹쳤지요.》

안내선생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나에게 마치 자기 녀동생 자랑이라도 하듯이 흥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들을 돌아보신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집도 찾아주셨지요. 원수님께서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가도 물어주시고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도 웃으시며 물어주시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아들도 낳고 방직공영웅인 어머니를 닮은 딸도 낳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셨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 신혼부부에게 축배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주시였습니다.

떠나실 때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나서는 문강순영웅과 그의 남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살라고, 창전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 태여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구요.》

오직 일밖에 모르던 처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던 처녀가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이 되고 정말 복이란 복은 다 받아안았구나. …

결국 나는 조국의 한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 나라의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실지 목격한셈이다.

그때에야 나는 알았다.

조국에서는 나라와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그녀처럼 말없이 진심을 바쳐 일을 한 사람은 누구나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웅이 될수 있다는것을.

정녕 고금동서력사의 갈피마다에 기라성같이 기록되여있는 영웅담들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가.

비범한 기질을 가진 걸출한 사람만을 영웅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아니 가깝게는 나에게 문강순에 대한 소식은 큰 인식교정을 주었다.

이러한 독특한 사회의 면모를 보며 나는 곰곰히 생각해본다. 이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운명이고 생명이고 생활인 공화국사회를 떠받드는 초석이 어떠한것인가를.

그리고는 스스로 대답을 찾아본다. 이러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고모여 사회주의라는 자기의

큰집을 받들어나가는것이 아닐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그럼 영웅이 된 후에 그녀는 무슨 일을 할가.

나는 물었다.

《그가 지금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안내원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대답했다.

《직포공이지요. 아,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니다.》

《신기한 녀성》들을 알다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나는 여러번 놀라운 일들에 부딪치군 했다. 물론 그것을 리해하는데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일행이 조국에 머물고있던 어느날.

《로동신문》에 실린 《병사의 어머니》(2013년 4월 21일부)라는 제목의 글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38살 나이의 한 녀성에게 27살 난 맏아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실린 글이였다.

기니스기록집에서나 볼수 있는 일 아닐가?

신기한 일이였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가.

궁금증을 달래며 그 녀주인공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병사의 어머니인 《신기한 녀성》의 이름은 정선영.

27살 난 그의 맏아들은 군사복무중에 있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곧 그가 살고있는 곳인 평안북도 대관군 덕연리의 개울가에서부터 시작된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읍을 다녀오던 그녀는 군인들이 행군도중 자기의 마을가까이에 있는 개울가에서 땀을 들이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는 서둘러 집에 달려가 삶은 고구마며 집뜰에서 거둔 포도, 뒤산에서 따다가 구워놓았던 밤을 한보따리 싸들고 다시 문을 나섰다. 그런데 개울가에 달려가보니 군인들은 이미 떠나고 대신 그들이 쉴참에 알뜰하게 다시 놓은 징검다리가 눈에 띄였다.

바로 그 돌다리너머로 행군길을 이어가는 병사들이 보였다. 정선영은 그들을 소리쳐 부르며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다.

이렇게 길가에서 병사들과 잠시 만나게 된 그날 한 병사의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것과 집에는 그의 두 동생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뇌리에 삼삼하게 떠오르는것은 그 병사(이름은 리충성이라고 했다.)의 얼굴과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살고있을 그의 두 동생이였다.

자정이 넘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던 그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고말았다.

(그 병사의 집이 봉산군에 있다고 했지.)

대관군에서 봉산군까지는 거의 천리길. 그러나 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무래도 그곳에 다녀와야겠어요.》

안해가 왜 잠들지 못하는지 알고있는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당신이 꼭 그럴것 같더란 말이요. 생각 잘했소.》

정선영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여올랐다.

《고마와요. 우리 그 병사의 동생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살자요.》

그들에게도 두 자식이 있었다.

하지만 정선영부부는 주저하지 않았다.

남달리 살림이 풍족하여서가 아니였다.

안해는 처녀시절부터 오래동안 공장의 기대공으로 일했고 남편 또한 선반공인 평범한 로동자가정이였다.

부부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사의 동생들을 데려다 키울 결심을 스스로 내린 마음을 다 설명할수 없다.

《우리 그애들을 말아 키워 리충성군인이 동생들때문에 마음 쓰지 않게 하자요.》

《그럽시다. 원호물자를 보내는것만으로야 어떻게 병사들을 위한다고 말할수 있겠소. 그들의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게 하는것 역시 우리 의무가 아니요.》

이렇게 되여 대령강기슭의 이름없는 한 녀성은 부모잃은 병사의 두 동생을 자기 집에 데려오기 위해 먼길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병사의 동생들을 집으로 데려오기까지는 순조롭지 않았다. 봉산군을 찾은 때로부터 몇달이 지나서야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수 있었다.

그가 두번째로 길을 떠나 봉산군에 갔을 때였다.

병사의 동생들은 친척집에 가고 없었다.

정선영은 맥이 탁 풀리는것 같았다. 대관에서 봉산까지 어떻게 온 길이였던가.

봉산을 몇십리 앞둔 곳에서 그는 렬차를 갈아타려고 하다가 그만 차를 놓쳤다.

다음렬차를 타자면 하루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내내 걸음앞서 마음이 달린 그에게는 그 하루가 열흘, 스무날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걷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10리도 못 가 주저앉고말았다. 며칠전부터 쏘던 무릎이 끝내 말썽을 부렸던것이다. 그는 안깐힘을 다해 근방의 진료소로 갔다.

《침을 한대 놔주십시오.》

의사는 그의 무릎을 찬찬히 살펴보고나서 머리를 저었다.

《며칠 안정하든지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든지 해야지 침이나 몇대 맞아가지고는 안되겠소.》

그러나 그녀는 침을 맞자 다시 길을 떠났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비비기도 하고 동통이 심해질 때면 입술을 깨물기도 하면서 끝내 그날로 봉산땅에 들어서고야말았다. 그런데 병사의 동생들을 만나지 못한것이였다.

하지만 정선영은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있다고 하는 다른 고장으로 다시 걸음을 이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만나지 못하였다.

병사의 동생들이 가있는 곳을 수소문하면서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하루에도 몇십리길을 걸으며 근 한달.

마침내 그녀는 사리원에서 병사의 두 동생을 만나게 되였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낯선 녀인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병사의 동생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리충성병사의 두 동생을 그러안는 정선영녀성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맺혔다.

《얼마나 찾았다구…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어서 가자 우리 집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동생들이 기다린다.》

그는 단번에 자식부자가 되였다.

병사의 동생인 충혁, 충심이와 함께 그녀의 딸들인 수향이와 진향이 그리고 초소의 병사까지…

불시에 다섯 자식의 어머니가 되였을 때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는 충혁이의 잠자리를 항상 제일 따끈한 아래목에 펴주었고

자기 딸 진향이를 끼고 자던 품에 충심이를 안고 자군 했다. 밥을 풀 때에는 그들의 밥그릇에 한술이라도 더 올려놓았고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수향이, 진향이가 아니라 충혁이와 충심이에게 먹이였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정을 기울이였지만 충혁이, 충심이는 그를 어려워했다.

새옷을 해입혀도 미안해하고 별식을 해주어도 송구스러워했다. 그럴 때면 정선영은 못내 마음이 서운해졌다.

(내가 친어머니라면 그러지 않겠지?)

빨래를 하면서도 동자질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군 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산나물을 캐러 앞산에 올라갔다가 집에 늦게 돌아온 그는 흠칫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충혁이, 충심이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허둥지둥 다시 밖으로 나갔다.

누군가가 그들이 마을밖으로 나가는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는 머리수건이 벗겨지는것도 모르고 그리로 달리였다.

얼마후 충혁이, 충심이를 따라잡은 그는 떠듬떠듬 사연을 말하는 그들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뭐, 페를 끼쳐 그런다구? 나한테 무슨 페를 끼쳤단 말이냐?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친어머니만큼 먹이고 입히지 못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내게 맡긴 맏이에게 늘 죄지은 마음이다. 헌데

너희들까지 이러면…》

충혁이, 충심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정선영은 밥상을 차려주고 급히 문밖을 나섰다.

좀전에 본 충심이의 신발이 자꾸만 떠올랐던것이다.

그의 신발이 수향이신발과 모양이 다른것이 마음에 걸렸다. 얼마후 그는 수향이의것과 꼭같은 신발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그것을 충심이에게 신기면서 말하였다.

《이 엄마가 네 신발이 수향이신발과 좀 다른걸 미처 몰랐구나. 둘이 나이가 꼭같으니 우리 집 쌍둥이가 아니냐. 그런데 신발모양 하나라도 달라서 되겠니?》

그녀는 이런 사랑으로 병사의 두 동생을 극진히 돌보았다. 충심이의 학습을 방조하며 밤을 밝히기도 했고 충혁이가 나무공예에 취미가 있다는것을 알고 여러가지 공구를 갖춰주기도 하였다.

하루는 몸이 약한 충심이때문에 먼곳에까지 가서 보약재를 구해가지고 밤늦어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집가까이에 이르러 문득 멈추어섰다.

집뜨락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던것이다.

《밤이 퍼그나 깊었는데 어머니가 왜 안 올가?》

《오빠, 어머니를 마중가자.》

충심이와 충혁이였다.

정선영은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는 목메인 소리로 불렀다.

《얘들아!》

충심이, 충혁이가 반기며 달려왔다.

《어머니!―》

정선영은 자기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자식의 정을 한껏 느꼈다.

…

그녀가 충혁이, 충심이를 집에 데려온 때로부터 몇달후 리충성 병사가 표창휴가를 받고 덕연리로 왔다.

동생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를 본 정선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다.

가마에 쌀을 안치는 그의 어깨가 소리없이 오르내렸다.

자식들 몰래 쏟는 그 눈물은 어머니만이 흘릴수 있는 행복의



정선영(왼쪽에서 첫번째)

눈물이였다.

그날 리충성병사는 전우들이 우리 집에 보내는것이라고 하면서 종이에 싼것을 내놓았다. 그것을 펼쳐보니 액틀안에 이런 글발이 빛나고있었다.

《장군님식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외진 산골 병사의 집에 차넘치는 따뜻한 정을 두고 못내 기뻐하시며 정선영녀인이 바친 진심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시여 그를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이름으로 감사를 준다고 하시며 일심대단결의 화원,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당시대 인간들만이 보여줄수 있는 미덕이라고 그녀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정선영녀인만이 아닌 군민모두가 격정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내가 본 이야기의 줄거리였다.

《로동신문》의 글은 마감에 이렇게 전한다.

《우리 병사들의 얼굴이 어찌하여 밝은가. 우리의 조국방선이 어찌하여 그렇듯 철벽인가.

병사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대답할것이다.

정선영녀성과 같은 어머니들이, 인민들이 있기때문이라고…》

정녕 그렇다.

조국에는 그 얼마나 많은 이러한 녀성들의 미담들이 전해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는것인가.

30여명이나 되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어머니의 정을 다해 키운 로력영웅 서혜숙녀성, 170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훌륭히 키워 내세우고있는 온성군 풍서마을의 리희순녀성.

그뿐인가.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시기 이천땅에 부모잃고 헤매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며 스스로 1996년부터 10여년세월 43명의 아이를 데려다 어엿이 키워 내세운 강원도 이천군 신당축산전문협동농장 농장원인 박연화녀성에 대한 이야기.

그를 두고 조국의 신문과 방송들은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전형》이라고 소개했다.

시대의 인간전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녀성들의 미덕이 있어 북부조국사회는 더 아름답고 화목해지리라.

자기가 낳은 아이조차 키우기 힘들다고 버리거나 죽이는것이 비일비재한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최근 남쪽의 《동아일보》에 실린 글의 한토막이 떠올랐다.

《네가 한짓이라고 해라.》

이붓어머니에 의해 죽은 8살 동생의 주검을 본 정신적타격에 그로부터 이런 강요까지 받은 12살의 녀자애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는 판사앞으로 이런 청원서를 썼다고 한다.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주세요.》

명색이 어머니라는 녀성이 성성히 살아있는 이붓자식을 학대하다 못해 살인까지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남쪽에서는 자주 일어나고있다.

소풍하러 가고싶다는 어린아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여덟살밖에 나지 않은 아이에게 매운 고추를 강짜로 먹이는 고통을 주다가 후에는 여러번 발로 밟아 살해한 사건,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하여 어린것의 몸에 바늘을 찔러넣어 죽이려 한 사건… 모두 생각만 해도 소름돋는 일들이 남쪽언론매체들에 실린다.

대조되는 두 현실.

정녕 이것이 두 사회 인간들의 차이, 두 제도의 차이가 아닐가.

해외동포들이 평양에 가면 자주 투숙하게 되는 곳이 고려호텔, 양각도호텔, 해방산호텔이다. 어느 호텔이나 그러하지만 양각도호텔 봉사원들은 참으로 가족적이였다. 물론 내가 자주 머물군 하는 곳이 양각도호텔이기때문일가?

노래방 봉사원처녀들이 더 그러했다. 노래방에 들어가 앉으면 친절한 그들이 노래를 불러주군 했는데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처녀들의 노래솜씨는 손님들로부터 언제나 절찬을 받는것이였다.

몇해를 두고 친해온 리진아봉사원은 기타를 타면서 내가 좋아하는 조국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불러주군 했다.

《노래는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 음악소조에서요.》

《어느 학교를 나왔게요?》

《평양신원중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학교 음악소조가 구역적으로 실력이 센 축이였답니다.》

《아니, 그랬으면 전문예술가가 되여야지요.》

《나정도로는 안됩니다. 잘 부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

그러던 어느날 숙소방의 TV로 전국로동자들의 노래경연프로를 보게 되였다.

공연은 예선과 결승으로 나누어 진행되였는데 그 수준이 상당하였다.

처음 평안남도의 어느 공장의 젊은 녀성로동자가 나왔는데 노래를 쭉 뽑는 기교란 참, 이딸리아의 어느 유명극장에 앉은 기분이라 할가. 더 놀라운건 두번째 노래를 부를 때엔 손풍금을 메고 나와 아주 능숙하게 자체로 반주까지 하는것이였다.

다음순서로 나오는 중년의 남성로동자도 또 그 다음번의 각이한 년령의 남성, 녀성로동자들도 모두 기막힌 명창이요 장고나 가야금, 장새납을 비롯한 민족악기는 물론 기타, 손풍금, 바이올린에까지 정통하고있었다.

안내원에게 그 연유를 물었더니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대학에서 력사를 전공한 자신도 두가지 악기는 다룬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문학예술의 대중화는 이미 오래전에 제시된 국가의 정책이며 조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이상의 악기쯤은 다룬다고

하였다. 그래서 로동자들속에는 로동자가수뿐만이 아니라 로동자 창작가도 있다고 그는 자랑하듯 말했다.

그날은 1909년 3월 8일 생존권과 정치적권리를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시위와 파업을 단행한 미국의 시카고녀성들의 투쟁을 계기로 생겨난 전세계근로녀성들의 국제적명절인 3.8절이였다.

조국방문기회에 처음 맞는 국제부녀절이였다.

지금도 인상에 남아있는것은 《조국에서 맞는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하며 한아름의 아름다운 꽃다발을 안겨주던 친근한 안내선생의 모습이다.

꽃에 대한 화제가 나왔으니 말이지 그때 다양한 모양의 화려한 꽃다발들을 들고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가 체류하고있던 양각도호텔 역시 꽃을 든 사람들로 붐비였다.

퍼그나 많은 송이로 묶은 카네숀다발을 들고 누군가를 눈빠지게 기다리는 멋쟁이젊은이로부터 장미꽃이 드문히 보이는 꽃다발을 안고 금방 택시에서 내리는 풍채좋은 중년남성 또 그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아안고 즐겁게 웃는 각이한 년령에 각이한 옷차림의 녀성들에 이르기까지.

또 한가지 인상에 박힌것이 있다.

3.8절을 맞는 조국의 녀성들을 축하하여 진행한 경축공연

《녀성은 꽃이라네》가 TV로 방영되였는데 그중 방송원의 지명으로 객석에서 무대에 나온 녀가수가 흥겹게 부른 노래 《준마처녀》이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글쎄 날 보고 준마탄 처녀래요
하루일 넘쳐해도 성차 안하는
내 일솜씨 참말로 번개같다나
라—
날 보고 준마처녀래요
…

노래의 가사와 곡은 그날로 나의 머리속에 인박혔다.

그날 안내선생은 노래가 좋다는 나의 말에 저 노래는 우리 시대의 명작으로 손꼽히고있다, 선생뿐아니라 조국에 왔던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다들 좋다고 한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 일본에 있는 남조선녀가수 김련자는 노래 《준마처녀》가 참 좋다고 하면서 독창곡으로 선정하고 축전무대에서 멋들어지게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리고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했던 로씨야의 어느 이름있는 음악단 단장 알료나 쑤쏘바가

《준마처녀》를 훌륭하게 불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 노래의 작사자가 다름아닌 평범한 녀성로동자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그녀가 로동속에서 창작한것이여서 노래 《준마처녀》를 조국인민들이 무척 사랑한다고 덧붙여 이야기해준다.

녀성로동자가 로동속에서 창작한 노래라…

안내원의 말에 호기심이 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와의 만남을 제기하였다.

드디여 요청이 실현되여 나는 《준마처녀》의 작사자—로동자 시인과 마주앉게 되였다.

처음 노래를 들으며 생기발랄하고 락천적인 처녀를 떠올렸었는데 그는 처녀가 아니라 수수하고 지성미가 느껴지는 중년의 부인이였다.

신의주화장품공장 화장품직장에서 기대공으로 일한다는 그녀의 이름은 리광숙, 로동자의 가정에서 2남2녀의 맏딸로 태여났다고 한다.

직업을 알아서인지 별로 첫 대면부터 그의 피부에 관심이 갔는데 아주 좋아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피부를 갖고싶은것이 어찌 나 하나만의 욕심이랴.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질이 좋아 그렇게

피부가 좋은가고 나는 웃으며 물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 우리 재료로 만든 화장품인데 왜 살결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조국, 자기 제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담긴 그녀의 명쾌한 답은 나로 하여금 얼마간 할 말을 잃게 했다.

하긴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된다는 《봄향기》화장품에 대하여 나 역시 조금의 리해를 갖고있었다.

언제인가 평양비행장에서 한 젊은 녀인과 우연히 알게 되였는데 그의 피부가 기막히게 아름다웠다. 랑콤이나 샤넬만을 쓰는 녀성 같았다.

그래 실례되는줄 알면서 무슨 화장품을 쓰는가고 물었더니 흔연히 알려주는 화장품의 이름이 《봄향기》라고 했다.

또 언제인가는 양각도호텔 카운터에 서있는 봉사원처녀의 피부가 무척 윤기나기에 대체 무슨 화장품을 쓰는가고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도 《봄향기》였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봄향기》화장품은 우선 우리 나라 물로 만들었기때문에 조선녀성들의 피부에 맞고 화장품원료도 천연이기때문에 더욱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에서는 이미 《봄향기》화장품이 외국제화장품을 밀어내고있으며 조국녀성들은 누구나 《봄향기》를 선호한다고 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봄향기>가 정말 좋긴 좋군요.》

그럼 본론에 들어가자.

어떻게 일을 하면서 그런 훌륭한 가사를 창작할수 있었는가고 묻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서 11년제의무교육을 받으며 자란 광숙은 중학교졸업후에는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시대의 벅찬 현실에 뛰여들었다.

날과 날들이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지는 로동생활은 그에게 기쁨이였고 노래였고 시였다.

소녀시절부터 그가 가장 사랑한것은 책과 시였다고 한다.

그녀는 짬만 있으면 책을 보고 시를 쓰고 또 책을 보군 하였다.

길을 가다가도 문득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던 자그마한 수첩에 제꺽 적어두는것이 그의 습관이였다.

그런 끝에 그녀는 중학시절에 문학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기도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할데 대한 국가적조치의 일환으로 조국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창작경연이 정기적으로 조직되는가 하면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다고 한다.

현상모집사업은 광범한 군중의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며 대중속에서 문학창작의 귀중한 싹을 발견하고 키울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때문에 중요 국가적명절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조직된다는것이다.

그녀는 로동현장에서 문학통신원으로 있으면서 창작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펴기 시작했다.

광범한 군중에게 의거하며 군중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이 나라의 정책이라고 한다.



로동자시인 리광숙(가운데)

중학교시절에 문학상을 받은 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조선작가동맹에 배속된 문학통신원으로 활약하였다.

문학통신원은 창작적소질을 가진 근로자들이 로동생활을 하면서 현실속에서 작품의 주제를 잡아서 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창작한다.

현상모집에 당선된 작품들은 높이 평가되며 영화로 실현되거나 신문, 방송, 잡지들에 발표되는 등 여러 출판물들에 소개되기도 한다. 특히 가장 우수한 작품에 한하여서는 문학상이 수여된다.

어려서부터 창작적소질을 가진 그녀에게 있어서 로동생활은 그 자체가 그대로 글감이였다고 한다.

그러던 1993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은 그에게 있어 잊을수 없는 영광의 날이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의 작품집을 친히 보아주시고 감사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돌려주신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받아안은 처녀로동자시인은 하늘을 날것만 같았다.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자.)

그날부터 그는 자기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하루일을 남보다 몇배로 하고도 성차지 않았다.

어느새 그녀는 같은 직장안의 모든 처녀들의 본보기가 되였고 로동자들의 가슴속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일을 더하면

그만큼 인민들에게 질좋은 화장품이 더 많이 차례지고 그러면 장군님께서 기뻐하신다, 인생의 가장 값높은 청춘시절을 후회없이 조국앞에 떳떳하게 살자! 이것이 그녀와 화장품공장 로동자들이 지닌 인생관이였다.

그렇게 모두가 하루일은 물론 년간계획을 몇달씩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런 그들을 두고 사람들은 준마를 탄 처녀들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들은 들끓는 작업장에서 이렇게 웨쳤다.

《100%, 200%는 보통, 300%는 괜찮다!》

언제부터인가 공장속보판에는 《준마처녀》라는 큼직한 제목을 단 이채로운 속보판이 나붙었다.

제목은 하나였으나 속보의 주인공은 매일 달랐다.

너도나도 혁신자였고 모두가 준마처녀였던것이다.

들끓는 현실은 언제나 창조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는 약동하는 현실속에서 조국을 위해 순결한 땀을 바치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훌륭한 청년들을 보았고 그것은 곧 창작의 불씨가 되여 가사 《준마처녀》를 탄생케 했다.

…

창조로 들끓는 로동당시대가

청춘에게 안겨준 값높은 새 이름
장군님 태워주신 준마에 올라
내 한생 그 이름을 빛내며 살리
라—
날 보고 준마처녀래요

진실하면서도 소박하고 생활적이면서도 기백넘친 노래의 가사는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해 한생을 준마처녀로 빛나게 살려는 그녀의 심장의 맹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사를 창작한 그자신도 어떤 크나큰 영광이 또다시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1999년 6월 전선시찰로 바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그가 창작한 가사 《준마처녀》를 보아주시고 노래로 형상하도록 하여주시였던것이다.

가사는 곧 노래로 형상되였고 만사람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순간에 온 나라에 《준마처녀》의 노래열풍이 불었다. 로동현장들마다에서 이 노래는 사람들의 정신력을 추동하며 비약과 혁신의 상징이 되였다.

노래 《준마처녀》는 처녀들뿐 아닌 남녀로소의 애창곡이 되였다.

기대소리 울리는 일터에서도, 휴식참의 오락회장에서도 지어

뻐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흥겹게 불렀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가다 그 누군가를 만나 제 손녀딸자랑을 하려면 《우리 손녀가 노래 잘하지. 송이야, 할머니들앞에서 <준마처녀> 불러보자.》, 《우리 손자가 춤을 기막히게 춘다니까. 철이야, <준마처녀> 불러줄게 어디 한번 춤춰보자.》 할 정도로 노래는 순간에 대중속에 전파됐고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그녀는 공장이 아는 《준마처녀》 리광숙으로부터 온 나라가 다 아는 《준마처녀》 리광숙이 되였다.

한생을 창작에 바친 작가나 작곡가도 대중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글 한편, 곡 한편이 있다면 거기에서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존재가치를 찾는다 한다.

하물며 전문작가도 아닌 그가 가사 한편과 함께 전문가들의 희망봉에 우뚝 서게 된것을 행운에 비겨야 할것인가.

대화의 마감에 그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크게 보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셨기에 자기의 오늘이 있다며 그렇게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로동자소설가, 로동자시인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름들을 줄줄이 꼽아내려간다. …

지금도 창작동기를 묻는 나에게 한 로동자시인 리광숙의 말이 뇌리에 꽉 박혀있다.

《특별히 창작동기라 할만 한것은 없습니다. 로동의 하루하루가 그대로 시이고 노래니까요. 저나 우리 공장의 녀성동무들은 모두 처녀시절이나 지금이나 녀성들을 나라의 주인, 한쪽수레바퀴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천날을 하루맞잡이로 일하고있습니다. 애국의 이 마음은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준마처녀로 살도록 추동합니다. …》

정말이지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그의 말. 가슴이 쩌릿해진다.

개인주의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

위대한 시대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는 격언이 생각된다.

문학은 곧 시대의 메아리라는 말도 새삼 떠올려본다.

북부조국의 류다른 제도, 그 독특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의 현실이 그녀와 같이 그렇듯 소박하고 평범한 로동자도 온 나라가 다 아는 시인이 되고 시대의 메아리가 되여 로동당시대를 마음껏 노래하며 인생의 꽃을 만발한 화원으로 가꾸어나가는것이 아닐가.

탄광마을의 녀성과학자

조국방문기회에 감지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고싶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으로 거슬러간다.

단풍이 물들던 9월말 트렁크 하나를 손에 든 깨끗한 저고리차림의 처녀가 강원도의 어느 탄광마을어구에 들어서고있었다.

《양덕 맹산 푸른 물은…》이라는 민요가락에 나오는 유명한 양덕 산골에서 나서자란 그였지만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울만큼 깊고 높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탄광마을은 처음 그녀에게 몹시도 낯설게만 안겨왔다.

잠시 무슨 생각을 깊이한 그는 다시금 발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그녀는 리춘희연구사이다.

사연인즉 과학자로서의 진심을 바쳐가는 리과대학동창생인 박현일의 인간됨에 끌려 일생 반려자가 될 마음안고 그가 있는 탄광마을로 자진해오는것이다. 그전까지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연구의 중심지인 국가과학원에서 일하던 연구사였다.

사실 이렇게 결심을 굳히게 되기까지는 고민이 컸다고 한다. 연구사업이라고 하여 꼭 과학원에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처럼 큰 발견인 만유인력법칙도 바로 이런 대자연속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다잡으면서…

얼마후 그들은 한가정을 이루었다. 남편의 연구사업을 도와 어느 심산속을 함께 걸을 때에도 전문학교의 교단에서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춘희는 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호미를 쥐고 앉아 농장밭의 아래쪽을 바라보는 그의 시야에 안겨오는것이 있었다.

산같이 쌓여지는 탄광의 버럭이였다.

자그마한 탄광에 저렇듯 많이 쌓였으니 온 나라에 쌓여있는 쓰지 못하는 버럭탄은 과연 얼마나 될가.

분자변환원리를 리용하여 저열탄의 분자구조만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말그대로 버럭이 아닌 보물로 되는것이 아닐가.

이렇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흥분이 살아올랐다.

그것은 춘희의 전공분야였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가.

이상스러운 일이였다.

탄광들이 집중되여있는 순천지구와 가까운 평성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사업을 하면서도 어째서 버럭산을 보지 못했고 구멍탄을 찍으면서 내버리는 버럭돌을 보지 못했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실현 못하는 공상을 하고있는것은 아닐가?!

정말 그럴수도 있을것이였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석탄이 공업과 생활에 광범히 리용되기 시작한지도 벌써 300년이 지났으니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석탄연구에 달라붙었겠는가. 그들이 나만 못해 그토록 많은 버럭산을 보면서도 분자변환연구를 안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금방까지의 흥분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어째선지 자꾸만 밟혀오는 미련만은 버릴수 없었다.

언제인가 국가과학원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10년만 젊었어도 갱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싶다고 하셨다는 가슴저미는 이야기를 전해듣던 일도, 장군님께서 강원도와 황해북도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초무연탄을 연료로 쓸수 있게 연구해볼데 대한 과업을 국가과학원에 주셨다는 생각도 떠올랐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녀의 가슴이 끓기 시작했다.

—그래 그것을 연구과제로 삼자. 그래서 인민들의 땔감문제를 꼭 해결하자.—

문득 춘희의 머리속에 양덕군의 중학교들에서 모여온 200여명의

수험생들중에서 혼자 뽑히여 리과대학에 올라갈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가 공부하던 학급은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속에서 또 채로 쳐내듯 한사람씩 골라 무은 학급이였다. 그처럼 그들에 대한 나라의 믿음은 대단하였던것이다.

그녀는 절대로 물러설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맡은 수업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연구준비를 서둘렀다.

강원도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초무연탄의 활성을 높이는 첨가제를 기본연구방향으로 정했다.

휘발분이 적고 회분이 많은 초무연탄의 구조적성질로 하여 그것의 활성을 높이는 첨가제를 만들어낸다면 버럭탄의 구조변환도 얼마든지 가능한것이였다.

춘희는 연구방법을 생각했다.

광석 하나를 정하고 각이한 광석들을 바꾸어가면서 그것들의 치환반응과정을 따져보아야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미 정했던 광석의 반응여부를 확정한 다음에는 또 다른 광석을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실험해야 하였다.

수백종의 광석을 다 같은 방법으로 실험해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하겠는가는 불을 보듯 뻔했다. 또 수백차의 그런 실험끝에도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과학을 운명의 희롱학이라고 하는 말들도 생겨난 모양인가. 성공하면 축배요, 실패하면 고배라는건데…

하지만 이것은 량심이 가리키는 연구였다.

우선 시간이 필요했다.

춘희는 학교교무과에 제기하여 강의시간외에 출장을 다니며 분석실험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계획이지 실천이 아니였다.

광석재료를 채취하여 반응할수 있는 크기의 분말을 만든 다음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열을 가하면서 실험을 한다는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또 광석분말들의 반응과정과 높은 압력에서의 고착과정은 국가과학원이나 함흥분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야만 하였다.

주당 강의배당시간이나 조절받는것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가정생활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이고 조건이였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위한다는것이…》

춘희는 진심으로 미안스러웠다. 남편의 과학탐구를 뒤받침해주고 보태주어 그 어느 동기생들보다도 사회앞에 더 먼저, 더 떳떳하게 내세우겠다던 애초의 결심을 미루지 않으면 안되는것이였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여기에 어디 누가 누구를 위하고 또 누구를 내세우고말고가 있단 말이요. 어느것이 나라에 더 필요한가가

기본인게지.》

춘희의 결심을 듣고난 남편 현일은 흔연스레 말했다.

그리고는 롱담 절반 진담 절반인 말을 하며 웃었다.

그때부터 춘희의 집에서는 어느 하루도 멈춤이 없이 돌절구질 소리가 울렸다.

남편 현일은 춘희에게 있어서 조수이기도 했고 또 스승이기도 했다.

수백차의 실험이 진행되였다. 거기에 든 공력을 쌓을수만 있다면 아마도 큰 산을 이룰것이였다.

노력은 성공의 열쇠라는 진리를 증명이라도 하려는듯 좀처럼 드러낼줄 모르던 미지의 세계가 드디여 춘희에게 길을 내주었다.

어둠뒤에 광명이라고 구조변환원리를 리용한 땔감문제의 해결은 시련을 이겨내며 한걸음한걸음 전진하고있었다.

10여년만에 초무연탄구조변환의 가능성이 발견된것이였다.

(아, 이것이… 이것이… 아, 사실이란 말인가.)

온 방안이 떠나갈듯 소리치고싶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여년동안 하루의 번짐도 없이 밤마다 쇠절구를 찧으면서 그렇게도 바라고바랐던 실험분석결과가, 수치들이 바로 실험공처녀가 방금 가져온, 그래서 춘희자신이 들고선 그 종이장우에서 춤을 추고있는것이였다.

고령토, 팽윤토, 형석, 카리장석…

수백가지의 광석재료들중에서 서로의 물리화학적작용으로 초무연탄의 구조변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몇개의 광석들을 찾아낸것이였다.

춘희는 학위론문을 썼다. 춘희가 내놓은 학사론문은 사실상 하나의 발견과 같은것이였고 심사자들도 그렇게 인정했다.

기쁠 때 눈물이라더니 남편인 현일이 춘희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춘희자신에게 있어서 현일이 얼마나 큰 힘이고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남편이 뜻밖에 사망한 후에야 그는 자기의 초무연탄구조변환에 대한 리론적기초의 정립에 실린 남편의 정신적뒤받침의 무게가 얼마나 큰것인지를 깨달을수 있었다.

《정아 아버지, 내 기어이 해내겠어요.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 아이들도 꼭 잘 키우겠어요.》

남편의 영정앞에서 춘희는 이렇게 마음속의 맹세를 다졌다.

이날은 다름아닌 춘희의 생일 42돐이 되던 2000년 4월 18일이였다.

남편을 잃고보니 춘희의 생활에서는 큰 공백이 생겼다.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돌보고 맡은 수업을 보장하고 또 연구사업을 밀고나가야 하였다.

당장 가정을 돌보는것이 급선무였다. 아버지없는 자식들이 축 잡히지 않게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 떳떳하게 키워야 하였다.

연구사업은 또 어떤가.

변환원리를 밝혀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실험실적단계였다. 현실도입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실은 현실도입이 더 어려운것이였다.

실험실적방법으로 원료를 찾아낼 때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광석재료를 채취해야 했고 시약들도 구해들여야 하였다.

세월이 흘렀다.

초무연탄의 구조변환원리를 밝혀내여 학사학위를 받은 때로부터도 또다시 1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아이들도 커서 맏이 정아와 둘째 선아는 벌써 대학으로 떠나갔다. 어머니를 닮아 남달리 총명한 평아도 부모들의 뒤를 이어 리과대학을 목표로 큰 포부를 안고 날과 달을 보냈다.

했건만 춘희는 자기 집 부뚜막을 매일같이 뜯어고치며 활성첨가제를 시험했다. 수공업적방법으로 뽑은 활성첨가제의 사용방법을 한집, 두집 동네아낙네들에게 가르쳐주며 그에 대한 평도 들어보았다. 그러나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수공업적인 방법으로는 그 이상 더 전진할수가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

한계점에 도달한것이였다.

일부 일군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다가도 75HP짜리 압축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가 요구된다는 말을 듣고는 아예 손을 저으며 물러서군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전문학교의 평범한 교원에 지나지 않는 녀성이 자기 집 부엌에서 연구한 확신도 없는 일에 설비를 들이밀었다가 그것을 과연 어떻게 보상한단 말인가.

너무도 당연한 일이였다.

더는 어쩌는수가 없었다.

한계점에 도달한 연구를 언제까지나 붙잡고 계속할수는 없었다.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자식들의 뒤바라지나 하면서 조용히 교단을 지켜가는가 아니면 연구사업을 계속하는가.

또다시 남편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꽉 채우며 살아올랐다.

(아, 어쩌면 좋아요?!)

춘희는 가마를 방금 들어낸 아궁이에서 자기로서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망두석마냥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승용차의 가벼운 경적소리가 대문밖에서 울렸으나 춘희는 웬걸… 하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만 옴해있었다.

이제 연구사업으로 벌려놓았던 일들을 거두고 랭정하게 자기를 돌이켜보기로 마음먹은 춘희였다.

아마도 결판을 낼 때가 된듯 했다.

과학적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시작한 일이였건만 실패만을 거듭하니 손맥이 풀리였던것이다.

어떤 때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지를 못했다.

간혹 가다가 나타나군 하는 갑작변이현상에 현혹되여 일생을 그 연구에 바쳤다가 빛을 못 본 적지 않은 실패한 과학자들대렬에 아마도 자기 자리도 있는 모양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서글퍼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허깨비를 진짜로 보고 현실에 없는 실체를 그리려고 일생을 바쳤다던 유럽의 어느 한 미술가와 같이 2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낼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왜서인지 춘희의 뇌리에서는 자꾸만 《아니야, 그건 진리야, 명백한 진리였어. 네가 발견을 못했을뿐이야.》 하는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그러느라니 이미 마당에 일군들이 들어선것도 모르고있었다.

누군가 다가와 도의 책임일군이 왔다고 일러서야 뒤를 돌아보았다.

…

모든것이 어리벙벙했다.

그가 무엇을 물었으며 또 자기가 무엇을 대답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명백한것은 필요한 모든 설비를 다 보장해주겠으니 신심을 잃지 말고 초무연탄첨가제를 꼭 성공시키자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 많이 나는 초무연탄을 리용하여 인민들의 땔감문제를 꼭 해결하자고 하던 격려의 말이였다.

그리고 이미 토론이 있은대로 이제부터는 춘희선생을 과학연구사업에만 전심할수 있게 군 새기술보급실 실장으로 사업하게 할데 대한 이야기였다.

고립무원한 사막에서 타는듯 한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단비를 맞았다한들 이보다야 더 기쁘겠는가.

자기의 사정을 도의 책임일군이 어떻게 알았고 천내군의 자기 집에까지 찾아오게 되였는지 춘희로서는 도대체 의문이였다.

물론 알수 없었다.

당조직이 지켜보고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론의됐음을.

그만이 아닌 과학자들의 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있었음을.

춘희는 다시금 달라붙었다.

춘희자기가 그처럼 갖추고 해보고싶었던 75㎰압축기며 설비들이

도착하여 공업적방법의 도입을 시험했지만 역시 만족한 결과가 아니였다. 공회전만을 계속했다.

그러한 춘희에게 도의 책임일군은 정밀한 압축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어느 제련소 공업시험소의 설비와 실험실들을 리용할데 대한 문제도 토론해주었고 자기 도에는 없는것으로 알았던 필수불가결의 일부 광물들을 강원도에서 나오는것으로 골라주며 바꾸어 해볼데 대한 의견도 주었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모여 생활할수 있게 공업시험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림집을 지어주고 가정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사람들이 실지 덕을 보아 인민의 인정을 받을수 있게 초무연탄활성첨가제의 연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자고 격려해주었다.

춘희실장은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었고 드디여 초무연탄활성첨가제가 완성되였다. 초무연탄활성첨가제생산기지에서 방식상학들이 련이어 진행되고 그 보급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였다.

주민용땔감으로도 리용할수 없었던 초무연탄이 기계공장 소둔로의 연료로까지 쓰이게 되였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이다.》

《발견이다. 기적이다.》

이런 말들이 련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는 현장에 내려와 춘희실장에게 공학박사의 학위까지 수여해

주었다.

무수히 쏟아지는 사람들의 축하를, 칭찬의 말을 들으며 춘희는 드디여 깨달았다.

과학자도 결국은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는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발견》이라는 황금알을 낳을수 있다는것을.

그야말로 25년간의 체험과정을 거쳐 발견해낸 《진리》에 대한 춘희의 새로운 정의였다.

아껴주고 내세워준 사회와 집단의 진정한 도움이 있었기에 평범한 녀성과학자의 과학연구가 빛을 볼수 있었고 그로 하여



공학박사 리춘희(왼쪽에서 두번째)

앞으로 수백년은 더 쓰고도 남을 보물에네르기의 확고한 전망이 조국땅에 펼쳐지게 되였다.

그러던 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의도대로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 있는 초무연탄을 연료로 쓸수 있게 활성첨가제를 연구완성한 리춘희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시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리고 최근에 초무연탄활성첨가제가 연구개발되여 초무연탄과 버럭탄을 땔감으로 리용할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였는데 모든 곳에서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얼마후에는 또다시 그를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를 직접 수여해주시였다.

(정아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 공로자로, 공학박사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자로 내세워주셨어요.)

춘희는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책상앞에 정히 나앉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방금 뵈왔는데도 또 못견디게 그리워…》

또박또박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리는 감사의 글줄을 적어나갔다.

그런데 자기의 그 감사의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실줄, 보시고 친히 마음속고충을 이겨내며 녀성의 몸으로 나라

에 보탬을 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훌륭한 공로자라는 분에 넘치는 사랑과 믿음의 친필을 보내주실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춘희의 가슴에서 또다시 이루 말할수 없는 격정이 솟았다.

선군시대 공로자 리춘희의 심장이 이렇게 웨쳤다.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하시며 오늘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과학자의 본분을 더 잘해나가리라.—

이상의 글은 조국방문의 나날에 본 신문에 의거한것이다. 나는 그때 만나보고싶었지만 체류일정상 그녀가 사는 강원도에까지 갈수가 없었다. 나는 춘희녀성의 사진을 보면서 그와 마음속으로 많은 대화도 나누었다. 그 과정에 나의 뇌리에 새겨진 그녀는 마음도 생김새도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녀성이였다.

한 처녀의 결혼이야기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껴있다는 말은 세상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방문의 나날에 느낀 여러 사실가운데서 《한 처녀의 결혼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싶다.

북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부상을 입고 제대된 사람을 일러 영예군인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는 이러한 영예군인들을 위훈자로 내세우고 떠받든다. 그들의 육체적손상은 다름아닌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군복무의 길에서 발현된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증표이기도 한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있다.

하지만 북의 영예군인들에 대한 공화국의 혜택과 배려는 그와는 대비가 못된다. 질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으며 생활에 조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영예군인

들에 대한 국가의 온갖 우대와 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여있으며 그들이 능력껏 사회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사회적시책이 실시되고있는것이 바로 북부조국의 현실이다.

북에서는 영예군인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것이 전사회적 풍조로 되고있다. 가갸표를 읽는 유치원어린이로부터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 대학생, 로동자, 사무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들에게 친혈육의 정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다.

병원이나 상점, 식당들에 가면 영예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해주며 뻐스나 지하전동차의 제일 편리하고 좋은 자리는 의례히 영예군인들에게 차례진다.

색다른것이 하나 생겨도 영예군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명절일이나 휴식일이면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한식솔로 즐긴다.

길을 가다가도 삼륜차에 몸을 실은 영예군인메달을 단 사람들과 마주치면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한가지 일이라도 도와주려 마음쓴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것은 조국에서 《그가 영예군인이기때문에 시집장가를 못 갔다.》는 말을 전혀 들을수가 없는것이였다.

조국에서는 어떤 처녀, 어떤 총각이 영예군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그리 놀랄만 한것이 못되며 흔히 보고 들을수 있는 평범한 사실로 되고있으니 말이다.

《취업=결혼, 미취업=리별》이라는 살벌하고도 씁쓸한 련애방정식이 청년들을 위압하는 서방세계 같으면 성한 사람과도 하기 힘든 결혼을 어떻게 조국에선 처녀총각들이 《불구자》들에게 구혼할수 있을가.

영예군인청년들의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일생을 함께 할것을 언약하며 그들의 안해, 남편이 되고저 저저마다 열망하는 꽃같은 처녀들과 름름한 총각들의 정신세계는?

과연 그 어떤 고상한 정신세계가 그네들속에 자리잡고있는것일가.

그에 대한 이야기의 한토막.

고창탄광 대사갱에는 마음씨 곱고 인물 곱고 일솜씨 또한 암팡진 운전공처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철옥, 탄광사람들과 마을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녀를 《우리 철옥이》라고 불렀다.

아들 둔 녀인들은 은근히 그에게 눈독을 들였고 탄광의 끌끌하고 젊은 미남자들도 그녀와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면 괜히 한번 더 말을 건네군 했다.

보통 처녀들은 총각들의 이런 태도에 얼굴을 붉히거나 가슴울렁거려 하겠지만 그녀의 경우는 달랐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도저히 잊을수 없는 한 총각의 모습이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어느날이였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을 안고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한곬으로 흐르고있었다.

(오늘은 꼭 확답을 받아야겠어.)

탄광을 나선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방향으로 향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걸을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 길이였다.

하지만 그 길에 첫 자욱을 찍던 그때는 마음도 발걸음도 얼마나 무거웠던가.

그 길에 무수히 찍힌 발자욱을 더듬어보느라니 자기의 마음을 송두리채 빼앗은 그 청년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그 청년은 누구인가.

총각의 무엇이 그녀의 가슴을 꽉 붙잡고 그로 하여금 함부로 밸지 않는 소중하고 값비싼 처녀의 고백을 스스럼없이 하게 한 것일가.

그의 심장을 용광로처럼 달군 최고의 남자, 그의 이름은 변명일, 나이는 29살, 군사임무수행중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구원하고 부상당한 청년.

그랬다. 그는 영예군인이였다.

인민반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첫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더우기 그의 사진을 보았을 때 가슴은 말 못할 어떤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앞으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고 하면서 인민의 만년재부를 마련하기 위해 구슬땀을 바쳐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이 때없이 떠올랐고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선군시대 군인들의 풍모를 전한 신문기사의 글줄들도 되새겨졌다.

그 청년도 그런 군인들중 한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녀에게는 그가 이미전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친근하게 느껴졌고 만나보고싶었다.

또한 그에게 두다리가 되여주어야 할 일생의 길동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무엇으로 하여 그 청년이 어린 생명을 위해 제 한몸을 서슴없이 내댈수 있었는가.

그것은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였다.

후대들을 위해 자기를 바친 그는 누구보다 행복해야 한다.

며칠후 퇴근길에서 그는 어머니가 밀어주는 삼륜차에 몸을 싣고 가는 그 청년을 보게 되였다.

어머니에게 무엇이라 정열적으로 이야기하며 유쾌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았고 처녀의 심장을 단번에 틀어잡았다.

(저 동무의 삼륜차를 영원히 내가 밀어주고싶구나.)

참된 사랑은 처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싹트고 뿌리내리였다.

며칠후 철옥은 부모앞에 그 청년과 한생을 같이할 자기의 결심을 털어놓는다.

이런 때 그녀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가.

딸의 결심을 들으며 수십년을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일해온 아버지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였지만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다른 집 처녀들이 영예군인의 눈이 되고 팔과 다리가 되여 그들과 일생을 함께 한다는 신문기사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자기 딸이 그런 결심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딸 용쿠나.》 하는 말이 쉽게 나가지 않았던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손목을 꼭 잡으며 철옥은 이야기했다.

《전 그 동무의 모습에 저의 생활을 비쳐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껏 행복속에서만 살며 제가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바친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구요.》

한동안 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지던 그는 어리광부리듯 어머니의 목에 매여달리며 속삭였다.

《엄마, 내가 아니라도 정말 좋은 처녀들이 그의 다리가 되겠다고 나설거야. 나도 선군시대 청춘이 아니나요. 선군시대 처녀가

병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해요. 난 그가 영원히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살도록 힘을 주고싶어요. 그게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원수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 딸이 다 자랐어, 다 자랐다니까. 헌데 결코 쉽지는 않을게야. 그러니 한번 먹은 마음 변치 말고 꿋꿋이 걸어가거라.》

자기의 등을 어루쓰는 어머니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하며 딸을 키운 어머니. 나무랄데 없이 끌끌한 청년을 사위로 맞아 딸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려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라는것을 철옥은 알고있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지지와 고무를 받으니 더욱 기뻤다.

그런데 난사가 생겼다.

청년이 처녀의 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것이였다.

문전거절 당하기도 그 몇번…

그러거나말거나 처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매일매일 그의 집을 찾았다.

자신보다 녀성의 희생에 대해 생각하는 청년의 진정이 가슴을 파고들수록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고 결심은 굳세여졌다.

처녀는 이이상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오늘은 결단코 답변을

받아내리라는 결심을 굳히며 총각의 집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처녀는 장시간 총각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뽑은 후에 그의 부모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이렇게 싸잡아 말했다.

《벽에 걸린 저 군모의 별이 영원히 빛을 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영예군인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준 어머니조국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영예군인의 부모는 북받치는 뜨거운것을 금치 못하였다.

《겉보기가 속보기라구 마음두 어쩌면 그리 비단결같은지…》

부상당한 몸으로 아들이 집에 들어설 때에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끝끝내 처녀에게 보이며 청년의 아버지가 말했다.

《철옥아, 내 딸아, 고맙다.》

청년의 어머니도 그녀를 와락 붙안고 오열을 터뜨렸다.

영예군인과 그 부모들의 뜨거운 눈물은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낸 선군조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철옥동무!》

순간 철옥은 놀랐다.

분명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으나 힘있고 짧으나 정이 콱 와닿는 청년의 불타는 목소리를 들었다.

《명일동무!》

《철옥이!》

그때껏 흔들리지 않던 청년의 무쇠가슴이 처녀를 와락 안은채

들먹이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가, 어떻게 이런 처녀를 마다할수 있단 말인가.

처녀의 순결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청년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동무가 바라는대로 영원히 병사로 살테요.)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다.

얼마나 은혜로운 사랑, 크나큰 축복이 머지않아 태여날 자신들의 가정을 뜨겁게 안아주고있는지.

나라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처녀의 소행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은정어린 감사와 선물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그를 훌륭한 동무라고 치하하시며 최고사령관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시였다.

최고사령관의 인사!

그이께서 보내주신 인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값비싼것이였고 행복과 영광의 절정이였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영예군인청년과 나란히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날 철옥은 소리높이 말하고싶었다.

《나는 영원한 병사의 안해다.》

한 처녀의 결혼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북녘녀성들의 생활의 면모를 한폭의 그림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었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껴있다는 격언을 재삼 떠올린다.

두해전 평양행 《고려항공》을 타기 위해 공항으로 나갔을 때에 내뒤에 서있는 두 남자가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번 런던에서 열린 제30차 올림픽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었두만. 얼마나 통쾌하던지.》

《모두 어린 선수들인데 대단하더란 말이요.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들어올려 세계를 놀래운 엄윤철선수는 20살을 갓 넘겼고 녀자력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림정심선수는 아직 10대라고 하지 않소. 정말 장하단 말이야, 장해.》

런던올림픽의 봉화가 꺼진 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차있는듯 했다.

그들의 화제에 올랐던 체육인들의 이름이 귀에 익었다.

불현듯 떠오르는 기사의 한토막.

《… 림정심선수는 녀자력기 69kg급 결승에서 끌어올리기 115kg, 추켜올리기

146kg을 들어 합계 261kg으로 2위 로므니아의 다니엘라 록산나 코코스를 5kg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력기선수는 더 막강했다. 56kg의 엄윤철은 추켜올리기에서 세계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62kg급의 김은국선수는 합계 327kg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2위 선수와의 차이를 9kg이나 벌리며 금메달을 땄다.

북의 체육이 이같이 강해진 리유는 무엇일가?》

런던올림픽경기과정과 관련하여 남쪽의 한 출판물이 실은 기사였다.

문득 나는 이번 조국체류기간에는 어떻게 하나 런던올림픽대회 우승자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심이는 타고난 력기선수감이였습니다.》

런던올림픽경기대회 우승자인 기관차체육선수단 력기선수 림정심의 감독 김춘희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조국땅에서 만나는 사람모두가 그러했지만 그 역시 아주 겸손한 어조로 말을 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나서자란 림정심.

자기 자식을 귀해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련만 가정의 맏딸인 정심이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는 무척 남달랐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말이 없고 듬직한데다가 힘은 사내아이들도 당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탁아소때 10kg이나 되는 물바께쯔를 들고 아빠트계단을 올라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혀만 찼다니까.

정말 정심의 부모들에게는 아들부럽지 않은 자식이였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맏딸의 전망문제에 관한 분쟁을 낳기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 정심이를 공부시키자고 했고 젊어서 교예체조를 하면서 자기 어깨우에 5명까지의 선수들을 올려놓고도 끄떡하지 않아 장수로 소문났던 어머니는 체육, 그것도 힘을 겨루는 력기선수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던것이다.

언제 가도 끝이 나지 않을듯싶던 분쟁은 아버지가 내놓은 안에 의해 일시 막을 내리게 되였다.

학업성적은 이미 우수하다는것이 공인된 이상 력기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락착을 짓자는것으로.

어머니는 정심이의 손목을 잡고 집가까이에 있는 청춘거리 력기경기관 청소년체육학교를 찾았고 정심이는 지도교원인 김춘희의 앞에 서게 되였다.

김춘희는 정심이의 체질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고 한다.

힘이 여간만 좋지 않은데다 한번 대준 동작을 마치 오래동안 익힌것처럼 단번에 정확히 수행하기때문이였다.

력기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다. 힘도 세고 전술도 잘

세워야 하지만 동작이 좋아야 하는것이다.

력기선수들의 훈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무게를 들어올리며 힘을 키운다기보다는 동작을 익히기 위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정심이는 천성적으로 힘도 세고 자세도 좋으니 앞날은 이미 그어진 상태나 같았다.

그때 김춘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심이의 체질은 매우 특이하다. 조금만 품을 들이면 그는 꼭 세계적인 힘장사가 될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인연은 맺어진것이였다.

《저를 키우시려는 감독동지의 노력은 정말 불같았습니다.》

그때껏 듬직하게 앉아있던 림정심이 자기 스승을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이 한마디를 던지더니 이야기를 펴나갔다.

당시 김춘희는 한창나이의 처녀. 저녁퇴근시간에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산보길도 놓여있었건만 그는 정심이의 곁에서 한걸음도 뜨지 않았다.

낮에는 훈련장에서 천성적인 자세를 경기적인 자세로 잡아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 제자를 위해 별들이 총총 뜬 깊은 밤에는 집방향과 반대되는 퇴근길에도 함께 올랐다.

정심이의 성장을 위해 밑거름이 되여준것은 그만이 아니였다고 한다. 학교일군들도 정심이의 기록이 나날이 늘어가는데 대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함께 풀어주었다는것이다.

력기경기관에서 훈련을 하는 국가종합팀선수들과 감독들도 어린 정심이의 힘이 하루빨리 자라도록 경험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기초기술동작을 빨리 익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면서 끔찍이 사랑해주었다. 과외시간에 체육기술을 익히는 청소년체육학교는 그에게 있어서 희망의 나래를 달아준 집이였으며 지도교원들과 감독들은 자기의 부모였고 선수들과 후비생들은 한형제였다.

김춘희감독은 정심이의 이 말에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김춘희의 말에 의하면 정심이는 12살부터 후비생들의 경기에서 매번 새 기록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그가 드는 무게는 나날이 늘어 14살때에는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으로 체육단선수들이 참가하는 청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후비생이 체육단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에 나서기는 처음 있는 일이여서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 선수권대회 경기에서 그는 녀자력기 48kg급에서 단연 1등을 하여 전문가들을 놀래웠다고 한다.

나날이 성장하는 정심이의 앞에는 더 큰 대문이 열려져 있었다. 나라에서는 정심이의 성장을 위하여 지도교원과 함께 기관차체육단으로 불러주어 성공의 나래를 활짝 펴도록 해주었던것이다. 그리고는 국제무대에도 내세워주었다. 하여 그는 세계청소년체육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성장의 키를 한뽐한뽐 자래웠다.

그러던 그가 2012년 런던에서 열린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했을 때였다.

올림픽경기대회에 함께 참가한 안금애, 엄윤철, 김은국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된지 단 2일동안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자 세계체육계의 이목은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팀에로 쏠렸다.

조선팀의 4번째 금메달은 가능한가, 하다면 어느 종목에서 누가…

력기에서 이미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동메달이 나왔으므로 사람들은 아직 애티가 력력한 림정심을 건너 다른 종목에서 4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을 찾았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주인공은 너무도 빨리 나타났다.

그때까지 조선의 선수들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녀자력기종목에서 또 한명의 우승자가 나타났던것이다.

서둘러 우승자에게 렌즈의 초점을 맞추던 그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조선의 력기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처녀, 림정심이기때문이다.

력기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진인것으로 하여 세인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녀자력기 69kg급끌어올리기의 첫번째들기에서 그는 단번에 111kg을 성공시키고 두번째들기에서 처음보다 4kg이나 더 많은

115kg을 또다시 성공시켰다.

당시 끌어올리기경기가 끝난 상태에서 115kg은 제일 많은 무게였는데 그 기록에 도달한 선수는 모두 3명이였다.

그가운데 림정심이 들어있었고 나머지 2명은 세계적인 경기들에서 앞자리를 다투는 만만치 않은 로장들이였다. 그러나 같은 무게를 든 선수들이 있을 때는 몸무게가 제일 가벼운 선수에게 앞자리가 차례진다는 규정에 따라 1위는 림정심이 되였다.

그러자 다른 팀 감독들은 림정심선수의 추켜올리기기록을 예상해보면서 그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한 속에 정심이가 추켜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단번에 142kg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이것으로써 그의 올림픽경기대회 순위권입선은 확정적인것으로 된다. 그런데 다른 경쟁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차례졌다.

그가 두번째로 신청하였던 146kg을 실패하였던것이다. 하여 두번째들기가 끝난 상태에서 그의 종합성적은 257kg으로 된다. 끌어올리기에서 아쉽게도 몸무게차이로 림정심 다음 순위에 든 선수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되였다.

다른 팀 감독들은 조선선수는 두번째들기실패로 심리적압박감을 받았을것이다, 그러므로 세번째들기를 성공한다는 담보는 없다, 용기를 내여 추켜올리기에서 142kg보다 많은 무게를

성공시키면 우승은 담보된다, 성공은 눈앞에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 세번째들기에 운명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하여 녀자력기 69kg급추켜올리기 세번째들기 신청무게들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경기승패는 세번째들기에 있었다.(력기경기에서는 매 선수들이 각각 세번씩 드는데 성공한데서 제일 많은 무게로 순위를 정한다.)

과연 림정심선수가 경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조선팀의 4번째 금메달수상자로 될수 있겠는가.



력기선수 림정심

모두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다. 드디여 정심이의 차례가 왔을 때 그에게는 두번째들기에서 신청하였던 146kg이 놓여있었다. 력기종목에서는 신청하였던 무게는 비록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더 하지도 덜지도 않은 그 무게를 들어야만 하였다.

하여 림정심선수는 마지막 세번째들기에서 다시 146kg을 마주하게 되였던것이다. 심판원들과 감독들, 그의 경기결과에 의해 순위가 오르내려야 하는 선수들이 모두 손에 땀을 쥐고 마지막 들기에 나선 림정심을 지켜보았다.

읏— 하는 소리가 났다.

그와 함께 순간채기와 빠른 추기, 재치있는 동작의 결합에 의해 구간봉이 휘게 어깨에 올랐던 무거운 철추가 림정심의 머리우로 번쩍 들리였다.

성공, 성공이였다.

순간 경기장에서는 와— 하는 환호성이 터져오르더니 요란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림정심이 종합 261kg으로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가 든 무게는 2등을 한 선수와 4kg이나 차이났다.

모든 관중들이 금메달수상자를 축하해주었다.

금메달을 받기 위하여 시상대앞에 선 그의 모습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올림픽경기대회와 같은 세계강자들이 참가하는 경기에서 1등

을 하였다는것이 아직 믿기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그쯤한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자신심에서인지.

은, 동메달을 받고도 흥분을 걷잡지 못해 메달들을 관중들에게 흔들어보이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순위를 불러주는 방송원의 말에 주의를 돌리다가 《녀자 69kg급 1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정심》이라고 우승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자기라는것을 알았을 때 순진한 미소를 짓고 낮게 드리운 손을 가볍게 한번씩 치는 특이한 환희표시, 다른 나라 국기우에서 서서히 오르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며 장내에 울리는 애국가를 조용히 따라부르는 어른스러워보이는 모습 등이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그를 두고 사람들은 조선선수들의 고상한 풍모, 강의한 정신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조선팀의 4번째 금메달쟁취는 곧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련 3일째 런던상공에 애국가가 울리고 람홍색공화국기가 올랐다.》, 《조선선수들이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다.》, 《예측할수 없는 금메달》…

이런 찬사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속에 림정심에게 기자들이 마이크담을 쌓고 우승소감을 물었다. 나어린 그의 입에서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것인가.

잠시 좌중을 둘러보고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나는 금메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가고싶은 마음뿐이다.》

예까지 들었을 때 놀랐다고 할가, 감동되였다고 할가.

문득 이와는 대비되게 언제인가 진행된 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서 어느 녀성선수가 결승테프를 끊고 주로에 엎드리고 앉아 웨쳤다는 말이 생각났다.

《어머니, 이젠 우리도 부자가 되였어요.》

북부조국에서 체육인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경기성과로서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나는 처녀힘장사 림정심 그녀의 모습에서 체육강국으로 부상할 조국의 래일을 보았다.

영화의 주인공은 군관의 안해였다

조국의 큰집문을 두드리던 그날부터 내가 알게 된 평범한 녀성들가운데는 예술인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인기배우에 대한 나의 높은 관심때문이였으리라.

언제인가 단 한번의 출연으로 조국인민들의 사랑과 환영을 독차지한 《녀배우》도 그들속의 한사람이다.

영화가 상영된 이후 거리에 나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만사람의 선망의 대상, 취재대상이 되였다는 그녀, 아이들까지도 그를 보면 달려와 소년단경례를 하군 했다는 그녀, 그는 예술영화 《소원》에서 군관의 안해역을 훌륭히 수행한 백련희녀성이였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그러면서도 애교있고 활달한 역으로 사람들의 마음, 내 마음까지도 쉽게 끌어당긴 영화의 녀주인공.

그 어느날, 영화속 군관의 안해가 실지는 배우가 아니고 평범한 군관의 안해이며 장군님께서 생전에 믿음을

주시고 내세워주신 군인가족들중 한사람이라는 정보를 받게 되였다.

사색과 락조의 빛갈로 서서히 물들어가던 2012년 가을 어느날 나는 그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였다.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로 내앞에 다가서는 그는 영화속보다는 퍽 세련되여보이는 녀성이였다.

나의 눈길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 있었다. 이미 영화에서 익숙해진 입주위에 있는 그녀 특유의 큰 김이였다. 어찌 보면 그 김이 백련희녀성의 아름다움을 보태주는듯싶었다.

32살 잡혔다는 그는 마치 친언니라도 만난듯 나를 살갑게 대해주었다.

그의 외모나 성대, 몸가짐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예술부문에 익숙되여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우리의 기본대화는 강원도의 어느 한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난 그가 5살 나던 해인 1985년부터 시작되였다.

유치원음악소조에 다니던 그는 그해 어느날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일생에서 잊지 못할 나날로 되였다고 한다.

아이들속에 있으면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시며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린이들의 예술축전장에 나오신것이였다.

이때 백련희는 축전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을 대표하여 그이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그가 올리는 꽃다발을 받으신 주석께서는 귀엽다고 두볼을 다독여주시며 훌륭한 어린이가 되라는 축복까지 주시였다.

그이의 축복을 받아안고 재간둥이로 무럭무럭 자라난 그는 금성제1고등중학교(당시)에 입학하여 화술공부를 하게 되였다.

그 나날 그는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 조선소년단축하단으로 여러차례나 참가하였으며 설맞이공연을 비롯한 계기들에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였다.



군관의 안해 백련희

자꾸만 차례지는 영광과 행복의 순간마다 백련희는 평범한 로동자의 딸에 불과한 자기를 키워준 나라의 고마움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였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나 보답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군 하였다고 한다.

하다면 어떻게 보답할것인가.

그녀는 청춘시절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이 바로 그 보답의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여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는 군복을 입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학창시절에 쌓아두었던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며 보람차고도 일생 잊지 못할 처녀시절을 보낸 그가 제대되였을 때였다.

인물 잘나고 마음고운 그에게 수많은 청혼자들이 나섰다.

그들속에는 이목구비가 수려한 총각, 실력이 쟁쟁한 연구사, 뛰여난 재능을 가진 배우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다.

뭇녀성들의 눈길을 끄는 미남자의 안해로도 될수 있었지만 그녀는 일생의 동행자로 인민군군관을 택하였다.

군사복무를 한 그녀에게 있어서 군인은 더없이 친근한 전우처럼 느껴졌고 군복을 입고 청춘시절을 조국에 바쳐가는 청년처럼 미덥고 진실한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는 이때를 회억하며 말했다.

《군인이야말로 가장 열렬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우리 나라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애국과 떼여놓고 생각해보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로동자는 로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그들은 모두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피와 살처럼 여기며 조국을 위해 자기의 아낌없는 땀과 정열, 지혜를 바치는것을 자랑으로, 마땅한 도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국으로 불타는 그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이야말로 애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군인은 애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군관의 안해가 된 그날부터 그는 남편과 나란히 전호에 선 심정으로 원군의 길을 걸었다.

집에 들어가면 살뜰한 군관의 안해였고 나서면 병사들의 친누이였다.

모두가 그를 우리 누이라고 따랐다.

그만큼 병사들을 위하는 그의 진정이 컸던것이다.

그는 늘 부대군인들을 따라다니며 돌봐줬다.

《장군님께서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연고로…》

나는 불쑥 물었다. 아무래도 제일 알고싶은 점이였으니까.

잠시후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98년 1월 어느날, 그날은 군인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결코 잊어서는 안될 그런 뜻깊은 날이였다고 한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군인가족들로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군인가족들을 예술소조활동에 많이 참가시키면 군인들을 교양하는데도 좋으며 부대를 흥성거리게 하고 군인들의 사기도 높여줄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다는 말씀을 하시였다는것이다.

하여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태여나게 되였고 시집온 첫날부터 남편과 병사들을 위하느라 극장구경은 둘째치고 거울앞에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마저 아까워했던 50이 넘은 군관의 안해로부터 갓 시집온 새댁들까지 처녀시절처럼 차려입고 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그들속엔 별의별 재간둥이들이 다 있었다.

한다하는 손풍금수가 있는가 하면 맵시있는 피아니스트도, 바이올린연주가도 있었으며 장고명수나 저대명수 또 전문가 못잖은 독창가수와 무용수 지어 어릴 때 학생소년궁전에서 재간을 익힌 만담수까지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이들마냥 공연준비에 열성을 부렸다.

악기들을 놓은지 오랜터라 악사들은 부지런히 손풀이를 하였고 성악가들은 목청틔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연이 경연이니만치 모두가 함께 결승테프를 끊을수는 없었다.

어느 조가 최고가 되느냐는 매 조직성원들 각자의 노력과 단결력에 달린것이였다.

하여 재간이 부족한 군관의 안해들까지도 바탕이 있는껏, 할수 있는껏 이악을 부려야 하였다.

그렇게 간난신고끝에 성공의 순간을 맛본 녀인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드디여 그들이 일일천추 바라던 시각이 왔다.

1998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이 진행되였던것이다.

미숙한 그들의 공연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공연이 말그대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다운 맛이 난다고, 특히 사상성이 높고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것이 좋다고 하시며 누구나 이 공연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공연은 만점짜리라고, 이런 공연은 매일 봐도 싫지 않겠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나서 웬만한 전문예술단체공연보다 나은것 같다고 그들을 칭찬해주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여러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들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군인가족들의 정신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는것이 잘 알린다고,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는

것이 정말 예술소조공연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가족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미덥습니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그들의 정신세계가 대단히 높습니다, 나는 온 사회가 바로 군인가족들처럼 살며 일할것을 바랍니다라는 믿음을 주시였다고 한다.

이렇듯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군인가족 예술소조공연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그와 더불어 수많은 군관의 안해들이 명배우들로 성장하게 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관의 안해인 백련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혼후에는 자기의 재능이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있어서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의 나날들은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무디여졌던 화술적감각을 되찾았으며 한번 두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기량은 마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마냥 높아갔다.

그 나날에 그녀는 알았다.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셨다면 자기는 물론 모든 군관의 안해들에게 이런 행복의 순간, 황홀한 무대가 없었다는것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의 심장속에서 더욱더 커갔다.

그만이 아닌 전체 군인가족들이 항상 그이를 뵙고싶어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이를 가장 몸가까이 모시는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바로 그녀는 작가와 함께 이 불타는 소원을 종자로 하여 독연 《소원》을 준비하여가지고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하였다.

무대막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내처 두근거리기만 하였다.

(제발 실수만 하지 말아라 백련희, 그러지 말자 백련희. 아들아, 엄마를 좀 도와주렴.)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길 없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루에도 몇번 오르내리던 무대가 왜 그다지 넓고 길어보이는지 몰랐다.

언제 마이크앞에 나섰는지도, 어느새 자기가 대본의 절반을 형상했는지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관람석에서 그의 독연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긴장도 두려움도 삽시에 달아났고 그는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연기를 수행했다.

독연이 끝나자 장군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그때를 회상하며 백련희는 말했다.

《우리 장군님께서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실 때 전 이 세상 행복

을 혼자 독차지한것만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신 후 장군님께서는 그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고 그가 일생의 소원으로 간직하고있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리고 독연을 예술영화로 옮길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백련희를 예술영화에 출연시켜도 전문배우들 못지 않게 주인공역을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을것이라는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평범한 군관의 안해인 백련희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예술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설수 있었다.

그는 저으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연기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조국을 지켜선 남편들과 한전호에 서있는 우리들이 대견하고 미더우시여 언제나 마음쓰시며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저같이 평범한 군관의 안해의 소박한 연기도 높이 치하해주신것이였고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영화의 주인공으로까지 내세워주신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그로 하여금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촬영할 때마다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끝끝내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장면들을 형상해낼수 있게 하였다.

그녀는 진지한 대화의 마감에 이렇게 말했다.

《뻐스에 오르면 의자에 앉아계시던 할머니들까지도 저를

알아보고 자리를 내주군 하십니다. <어이구, 우리 군대색시로구만.> 하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군관의 안해된 긍지를 한번 더 느끼게 되고 안해구실, 병사들의 어머니구실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군 합니다.》

백련희는 바람결에 흘러내린 앞머리를 손빗으로 곱게 빗어 올렸다.

상긋이 웃음을 담은 그녀의 맑은 얼굴을 홀린듯 바라보던 나의 눈길이 다시금 입가장자리에 있는 김에 가 멎었다.

후날에도 김 하면 백련희를 다시 추억할것이고 백련희 하면 조국의 군관의 안해들을 떠올릴만큼 인상적인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조국에서 군관의 안해들은 령장없는 병사로 불리운다.

그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병사들을 위해 훈련장에 달려나가 연기내 달게 맡으며 따끈한 밥도 짓고 구수한 국도 끓이고 병사들의 풍성한 식탁을 그려보며 봄내 여름내 아글타글 애써 부업밭을 가꾸고 많은 집짐승들을 기르느라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추켜들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남편들을 따라 온 나라 곳곳으로 달려가 병사들과 어깨 나란히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들.

바늘따라 실가듯 조국의 부름앞에 언제나 충직한 남편을

따라 초소에서 초소에로, 산골에서 또 산골로 이사짐을 옮기고 옮기면서도 남편과 같이 조국을 지켜간다는 자부가 그들의 가슴에 어려있다.

그들은 이렇게 외운다.

《남편들이 총대라면 우리는 총끈이고 남편들이 사수라면 우리는 부사수인데 달리는 살수 없지 않는가.》

그 말그대로 그들은 남편의 안해이기 전에 전우인것이다.

최근들어 북녘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평양의 모습은 실로 빠른 속도로 변모되고있었다. 아마도 상전벽해라는 말은 이런것을 념두에 둔 말이 아닐가 실감이 간다.

체류하고있을 때가 다르고 떠났다가 다시 오면 또 달라진다.

도로옆은 새파란 잔디로 뒤덮여 거리 풍경을 돋구었고 여기저기에 현대미를 풍기는 고급스러운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물놀이장, 봉사시설들, 아담한 공원들이 새로새로 일떠서고 꾸려져 자기 멋을 자랑했다.

이뿐이 아니였다.

사람들의 몸차림도 새로와지고있었다.

특히 고상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함을 풍기는 여러가지 옷차림을 한 녀성들이 거리를 밝고 환하게 보이게 했다.

몇해전 여름에 조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바지를 입고 다니는 녀성들이 일부 있었는데 놀랍게도 2014년 여름 거리에

나선 보행자들속에 바지를 입은 녀성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들은 눈에 톡톡 튀게 색갈도 좋고 형식도 맵시있는 여러 형태의 달린옷과 스카트를 입고 다니였는데 그 모습들이 한결 더 거리를 밝고 환하게 하는듯 했다.

녀성들의 몸차림에서 류달리 눈길을 끄는것은 그녀들이 들고 다니는 각양각색의 가방들이였다.

젊은 층의 녀성들로부터 중년, 로인에 이르기까지 녀성들의 가방은 꼭같은 모양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다양했다.

감동되는것은 녀성미를 한껏 돋구어주는 그 가방들이 대부분 조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것이였다.

그속에는 몇해전 평양에서 열린 봄철과 가을철국제상품전시회장에 들려서 내가 살펴보았던 다양한 모양의 가방들도 있어 흥미를 자아냈다.

국제상품전시회에서까지 다른 나라 가방상품들을 제치고 인기를 독차지했던 가방들의 상표이름은 《서리꽃》.

《서리꽃》표 가방은 조국인민들속에서 참 많이도 류행되고 있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가방들은 평양일용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한다.

조국에 체류하던 어느날 나는 《서리꽃》표 가방을 만들어내는 한 녀성을 알게 되였다.

그는 평양일용품공장 가방직장장 정옥진녀성이였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1990년대에 평양일용품공장 앞에는 실로 어려운 난관이 제기되게 되였다.

그것은 인민소비품들의 생산원료와 자재보장이 끊어지게 되였던것이다. 제일 문제로 되는것이 다름아닌 가방자재였다.

사실 가방은 사람들의 생활에는 물론 사업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그것은 또한 기호품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방자재보장이 끊기였으니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거기에다 전통적으로 생산해오던 트렁크의 형식도 새로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것인가.

또 누구에게 가방직장을 맡길것인가.

보통때가 아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고 책임지울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였다.

진지한 협의끝에 공장의 일군들은 년로한 직장장을 대신하여 그때까지 로동정량사업을 해오던 정옥진에게 가방직장을 맡기기로 하였다.

그는 화학전문학교와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최우등졸업생이였다.

하지만 정옥진에게 있어서 새로 맡게 되는 가방직장장사업은 힘에 부친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것은 자체로 자재문제를 풀고 생산을 보장해야 하는 아름찬 사업이였다.

또 하나는 시대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사고관점과 미적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지는데 맞게 상품의 질과 다양화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평범한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우아하고 세련된 상품을 요구했던것이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 사용자들의 기호와 취미를 따라야 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앉아서 우는소리만 해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일어설수 없었다.

수십명 종업원들의 눈길이 새로 임명된 직장장의 얼굴을 쳐다보고있었다.

그러니 어떻게든 기대를 돌리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가방생산을 위한 자재도 자체로, 걸린 기술적문제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또 생산은 생산대로 멈출수 없었다.

문득 옥진은 가방을 만들면서 버렸던 자투리들이 생각나서 그것들을 한아름 안아왔다.

종업원들의 의아한 눈길들이 새로 된 직장장과 그가 펴놓은 자투리에 쏠렸다.

《동무들, 우리 우선 이 자투리들을 리용할 생각들을 해보자요.》

이렇게 말하며 새 직장장이 내놓는 가방형태도안에는 자투리를 가지고 훌륭한 효과를 낼수 있는 엮음가방이며 쪽무이가방들이 들어있었다.

《야, 정말 멋있는데…》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도 저런 가방들을 꽤 만들수 있을가요?》

반신반의하는 종업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얼굴에는 벌써 신심들이 어려있었다.

신심을 가지면 방도는 찾아내기마련이였다.

종업원들은 새 직장장 옥진을 따라 일어섰다.

자재가 떨어져 생기를 잃었던 현장에 다시금 생산동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그의 눈길은 특색있는 가방을 멘 사람들에게로 쏠리군 했다. 옥진의 머리속에는 오직 가방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가방은 점점 더 사람들의 기호품으로 적응되고있었다.

특색있는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것과 꼭같은 모양이 나타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다면? 가방이야말로 예술작품이 아닌가.

예술작품창작에서 반복과 류사성, 이것은 죽음이였다. 가방생산도 역시 끊임없는 사색을 동반한 창작이 요구되였다.

수천수만개로 생산해야 하는 그런 특색있는 기호품창작을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었다.

그러니 공장기술준비실에만 맡길수는 없는 일이였다.

그러던 2002년 어느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일용품공장에도 들리시여 새로 꾸린 치솔직장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치솔에 새길 《서리꽃》상표의 서체까지 직접 정해주시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서리꽃》상표, 이것은 결코 치솔만의 상표가 아니라고, 인민들의 필수품, 일용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상표로 되여야 한다고, 이런 상품들은 그 어떤 상표의 제품들보다도 더 좋아야 한다고.

그러자면 어떻게? …

그것은 생산되는 가방들이 반복과 류사성이 없는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되게 하는것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우선 직장종업원들의 안목을 틔워주는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창작가의 예술적 착상을 기술공학적으로 안받침하여 현물로 만들어내는는 과정인것이였다.

종업원들모두가 창작가가 되여 모든 생산품을 그대로 창작품으로 만들어내게 하여야 했다.

이를 위해 그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했다.

말그대로 종업원들모두를 새 제품을 구상할뿐아니라 그것을 기술적으로 안받침하여 완성품으로 생산해낼수 있는 구상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실력가들로 준비시켜 독특한 가방제품들을 구상하고 그 질적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했다.

하여 그녀는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고 생산경기를 자주 조직하는 방법으로 실천력을 키워주는것을 직장경영전략실현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가방의 질만 높인다면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재는 해결될수 있었다.

종업원들을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통신)과 공예전문학교(통신) 등에 입학시키고 생산이 긴장한 속에서도 그들의 학습조건을 무조건 보장했다.

배운것을 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할수 있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일생산 및 재정총화와 함께 로력관리, 기술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생산 및 생활문화 그리고 기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모든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했다.

그렇게 하여 종업원들모두가 직장의 주인이 되고 집단주의를

발휘해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직장자체의 공정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국가품질검사만큼 엄격하게 진행하였다.

량심을 걸고 스스로 하는 검사인지라 소홀히 하지 않았다.

1개의 가방생산에 60～80개의 공정이 들어가는 조건에서 매월마다 생산하는 수천개의 가방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수십만개의 공정들을 살펴야 하는것이였다.

앞면과 뒤면의 크기가 꼭같은가, 가방모서리에 두른 장식띠의 길이가 넘거나 모자라지 않는가, 쟈크달기가 바로되였는가, 가방모서리상침이 일반상침과 같은 너비로 일정하게 되였는가, 가방안의 혼솔감기에 이상이 없는가, 금구장식달기가 제대로 되였는가, 실밥이 나온것이 없는가 등 제품출하를 위한 수많은 공정검사를 하고나면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옥진직장장은 이것을 직장의 명예를 걸고 내밀었다.

종업원들의 기능이 높아지고 직장의 전반적실력이 올라가는데 맞게 여러가지 종류의 가방제품창작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매 사람의 특성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소질에 따라 부인용가방과 손가방류, 서류가방과 대학생가방, 려행용가방과 배낭가방류 등의 부문별 가방창작조를 무어주고 보기 좋고 쓰기 편리하며 실용적인 가방생산원칙을 제기한데 기초하여 집체적협의를 거쳐 끊임없이 새로운 가방들을 창작해내도록 이끌어주었다.

하여 일용품공장에서 생산하는 가방들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기가 적지 않게 높아지게 되였다.

노력의 열매라고 할가.

2010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퇴근길 뻐스줄에서 그녀는 등뒤에서 도란도란 울리는 두 녀성의 이런 대화를 듣게 되였다.

녀1: 《이건 외국에 출장갔던 내 사위가 선물한 가방인데 모양두 쓸쓸하구 질도 별로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비싸게 주구 샀다는데 벌써 모서리가 해졌지. 날림식으로 만들었다니까.》

녀2: 《그러게 나처럼 우리 <서리꽃>을 들라구요. 지금 우리 가방이 얼마나 발전했다구. 모양이랑 이 만든 솜씨를 좀 보라구요. …》

녀1: 《정말 질도 좋고 모양도 좋고 가격도 눅고. 여러모로 좋긴 좋군요.》

녀2: 《그러게 우리 옆집 처녀한텐 <서리꽃>표 가방이 몇개나 돼요. 특색있는 모양으로 자꾸 만드니까 견물생심이라구 처녀들이 가만있을수가 없지요.

누가 가방설계를 하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 옥진의 마음은 무등 기뻤다. 행복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자기가 들은 이 이야기를 직장종업원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두가 환성을 터쳤다.

하루일이 더욱 성수가 났다.

더 높은 수준으로! …

《구매자들모두가 수입품이 아닌 우리것, 일용품공장의 가방이 제일이라며 요구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현장에서 울리는 정옥진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결의였다.

그들은 그 다음해에 있게 될 제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에 내놓을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일했다.

직장장부터가 직접 새로운 형태의 가방만이 아니라 그 품위를 돋구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 앞장섰다.



정옥진직장장

지금까지 서류가방제작에서 걸리고있던 문제인 밑부분과 옆부분의 처짐현상을 절개식에 의한 가공방법으로 해결하여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으로 평가되고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아가며 지난 시기 접합방법으로 하던 《서리꽃》상표를 레이자가공에 의한 수지금속판으로 만들어붙여 제품의 품위를 보장했다.

자신부터가 앞장에 서면서 같은 종류의 가방을 5개이상 생산하지 않는 다종소량의 제품생산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하여 질적요구가 보장된 300여개의 가방을 제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 내놓아 전시대를 훌륭히 장식할수 있었다.

2012년 평양일용품공장 가방직장은 또 한계단 도약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 450개의 새로운 형태의 《서리꽃》표 가방을 내놓은것은 물론 평양에서 열린 봄철과 가을철국제상품전시회들에도 련이어 참가하여 다른 나라들의 상품들을 누르고 《서리꽃》표의 인기를 독차지한것이다.

정옥진직장장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옳은 목표와 경영전략을 세우고 떨쳐나선다면 얼마든지 인민들이 좋아하는 인기상품들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였다.

애국으로 심장이 불타면 점령 못할 첨단은 없어라
선군으로 백배해진 힘으로 모든것에 패권을 쥐자
…

정옥진녀성은, 아니 평양일용품공장 가방직장 종업원들은 오늘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하루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이것이 나라의 부강과 래일을 앞당겨나가는 북녘의 평범한 녀성들의 하루일과이다.

씨름경기장에서 조선옷전시장에로

어느날 나는 평양의 풍치수려한 릉라도에서 진행된 제10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장에 안내된적이 있었다. 가보니 한창 경기가 진행되고있었다.

《자, 집중합시다. 제 말에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금방까지 싱글싱글 웃음을 보내던 남성방송원이 자못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주의를 환기시킨다.

《저기 관람석중심에 빨간색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보고 그럽니다.》

일제히 관람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방송원이 지명하는 그 녀성에게로 쏠린다.

《예―》

잠시 어리둥절하여 주위를 살펴본 화제의 주인공은 주변에 아래우 빨간색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성이 자기밖에 없다는것을 확인하고서는 손을 높이 들며 화답한다.

이쯤되자 방송원의 다음말이 기대

되여 관중은 주석단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의 말이 무척 유모아적이다.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생명이 위태로워질가봐 제가 몹시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의 대황소가 위풍당당히 경기장으로 들어오다 빨간색을 보면 위신이구 뭐구 다 버리구 와락― 달려들수 있으니까요.》

《와하하― 와하하―》

순간에 경기장은 요란한 웃음판이 되여버린다.

그제야 리해가 된 그 녀인도 두손으로 입을 싸쥐고 웃음을 터뜨린다.

이것은 제10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장에서 내가 목격한 인상에 남은 장면이다.

우리 조선사람들속에서 가장 일반화되고 사랑받는 민족경기의 하나인 씨름.

씨름은 굳센 투지를 키우며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민족체육경기의 하나이다.

4세기말 고구려의 씨름무덤벽화를 놓고서도 씨름이 얼마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지 쉬이 알수 있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조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씨름경기를 전통화하고있었다.

각 도마다에서 선발되여 출전한 씨름선수들은 민족풍습그대로

황소를 상으로 걸고 치렬한 경기를 진행하며 우승자에게는 대황소와 함께 금소방울이 수여된다.

송암명기소목장에서 키워낸다는 대황소는 한마리가 1t까지 된다는데 이날 내가 본 황소 역시 보통 요란하지 않았다.

결승경기를 앞두고 방송원과 황소를 직접 관리했다는 관리공사이의 대화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따뜻한 눈빛과 소리큰 박수를 보내게 했다.

방송원; 《대황소가 례년에 없이 큰데 얼마나 나갑니까?》

관리공; 《1t입니다.》

방송원;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잘 키운 대황소를 경기장에 척 세워두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관리공; 《예, 앞으로도 황소를 더 충실하게 키워서 씨름판을 더 흥성이게 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여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씨름도 좋고 황소도 좋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나의 눈길을 잡아끄는것이 있었다.

버드나무 휘늘어진 가지사이로 연분홍색, 진분홍색, 초록색, 자주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 하늘색 등 갖가지 색과 무늬의 치마저고리들을 차려입은 녀성들의 화려한 모습과 함께 그들이 펼치는 춤가락이였다.

한두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땀을 들이는 참이면 목청이

터져라 응원에 전심전력하던 녀성들이 징을 치고 북과 장고를 두드리며 춤판을 벌린다.

녀성들의 대부분은 년로보장자들인듯싶은데 치마저고리를 떨쳐입은 그들이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며 빙빙 돌 때면 30대 젊은이로 보인다.

여담삼아 씨름경기장에서 목격한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싶다.

한창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있을 때 어디선가 불쑥 노랑저고리에 초록빛끄리치마를 차려입은 날씬한 녀인이 맵시있게 틀어올린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두손엔 부채를 펼쳐들고 춤판에 끼여들었다.

활짝 펼친 연분홍색부채를 부드럽게 좌우로 엎었다젖혔다 하니 마치 아름다운 꽃잎이 바람결에 설레이는듯 했다.

순간에 춤군들이 그를 중심으로 빙빙 돌며 군무를 펼쳤다.

마치도 그가 주인공인듯이…

그렇게 몇분 지났을가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인공은 부채살을 하늘높이 쳐들며 앉더니 천천히 허리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다.

인기장면을 펼치려는것이였다.

이때였다.

시도는 좋았는데 아뿔싸, 불행하게도 주인공은 얼마 못 가서

벌렁 뒤로 넘어지고말았다.

《저런…》

내 입에서 비명 같은것이 흘러나왔다.

잘 흘러가던 춤이 아쉽게도 그녀의 절정장면과 함께 풍지박산되였다.

하지만 다음순간 나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무용수들은 동정할 대신 유쾌하게 웃으며 그녀를 잡아일으켰는데 허리를 두드리며 퇴장해들어오는 날씬한 그는 가까이 보니 예순살도 넘은 로인이였던것이다.

나는 깜짝 속았던것이다.

치마저고리가 저렇게 나이든이도 젊어보이게 하던가.

견물생심이라 나는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조국에서 치마저고리를 한벌 지어가야겠다.)

그날에 받은 이러한 충동은 얼마후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조선옷전시장으로 나를 이끌었다.

전국조선옷전시회가 한창인 청년중앙회관으로 내가 안내되였을 때 그곳은 장관이였다. 정말 놀라왔다.

수백벌도 넘을 우아한 조선옷들사이로 취한듯 걷는 나의 모습을 촬영해두었더라면 일생 기념이 되였을것이다.

마치 비단속에서 비단을 고르는, 구슬속에서 구슬을 고르는 심정이였다. 이중에서 등수를 가른다는것이 과연 조련치 않은

일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수많은 옷들가운데 어느 하나 같은 무늬가 없을뿐더러 지역별로 그 개성 또한 뚜렷하였기때문이다.

문득 옷을 지은이들의 수고가 헤아려지면서 민족옷의 전통을 살려나가는 그네들의 정신세계에 탄복이 되였다. 동시에 살아숨쉬는 민족의 넋을 보는것 같아 기쁨을 느꼈다.

솔직히 말하여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서 민족성이 무시되고 민속전통이 점차 사멸되여가고있는가.

멀리 볼것도 없다. 남쪽만 보더라도 민족적인 모든것이 뒤전으로 밀려나고있다.

특히 민족의 피는 날로 흐려져가고있고 고유한 민족어는 영어, 일어 등 외래어투성이로 되고있으니 비극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도 남쪽의 집권층은 저희가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있다고 사람들을 우롱하고 민족성을 끗끗이 이어나가고있는 북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기던 나는 몇몇 사람들속에 휩싸인채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 서있는 한 처녀를 보게 되였다.

처음에는 모델인가 했는데 눈치를 보니 첫날에 입을 례복을 고르고있는 처녀였다.

처녀를 보며 싱글벙글 웃기만 하는 총각은 그녀의 신랑감인듯

했고 주변에 서있는 사람들은 가족이거나 처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발걸음을 멈춘 구경군들인듯 했다.

6폭으로 된 새하얀 명주치마의 매쪽마다에는 연분홍살구꽃을 물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9마리의 비둘기수를 놓았는데 특색있었다.

그리고 저고리를 내려다보며 배시시 웃는 처녀의 모습은 그로 하여 한결 더 아름다워보이는것이였다.

나도 그 저고리를 입으면 당장에 각시처럼 보일것 같았다.

이때 한 녀인이 그녀의 옷고름을 고쳐매주며 《얼마나 고운가 보세요. 정말 곱지요.》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더니 《내가 이 옷을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조선옷은 정말 조선녀성들에게 꼭 맞아요. 난 30년나마 조선옷을 지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문명하다고 생각하군 해요.》 하면서 이번엔 선조들에 대한 찬사까지 올리는것이였다.

곁에서 그녀의 말을 귀동냥해듣던 나는 저으기 생각이 깊어졌다.

사람이 한 직업에 그렇게 오래동안 종사한다는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민족옷에 대한 자랑과 긍지, 나아가서 민족에 대한 자랑과 긍지로 가슴 꽉 차있는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다시한번 나는 그가 지은 옷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았다.

아무 작품이나 종자가 있는것처럼 이 옷에 날아오르는 비둘기를 수놓은데도 무슨 뜻이 있으리라.

나는 그에게 옷에 깃든 의미를 설명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나의 신분 같은데는 흥미가 없는듯 했다.

오직 자기에게 그런 청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중 한사람으로 여기는것 같았다.

그는 친절한 봉사원의 자세에서 설명을 했다.

《나는 내가 만든 이 옷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형상하여 통일되고 평화로운 삼천리강토에서 하나로 살려는 겨레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좋은 천이 한감 생겨도 먼저 조선옷을 생각한다는 강원도 동해조선옷점의 리향옥녀성이였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옷을 입는 신부들이, 후대들이 나의 이 마음을 가슴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는 조선옷과 함께 수십년세월을 보낸 녀성이 그녀뿐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평양시 서성구역 종합양복점 책임자로 사업한다는 정영순녀성이나 할머니때부터 대대로 조선옷을 지어왔다는 량강도 혜산시의 가내생산관리소의 심용화녀성 등 만나는 녀성들모두가 조선옷과

함께 일생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있는것이였다.

그곳에서 들은 또 하나의 신선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량강도 혜산시의 어느 양복점에는 전국에 소문난 공훈재단사 송영희할머니가 있었다.

조선옷과 함께 35년을 살아온 그 할머니는 늘 조선옷은 자기의 전부라고 노래처럼 이야기하군 했다.

할머니는 로환으로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뜸두뜸 조선옷전시회에 내놓을 옷을 만드는데 자기의 심혼을 다 바쳤다.

하지만 그는 전시회에 참가할수 없었다. 전시회가 있기 얼마전 세상을 떠난것이다.

그의 딸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옷을 이번 조선옷전시회에 출품하였다.

그는 말했다.

《생전에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백두산아래에 사는것을 크나큰 긍지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옷들마다에 천지의 푸르름을 담았고 백두의 서리꽃, 철쭉꽃들을 형상했습니다.

그렇게 한생 만든 옷들이 아마 수백벌도 넘을겁니다.

우리 고장 녀인들은 어머니가 만든 옷들이 모두 고상하고 우아하며 민족의 정기가 안겨온다면서 즐겨 입군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어머니가 바라던 수준에 올라서자면 멀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니와 같은 솜씨있는 조선옷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심정도 말했다.

그의 결의는 나로 하여금 자기의것을 사랑하며 자기의것을 지켜가는 조국녀성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읽게 하였다.

지금도 대황소상씨름경기장에서부터 보고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나의 눈앞을 스친다.

얼마나 훌륭한 조국의 녀성들인가.

노래를 불러도 춤가락이 절로 나오는 우리의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의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옷을 입어도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의 민족옷을 입는 조국녀성들 또 민족옷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고있는 수많은 녀성들.

자기의 넋,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민족고유의 전통이 살아숨쉬는 조국의 모습을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2013년 3월의 내가 본 평양은 결코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였다.

북부조국땅 가는 곳마다에서는 미국증오의 함성소리가 하늘을 찌르고있었으며 조국인민들의 기세는 당장에라도 미국 그자체를 날려버릴것 같았다.

리유는 명백했고 또한 타당했다.

그것은 미국때문이였다.

정치가도 군사가도 아닌 나의 시각으로 볼 때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2012년 12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채택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비법화한것,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에 대한 더욱 강도높은 《제재결의》를 조작한것,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에 열을 올리고있는 사실 등은 정의감이 강한 조국인민들의 분노를 불

러오기에 충분했다.

정세는 시시각각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로 줄달음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전체 조국인민들과 군인들의 확고한 신념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의 노래를 부르며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항복서에 도장찍을 놈도 없게 박멸하자!》라는 반미구호들을 열창하고있었다.

지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아이들의 입에서도 《밉고 미운 미국놈》이라는 노래 비슷한것이 흘러나오는 정도였다.

그렇게 미국—그 이름은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분노와 증오의 대명사였다.

그것은 강변에 살아도 악어와는 친하게 지낼수 없다는 말과 같은것이였다.

어느날 동료들과 식사를 끝내고 일어서려는데 두명의 봉사원 처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슨 수첩을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미인이 되는 비법이라도 적혔어요? 더 고와질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나는 귀여운 처녀들에게 큰소리로 말을 걸며 가까이로 다가

갔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고는 인차 웃음을 짓고 인사를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들이 들여다보던 수첩에 슬쩍 눈짓을 했다.

제꺽 눈치를 챈 처녀들이 그것을 내앞에 내밀었다.

《이건 우리 동무 어머니의 수첩인데 좋은 시를 고르는중입니다.》

받아들고보니 어지간히 나이든 수첩이였다.

보풀진 수첩의 첫장에는 붉은색으로 된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최후에 웃는자가 승리자이다!》

락관적인 글이였다.

다음페지에는 맨 웃머리에 전국군중문학현상응모 1등작품이라고 밝힌 《시련과 녀인》이라는 제목의 시초가 또박또박 씌여있었다.

시초에는 《고난의 강행군을 돌파한 이 나라 녀성들에게 삼가 드린다》라는 부제도 달려있었다.

내가 그 글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처녀들이 덧붙여 설명했다.

《우리가 어릴 때 창작된 시인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즐겨 읊었답니다.》

《그래요.》

나는 시를 읽어내렸다.

처음엔 흥미의 빛이 비꼈던 나의 눈가에, 다음엔 진중한 빛이, 그 다음엔 심각한 빛이 어렸다.

시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린것이다.

(후날 나는 그 시를 내 수첩에 메모해두었다.)

떨리는 손

한송이 들꽃을 쥐고도
좋아라 뛰는 아들애 손에
무언가 듬뿍 들려주고파
떨리는 나의 손

밤일가는 남편의 밥상에
진수성찬 내 마음 고일수 없어
행주치마 매만지며
떨리는 나의 손

오 불끈 주먹이 쥐여지노라
미국! 네놈을 굶겨봤으면
너의 새끼를

너의 에미를 사흘만 굶겨봤으면
무서워하라
네놈이 보복을 받는 그날을
이 나라의 사나이들보다
녀인들을 천백배 무서워하라

죽가마 저으며 떨리는 이 손
총창을 잡는 그날엔
총창을 잡는 그날엔
단 한번도 떨리지 않으리라!

시련과 녀인

손에 익은것은 부엌일밖에
몸에 익은것은 애틋한 숨결밖에
물오른 앵두마냥 연연하던
이 녀인도 시련의 몇천밤을 살았다

빈손으로 배급소문을 나서며
나약하던 그 걸음은 저 멀리 사라졌노라
빨래감 모아놓고 수도물 기다리던
천진스런 그 모습도 없어졌노라

이악하고 씩씩하고 두렴모르는 내 마음
인민반 윷놀이에 남편까지 불러오고
주먹밥 싸든 지원부대의 한 대원으로
명승지건설장에 더운 땀 바치노라

오 휘두르면 감자밭 늘어나고
중소형발전소 수풀처럼 솟거니
조선옷 차려입으면 춤판이 더덩실
총창을 틀어쥐면 육탄이 못되랴

그렇다 봉쇄의 시련은
이 땅의 연약하던 한 녀인조차
세계대전을 치르고난듯
강철의 투사 로병으로 만들었거니
…

무심히 대할수가 없는 시였다. 피로, 심장으로 쓴 시였다.

돌이켜보면 무심히 밟고 지나던 못난 쐐기풀조차 흰쌀처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만큼의 엄청난 식량난이였고 경제난이였던 조국의 고난의 행군이였다.

귀여운 아들의 그 작은 배조차 채워줄수 없어 쌀알을 헤이며 떨리는 어머니의 손, 맛있는것만을 달라고 내미는 아기의 손에

조차 아무때나 마음대로 가득 들려줄수 없어 떨리는 어머니의 손이였다.

사랑하는 남편의 밥상에 진수성찬 차려드리고싶은 안해의 마음 어쩔수 없어 행주치마 매만지며 떨리는 어머니의 손이였다.

실로 조국에서의 고난의 행군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 대 사회주의 조선의 총포성없는 전쟁이였고 세계대전과도 같은것이였다.

동시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키려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대결전이였다.

《미국과 맞서 총을 잡는 날이면 절대로 손을 떨지 않으리!》

《사나이들보다 이 나라 녀인들을 천백배 무서워하라!》

시에 썼듯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가 들씌운 시련은 오히려 연약하던 조국의 녀인들을 강철의 투사로 만든것이였다.

시는 웨치고있었다.

다시는 미국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굶길수도 없고 피로써 찾은 평화를 잃을수도 없다.

(얼마나 강한 조국녀성들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시를 통하여 자기 위업에 대한 정당성, 자기 위업을 위하여서는 한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충만되여있는 조국의 녀성들을 보았다.

이렇듯 훌륭한 시를 남긴 시인이 누구인가를 알고싶었다.

후날 나는 안내선생의 도움을 받아 잡지 《청년문학》에 실

린 창작가의 수기를 보게 되였는데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은 렴형미녀성이였다.

그녀가 창작수기에 쓴 글의 요지를 옮겨본다.

《… 저의 시초 <시련과 녀인>을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저를 보고 좋은 시를 써주어 정말 고맙다고 말하군 합니다.

무릇 시가 출판되거나 당선되면 의례히 축하한다는 인사말이 오가게 되는데 이 시초를 읽어본 독자들은 묵묵히 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그 한마디뿐이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어린 눈빛에서 저의 시련이 그들모두의 시련이였으며 저의 노래가 그들모두의 마음속 노래였다는것을 말없이 느끼군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비렬한 고립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우리는 전례없는 전인민적인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흙처럼 공기처럼 그 혜택을 늘쌍 누리면서도 너무나 무관심했던 쌀—그 초보적인 생존수단을 두고 제가, 아니 우리 인민모두가 그처럼 고생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행복한 가정, 리상적인 남편과 훌륭한 자식을 가지고싶은 아름다운 공상과 환희에 부풀어 갓 결혼생활을 시작한 저에게도 그 시련은 례외가 될수 없었습니다.

탁아소 보내는 아기에게 싸보내는 작은 밥곽앞에서 저의 손이 그처럼 떨릴줄이야 그 행복의 처녀시절 꿈엔들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어설픈 끼니를 지으며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괴여오르는 사랑과 증오의 불덩이를 진정할수 없어 저는 부엌에 엎드려 <떨리는 손>이라는 시를 단숨에 써냈습니다.

이 시는 시초의 발단이 되였고 저는 련속 <새로운 인사말>, <겨울>, <나는 왜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시련과 녀인>과 같은 시를 거침없이, 불같이 내뿜었습니다.

물오른 앵두마냥 연연하던 한 녀인조차 봉쇄의 시련을 뚫고가며 이악해지고 씩씩해지고 두려움 모르는 강의한 투사가 되여 사회주의 내 나라를 지켜가거니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있으랴! 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저의 가슴에 용암마냥 끓어번졌습니다.

그 용암의 불덩이를 후련히 쏟아놓았건만 그 용암이 어디서 솟구쳤는지 그것은 나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달라졌을가. 아니 나뿐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왜 그처럼 세계대전을 치르고난듯 굳세지고 강해지고 억세졌을가.

나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했습니다.

오늘의 생활, 오늘의 시련, 오늘의 투쟁속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사는 땅이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세계지도도 달라졌지만 이

땅만이 사회주의조선으로 빛을 뿜고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 이 땅을 절대로 달라지게 할수 없어 총포성 없는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연약하던 녀인조차 투사가 되고 로병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도 다 모르고 응당히 그 혜택만 받아오며 <사회주의 내 나라>, <사회주의 우리 나라> 하고 무심히 대명사처럼 부르던 이 땅에 진짜로 사랑과 증오, 눈물과 땀을 바치고 나서야 나는 이 땅앞에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귀중한 땅을 아무 생각없이 서른해나마 밟아왔구나, 이렇게 귀중한 땅을 어떻게 밟을수 있는가, 가슴에 안고 다녀야지. 아니, 머리우에 소중히 이고 다녀야지.

아, 땅! 내 나라 사회주의!

나는 눈물이 쏟아짐을 어쩔수 없어 이 시를 쓸 때 울었습니다.

이렇게 태여난 시가 시초의 머리시인 <땅이여!>입니다.

고난의 강행군의 맨 앞장에서 영웅적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이 땅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우리 녀성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드리고싶은 저의 마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고난의 강행군을 돌파한 이 나라 녀성들에게 삼가 드린다—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써놓고보니 전형화의 각도에서나 언어형상에서, 시창작기교에서

어설픈것도 많았지만 생활에 대한 진실한 느낌과 체험, 뜨거운 사랑의 분출로 이어진 시였기에 사람들은 저의 시초를 즐겨 읽어주었고 문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녀인들까지도 수첩에 저의 시를 베껴가지고 읽고 또 읽는것이였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녀성들 못지 않게 저의 시를 높이 평가해주었고 자기 안해에게, 출가한 자식들에게 읽어주겠다면서 저의 시초를 베껴가지고 가군 하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시가 주는 정신적힘을 강하게 느낄수 있었고 우리 인민이 체험하는 가장 평범하고 위대한 이 생활에 시인의 심장을 바치고 운명을 바칠 강렬한 충동으로 오는 시인의 행복에 잠기군 하였습니다. …》

나는 눈길을 들어 처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바로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신념과 의지, 웃음으로 이겨내며 키워낸 녀성들이 아니겠는가.

무심히 마주볼수 없는 처녀들이였다.

나는 다음장을 번지며 물었다.

《그런데 무슨 시를 고르나요?》

나의 물음에 얼굴이 동그스름한 처녀가 다른 처녀의 팔을 끼면서 《이 동무의 동생이 인민군대에 탄원했습니다. 대학 입학통지서까지 바치구. 그래서 군복을 입고 떠나는 날에 시를 읊어주려는겁니다.》

《대학입학통지서를 바치구요?》

나는 몹시 놀랐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이 가장 큰 소원인 나로서는 그 말이 전혀 리해가 되지 않는것이였다.

《호호, 놀랍습니까? 그애 학급전원이 탄원했는걸요.》

이건 또 웬 말이나, 학급전원이라니?! …

처녀는 놀라워하는 나에게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평상시 학과목성적이 매우 우수하던 봉사원처녀의 동생은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어린 마음에도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다.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은 날 처녀의 동생은 집이 아니라 자기가 앉아 공부하던 교실에 있었다. 그뿐이 아닌 조선인민군입대를 탄원한 그의 학급모두가 함께 있었다.

그들의 책상우에는 깨끗한 종이가 놓여있었다.

여러 책상우에서 흰종이와 함께 드문히 눈에 띄우는것은 상급학교입학통지서들이였다.

그중에는 대학입학통지서도 있고 전문학교입학통지서도 있었다.

그들은 잠시후 펜대를 움직여갔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입대탄원서였다.

펜대를 쥐지 않은 다른 주먹들은 우지직 소리가 들릴듯 꽉

쥐여져있었다.

다행히 봉사원처녀의 동생이 썼다는 탄원서, 뛰는 맥박으로 쓴 그 글을 입수하게 되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배움의 꿈을 이룬 내가 설자리는 결전의 이 시각 대학이 아니라 최전연초소이다. 조국이 없으면 나의 학교도 나의 집도 나도 없다. 나는 군복을 입을것이다. 학창시절 내가 제일로 즐겨 읊던 시 <용서하시라>를 가슴에 품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적진으로 달려가겠다.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여! 부디 나를 최후결전의 맨 앞장에 세워달라. 미국과 무자비한 결산을 하고 대학으로 돌아오겠다.》

체류기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들은데 의하면 2013년 3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과의 전면대결전을 각오한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 자원자수는 평양시에서만도 20만, 전국적으로 볼 때 무려 100만이 넘었다. 그들속에는 녀성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래, 녀자 한사람이 남자 천사람을 이길 때가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며칠후 나는 어느 녀성의 이름으로 실린 이런 시를 보았다.

나는 여기에서 조선녀성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조선녀성의 이름으로!

나는 이 나라의 평범한 녀인
귀여운 자식들이
잘되기만을 바라며
소박한 사랑을 바쳐가는 녀인

허나
우리 녀인들이 사랑하는
이 땅의 소중한 모든것을 앗으려
원쑤들이 전쟁의 불구름 몰아오는
이 시각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수 없노라
그저 소박하게만 살수 없노라

조국이여
연약한 나의 이 손에도
총, 총을 달라
가슴에 떵떵 응어리진
증오의 불덩이를 다 쏟을수 있게
만장약된 총을 달라

조선녀성의 이름으로
원쑤와 계산하리라
1950년대 나의 할머니세대들이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편들을
대신하여
보탑을 잡고 기대를 돌리며
씹어삼켜야 했던 그 피눈물의
대가를

미제의 미친 《제재》와 봉쇄때문에
고난의 나날
허리띠를 조이며 자식들을 키운
그 아픈 밤들의 증오로
백악관이 영영 어둠에 잠기게
하리라
조선녀성의 이름으로
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
세계는 보게 되리라
결전장에서 용감한 아들들곁에
불사신처럼 서있는 이 나라 어머니들을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남편들과 함께

육탄이 되는 이 나라 안해들을
세계의 모든 녀성들은 알게 되리라
녀성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 우리 원수님
녀성들의 명절날
친어버이되시여 축하해주실 때
최대열점지역에 거연히 서시여
귀여운 아기를 품안고 애무해주실 때
녀인들의 사랑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진리로 새겨안은 조선녀성들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께
사랑하는 미래를 맡겼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모르는
조선녀성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원쑤들아!
총결산하자
너희들은 죽을것이다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

바로 그날이 멀지 않아 다가오고있음을 나는 감각하고있다.

《불효자식 돌아오다》

해외에 내가 살고있는 집에는 이런 유화작품이 있다.

《아버지!》

《내 아들아!—》

거지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아들, 자식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격을 금치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행복》을 찾아 방랑하던 아들이 모진 고생끝에 거지가 되여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17세기 네데를란드의 화가인 렘브란뜨의 유화 《불효자식 돌아오다》이다.

30여년전 나의 아버지가 어디선가 구해온 이 유화작품(복제품)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오늘날에도 우리 집 벽에 걸려있다. 생전에 아버지는 때없이 이 유화작품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군 하였다. 그런 아버지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그때 10대의 철부지소녀였던 나는 아버지가 어째서 그 그림을 그렇듯 자주 넋잃은 사람처럼 보고 또 보는지 알수 없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에게 그 그림이 그렇게도 좋은가고 물은적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말없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후날에야 나는 아버지가 그 그림을 통하여 두고 온 고국에 대해 생각하군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버지의 고향은 북쪽의 함흥이다. 지난 6.25전쟁시기 미군의 원자탄공갈에 넘어가 고향을 떠나 남쪽땅으로 또 거기서 해외로 정처없이 흘러갔던것이다.

그러던 1980년대 중엽 해외에서 정치적망명생활을 하던 최덕신 선생이 북에 영주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아버지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죄많은 과거를 따지지 않고 넓은 품에 안아주는 북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감동되여 유화 《불효자식 돌아오다》를 구해가지고 와 그 그림을 들여다보며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해왔던것이다. 그후 아버지는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화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림종의 시각에 남기신 말이 떠오르군 한다.

《조국으로 가고싶구나. 고향의 흙속에 묻히고싶구나. …》

조국방문나날에 나는 이 유화작품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어느날 투숙하고있던 호텔방의 TV로 남조선의 해외파견 정보원들에게 유인당하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박정숙녀성과의 기자회견이 방영되였다.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사에 눈이 어두워 다니다가 종당에는 조국과 정다운 이웃들, 일가친척들을 배반하고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졌던 녀성, 수치스러운 과거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를 보던 나는 불현듯 《불효자식 돌아오다》유화작품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짓군 하던 아버지생각이 갈마들었다.

예로부터 나라를 배반한 죄는 제일 크고 용서받을수 없는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그를 탓할 대신 오히려 넓은 품에 안아준다. 생동한 화폭이였다.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는 박정숙녀성의 가정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윽고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 1동에 살고있는 그의 집에 안내되였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있었다. 알고보니 새 집에서 사는 박정숙녀성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였다.

박정숙녀성은 나에게 짧지 않은 인생에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처음인것 같다고 말하였다.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녀성이라고 저마다 꽃다발을 안겨주고 이야기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들, 거리에 나서면 또 뭇사람들속에 에워싸인다.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허물없이 들고 오는 인민반사람들의 인정은 얼마나 후더운것인가.

나는 박정숙녀성이 살고있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새 생활에 필요한 가장집물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해빛밝은 집안팎의 그 어디에나 행복이 무르녹고있었다.

《좋은 집에서 살고계십니다.》

그는 나의 이 말에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나라에 보탬은커녕 죄지은 몸인데…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요.》

그는 조심히 그리고 눈물에 겨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눈앞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면서 2006년 3월 중국으로 비법월경한 그때부터 불행과 고통의 그림자가 자기를 뒤따랐다고, 다시는 추억하고싶지 않은 날들이였다고 했다.

박정숙녀성은 사실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지난 전쟁시기 미군의 원자탄바람에 남쪽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어떤자의 꾀임에 넘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그가 당도한것은 놀랍게도 남조선이였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다가 남쪽에 잘못 왔으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발버둥치는 그에게 정보원이라는자들은 《여기는 가고싶으면 맘대로 가는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에서의 경력과 생활경위 등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 쓰게 하고는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였으며 지어 조롱까지 하며 모욕을 주었다. 한번은 《탐검실》이라고 쓴 방에 그를 끌고가 손과 발, 가슴에 전기줄을 붙여놓고 불을 번쩍이며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강박하였다.

이렇게 20일정도 취조를 받고 그들에게 끌려 아버지를 만나러 갔지만 그렇게 만나보고싶던 아버지는 뇌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였고 얼마 안 있어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비록 숨졌지만 이복동생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럭저럭 살아갈수 있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천진한 생각이였다.

이복동생은 만날 때마다 말뿐이고 더우기 자기에게 피해가 올가봐 늘 그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할수없이 80살 되는 이모사촌오빠의 집을 찾아가 앓고있는 형님의 간병을 해주며 살았는데 친척집에 얹혀산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재정적부담때문에 더 있지 못하고 사촌오빠가 알선해준 한 로인의 집에서 간병원노릇을 하였다. 나중에는 운신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90살 나는 로인의 집에 옮겨가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그는 갖은 수치와 모욕을 참아가며 지하철도역과 아빠트복도, 승강기청소 등 일거리라면 닥치는대로

하였다.

한번은 어느 녀성의 소개로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한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사장에게 사기만 당하였다. 억울하고 분하여 매일같이 회사를 찾아다니며 사정하였으나 조소와 멸시만 받았다. 온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있다나니 지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지하철도계단에서 거꾸러져 무릎을 상하였는데 돈이 없어 제때에 치료받을수 없었다.

어느날 밤중에 갑자기 숨이 막혀 경찰병원에 간적이 있었는데 의사라는 사람은 생명이 위급하므로 빨리 보호자부터 대라 했다. 보호자가 없다고 하니 즉시에 돌아오는 대답은 입원할수 없다는것이였다.

박정숙녀성은 숨이 막히는데다가 야밤삼경에 돌아가야 또다시 실려오겠는데 병원복도에라도 좀 앉아 안정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래도 의사는 막무가내로 그를 뿌리치며 병원밖으로 빨리 벗어나든가 아니면 당장 보호자를 대라고 야단쳤다.

순간 너무도 분격하여 병원이 떠나갈듯 큰소리를 지르고는 정신을 잃고말았다.

의사가 환자를 놓고 보호자를 찾은것은 만약 그가 죽으면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던것이다.

그는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 공화국에서야 어디 상상이나 할 일인가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자신에 대한 후회가 그 시각 뼈에 사무치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잘살수 있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라고 입버릇처럼 떠드는 남조선의 그 모든것이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요설이라는것을 그는 매일 매 시각 느꼈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차넘치고 사회악이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인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사회, 사람들을 정신문화적으로 타락시키는 남조선사회였다.

박정숙녀성은 남조선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부르는데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일자리란 오물청소, 그릇닦기, 시중들기 등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라고 격분하여 말했다.

그에 의하면 녀성들인 경우 유흥업소에 매매되거나 음란한 화상촬영에 내몰리고있으며 더우기 그들의 주민등록증에는 별도의 번호가 찍혀있어 어디를 가나 외면당하고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난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사회적인 랭대와 따돌림까지 계속되다나니 그들은 정신적불안과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있다는것이다.

어쩌다 직업을 구해도 또 떼울가봐 매일같이 걱정하며 갖은

고역을 당하고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여 죽는 길밖에 없다고 한다.

때문에 그들속에는 자살자들도 많다는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돌리자.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심정이 어떤가고 묻는 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조국은 발을 잘못 디디여 천길나락에 굴러떨어졌던 나에게 재생의 손길을 내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주로운 남조선땅을 떠나 꿈에도 그립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시 안기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비행기승강대에서 내릴 때 그의 심



박정숙녀성

중은 복잡했다. 조국을 배반했던 자기를 과연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위구심때문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오라를 질 각오로 승강대에 나선 그를 사람들은 전혀 내색없이 반갑게 맞아주었던것이다.

그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였다고 한다.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강성국가건설에 피와 땀을 바칠 때 저만 잘살겠다고 어머니조국을 버렸던 배은망덕한 자신이였고 쇠고랑을 채운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아닌가.

그날밤 별이 총총한 평양의 밤하늘을 보고 또 보며 그는 생각하였다.

조국이란 두 글자가 이렇듯 크나큰것이였구나, 미운 자식, 고운 자식 가리지 않는 진정한 어머니품이 바로 나의 조국이라는 인생체험을 통해 얻은 진리가 마음속을 꽉 메우며 새겨지는것이여서 그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다.

내 이제 숨진다한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나를 기다리고있는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의 죄많은 과거를 탓할 대신 재생의 삶을 안겨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실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죄인이나 다름없는 자기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단에 서있는 아들과 함께 평양에 모여살도록 해주시였다며 그는 눈시울을 적시였다.

박정숙녀성은 조국의 품에 안기고보니 꿈을 꾸는것만 같다, 조국에서는 날마다 젊어지고 사람사는 멋이 있다, 그래서 요즘 북과 남의 판이한 현실을 담은 글을 쓰고있다고 이야기했다.

어제날에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깨우치고 바른길에 들어서면 그가 누구든 너그러이 품에 안아 내세워주는 어머니조국, 공화국제도의 고마움을 나는 그녀를 만난 후 잘 알수 있었다.

그후 나는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새거리 1동에서 살고있는 최계순녀성도 만나보았다. 그는 박정숙녀성과 마찬가지로 남쪽에 끌려갔다가 다시 공화국의 품에 안긴 녀성이였다.

자기 잘못을 뼈아프게 뉘우치고 조국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을 뜨겁게 품어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라며 그는 이야기했다.

조국에 돌아와보니 남조선당국의 악선전과는 달리 자식들이 모두 자기 위치에서 그대로 사업하고있었으며 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집에 다시 들어섰을 때 딸이 자기에게는 어머니가 없다고 하면서 막 내쫓았다는것이였다.

곁에 서있던 누군가 그의 자식들에게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주었다고 뜨겁게 말해주자 딸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내여 울음을 터쳤다.

반역의 길을 걸었던 죄인, 낳아키운 자식들도 용서할수 없다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기를 한없이 넓은 품에 따뜻이 품어주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최계순녀성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진정 조국의 품은 다심한 정으로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모두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품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며 그는 하늘같은 그 은덕을 잊지 않고 새 출발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심을 피력했다.

정말 누구에게라 할것없이 교훈적인 이야기였다.

—어머니조국은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로 강하게 나의 심금을 울리고 또 울린다. 나는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유화 《불효자식 돌아오다》를 깊은 의미로 새겨보며 이 글을 쓴다. 그러면서 곰곰히 새겨안는다.

문득 내 귀전에 조용히 들려오는듯 하던 노래소리가 우렁찬 합창소리로 메아리쳐오며 뇌리를 꽉 채운다.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랄라랄라 랄라라 랄라랄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다시 안길 때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랄라랄라 랄라라 랄라랄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내가 본 북녘녀성들

저 자　　**김 영 희**

편 집　　리 연 선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11월 25일

발 행　　주체103(2014)년 11월 30일

ㄱ-1232ㄷ

ISBN 978-9946-414-87-4